2014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 사례집

본업 예술가의 부업 가이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목차 Contents

프롤로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개괄

예술인 파견지원 Imagine Story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정형/지향 스토리

특집 기획

Chapter 1. Sub-job의 탄생
주성진·류성효·신상원 멘토 대담

Chapter 2. 복지(福祉) : (명사) 행복한 삶
고재욱 / 김준서 / 변가영, 임남규 / 이수현 / 손병걸

Chapter 3. 여행 : 경계의 예술
강민지 / 성기화 / 이다슬 / 오석근

Chapter 4. 멘토의 시선
멘토가 바라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목차 Contents

예술인 파견지원 Story

Chapter 1. 공동의 변화 – focus on companies
교하도서관 / 아모레퍼시픽 / ID병원 / 서울대공원 / 정읍시청 / 서울시설관리공단 / 평택평화센터 / 다음카카오

Chapter 2. 예술인의 부업 – focus on artists
유형진 / 함건수 / 이미화·노에리 / 정성화 / 서성훈 / 황지연 / 김재경 / 김동화·정효현 / 손현정 / 신하정 / 오정향 / 윤여진 / 정도영 / 정현진 / 정은주·정현 / 조하영 / 이지혜 / 유순희 / 함혜정

Chapter 3. 따로 또 함께 – focus on people
장윤하 / 박준혁 / 정은주 / 권세미 / 김동현 / 서상혁 / 유영소 / 이경배 / 이성미 / 장명주 / 강학수 / 김두안

inside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Part 1. 사업 발자취

Part 2. 사업 프로젝트 리스트

Part 3. 사업 구성원

born 業 예술가의

副 up 가이드

오랜 나날동안 기업에서는 사회 현상을 분석, 데이터화한 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왔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왜 계량화된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예술을 통해 솔루션을 찾을 수는 없는 걸까.

예술인들은 오랜 나날동안 자신의 작업실 속에서만 예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의아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왜 작업실 속에만 있는 걸까, 작업실을 나와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기관과 예술인이라는 두 주체를 만나게 했습니다.
실험에 가까웠던 이 만남은 '2014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라는 형태로 펼쳐졌고, 본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기관과 예술인이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덕분에 예술인들은 본 사업이 마련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 속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예술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새로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4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기관에겐 예술로 문제를 해결한 사업이 되었고, 예술인에게는 사회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새로운 인큐베이팅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지금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무모할 수도 있었던 이 시작이 176개의 기관과 331명의 예술인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이어지다니, 지금 돌이켜 봐도 아찔합니다. 누군가는 예술에 웃고, 누군가는 예술에 울었던 지난 9개월이었습니다.

'2014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사업이 끝난 지금도 새롭게 성장 중입니다. 올해가 성공적인 실험이었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시기일 것입니다.

여기, '2015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가능성을 그려볼 수 있는 '2014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각양각색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이 책에서 펼쳐질 이야기들이 기관과 예술인의 세상을 확장시켜 줄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롤로그 Prologue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개괄

예술인 파견지원
Imagine Story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정형 / 지향 스토리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그게 뭐야?

"또 떨어졌어……."

소주잔을 들이켰다. 얼마 전 참가했던 뮤지컬 오디션에 또 떨어졌다. 최근 도전하는 오디션마다 모두 탈락이다. 슬럼프인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겠다. 배우로서 길을 잃은 것만 같은 나날들이다.

늦은 밤, 생활비 때문에 시작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가는데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지원해봐라. 너한테 아주 딱이야."

예술인을 파견한다고?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 집에 가서 바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다.

'예술인의 창의적인 시각을 통해 기업, 기관, 지역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화예술적 직업역량을 개발, 실현하고자…….'

다른 것보다 직업역량 개발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다. 슬럼프에 빠져 있었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매달 활동비가 지원된다는 점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었다.

단번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면접 심사까지 보게 되었다. 면접시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기존에 참여했던 문화 예술 지원 사업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 더욱 합격하고픈 열망이 일었다.

보름 후, 또 불합격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던 차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최종 합격 메시지가 왔다. 이게 얼마 만의 합격 통지던가! 나의 예술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는 이제 뭘 하면 되는 걸까? 어디로 파견되는 거지?

사업가가 된 듯한 기분!

부푼 가슴을 안고 가장 첫 번째 공식 일정인 약정 체결식에 참석했다. 약정 체결식에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합격한 350여 명의 예술인이 모두 참석해 큰 규모의 사업임을 짐작하게 했다. 잠시 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총괄 담당자가 나와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저희 사업은, 기업이나 기관에 예술인을 파견해서 예술인이 사회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기업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평소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예술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멘토단이 나와 인사를 했다. 총 14명의 멘토단은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영상, 기업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과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 사이의 약정 체결을 마치고, 마지막 순서에서는 예술인들에게 미션이 주어졌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진행하고 싶은 프로젝트의 기획안 작성!

"내가 파견되어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 난 연극만 해온 사람인데… 뭘 적지?"

며칠 내내 고민했다. 평소 무대에 올라가 연기만 했었는데, 회사 같은 곳에 파견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 때 뉴스에서 소방대원들이 비상 상황 탈출 모의 훈련을 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래, 회사원들과 같이 연극을 하면 되겠구나!"

곧바로 기획안을 작성했다. 정성들여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자니 내가 마치 사업가, 혹은 회사원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른 예술인들과 만나는 기쁨!

"경기도 양평에서 1박2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꼭 참석해주세요."

며칠 후,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담당자였다. 나의 기획안을 가지고 1박2일 워크샵에 참석해달라는 전화였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측에서 보낸 버스를 타고 간 곳은 산 속의 한 리조트. 워크샵에 참석하자마자 나의 멘토를 알려줬다. 다행히도 연극 분야에 밝은 A멘토였다. 워크샵은 각 멘토조별로 흩어져 진행이 됐다. A조의 조원은 총 24명. 다같이 모여 한 명씩 기획안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난상 토론을 했다.

"기업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연극이라…….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가닿으려고 하는 지점을 잘 모르겠어요."

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많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시각 속에서 좋은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맞이한 불면의 밤! 350여명의 예술인들과 14명의 멘토들이 다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예술인들을 만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연극에만 갇혀 있던 내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워크샵이 끝나고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다. 기획안을 업그레이드하라는 미션이다. 워크샵에서 토론을 나눴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안을 업그레이드한 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 카페에 업로드했다. 이제 나의 기획안을 가지고 어디에 파견될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본격적으로 예술인과 기업/기관과의 매칭 단계에 접어들었다.

소통의 묘미!

"어떤 곳에 파견되고 싶어요?"

멘토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평소 관심 있었던 기업, 기관, 지자체에 대해 말했다. 멘토는 상담 내용과 기획안을 바탕으로 기업/기관 추천 리스트를 작성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컨설팅 기관으로 보냈다. 컨설팅 기관은 예술인들과 기업, 기관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서로 간의 매칭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멘토와 컨설팅 기관의 노력으로 C업체와 미팅을 가지게 되었다. 딱 내가 파견을 가고 싶었던 곳이다. 그러나 자만했던 탓일까, C업체에 다른 예술인이 파견되면서 나는 무산되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컨설팅 기관에서 추천해주는 E업체와 또 미팅을 가지게 되었다. E업체는 C업체와는 달리 대기업에 사내 분위기도 경직되어 있어서 나와 잘 어울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컨설팅 기관에서 분명히 나와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강력 추천해서 일단 만나봤다. E업체의 담당자는 '회사원과 함께 하는 연극' 이라는 나의 프로젝트 기획안을 본 후 말했다.

"기획안이 나쁘진 않은데…. 좀 바꿀 순 없을까요?"

"어떻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함께 한다기보다는… 정확히 어떤 목적이 있으면 좋겠는데……."

헷갈렸다. 대체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서 A조 동료 예술인들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나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입을 모아 E업체의 니즈를 파악한 후 그걸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수정해볼 것을 권했다. 이제 다같이 E 업체의 니즈가 뭔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E 업체의 니즈가 뭘까? 대기업이고… 일도 많을테고… 분위기는 칙칙하고…"

대기업? 일? 분위기? 뭔가 연결 고리가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이런 얘길 하자 예술인 중 대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던 예술인이 조언을 해줬다. 대기업은 업무 시스템이 매우 완고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해줬다. 나는 그럼 그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개인의 창의성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업무의 능률도 오를 것이다. 동료 예술인들은 내게 연극이 주전공이었으니 역할 연극을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라 프로젝트를 '롤 플레잉을 통한 기업 문화 개선' 으로 수정해서 다시 E업체 담당자를 찾아갔다.

"우리가 원했던 것도 딱 이런 거였어요! 이야~ 역시 예술인이라 다르네!!"

E업체의 담당자도 마음에 들어 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 A조 동료 예술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축하 메시지가 줄줄이 도착했다. 이런 게 소통하는 기쁨이구나 싶었다. 내가 왜 오디션에 떨어지는지만 고민했던 시절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롤 플레잉에서 뮤지컬 공연까지!

"우와, 대박! 돈 들어왔어~!"

시간이 흘러 첫 활동비가 지급됐다. 통장에 찍힌 활동비를 보니 더욱 잘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다. 그리고 일별 보고서와 월별 보고서를 제출했다. 일별 보고서는 프로젝트를 위해 활동한 내용을 일별로 작성하는 보고서였고, 월별 보고서는 한 달 간의 활동을 요약 정리한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월의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롤 플레잉을 통한 기업 문화 개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원들이 회사 내 가상의 역할을 맡고 가상의 상황을 연기를 하면서 여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연기를 해야 하는 프로젝트이다보니 체면을 중시하는 고위직 간부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다. 할 수 없이 말단 직원들만 모아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훅훅 지나갔다. 어느새 또 한 달이 지나가고, 멘토 주관 하에 A조 모임을 가졌다. 멘토는 A조 예술인들 개개인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었고, A조의 예술인들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하며 즐겁게 웃고 떠들었다.

"그 프로젝트,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음악이 전공인 S 예술인이 내게 말했다. 그러자 미술이 전공인 M 예술인도 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두 예술인의 참여를 받아들였다.

S와 M 예술인 덕분에 프로젝트는 점점 풍성해졌다. 롤 플레잉에 긴장감을 고조시켜줄 음악과 다채로운 소품이 추가되었다. 점점 풍성해지는 프로젝트에 E업체 사원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E업체 내에서도 점점 입소문을 타고 나가기 시작했다.

“그럼…. 나도 한 번 해볼까?”

평소 과묵하고 엉덩이가 무겁기로 소문 난 고위 간부의 말이었다. 알고 보니 학창 시절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롤 플레잉 프로젝트가 점점 풍성해지고 입소문이 나자 본인도 다시금 연기를 해볼 욕심이 생긴 것이다. 이 간부가 움직이자 다른 간부들도 하나 둘씩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했다. 간부들은 롤 플레잉을 마친 후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E업체 담당자에게 지시하더니 프로젝트 규모를 확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프로젝트 확장에 필요한 공간과 비용을 적극 제공받았다. 게다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원 수가 늘어나면서 E업체로부터 추가 활동비까지 지급받게 되었다.

“직원들을 배우로 써서 뮤지컬을 공연해보는 건 어떨까요? 창의적인 기업 문화에 대해서요.”

E업체 담당자의 제안이었다. 롤 플레잉 프로젝트가 활성화 되자 욕심을 내본 것이었다. 순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됐지만 프로젝트를 도와 줄 동료 예술인들이 있었기에 용기가 생겼다. 음악과 미술을 담당해줄 S와 M 예술인과 함께 뮤지컬 공연 제작에 들어갔다. 그리고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사원들이 배우로 활약한 뮤지컬을 공연했다. 결과는 대성공! 나와 S, M 예술인은 쾌재를 부르며 하이파이브를 했다. S, M 예술인 덕분에 나의 연극 직업 역량이 부쩍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불과 몇 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나는 행복한 예술인!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끝날 시기가 되었다. E업체에서는 내게 고마움을 표하며 꽤 규모가 큰 피날레 파티를 마련했다. 피날레 파티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관계자들도 모두 참여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E업체의 간부가 나를 무대 위로 올리더니 감사패와 사원들이 적은 롤링 페이퍼를 전해줬다. 나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를 내려왔다. 그리고 E업체 담당자가 내민 한 장의 계약서.

"내년에도 이 프로젝트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금은 저희와 따로 논의하시죠."

계약서를 받아 들었다.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을 전적으로 내게 보장해주고, 매년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요청하는 계약서였다. 계약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다. 멘토와 동료 예술인들의 축하 속에 E업체 담당자와 바로 계약을 진행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전 나는 연극이라는 판 안에서만 먹고 살 궁리를 했다. 내가 가진 역량 또한 연극에서만 쓰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해 연극 외 분야로 나의 예술적 역량을 펼치고, 세상과 소통하며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됐다.

이제 나는 예술인이자 예술 직업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연극을 계속 하면서 예술적 역량을 활용한 새로운 직업이 생겨서 기쁘다.

나는 행복한 예술인이다. ^^/

특집 기획

Chapter 1. Sub-job의 탄생
주성진·류성효·신상원 멘토 대담

Chapter 2. 복지(福祉) : (명사) 행복한 삶
고재욱 / 김준서 / 변가영, 임남규 / 이수현 / 손병걸

Chapter 3. 여행 : 경계의 예술
강민지 / 성기화 / 이다슬 / 오석근

Chapter 4. 멘토의 시선
멘토가 바라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Chapter 1.

주성진·류성효·신상원 멘토 대담

주성진·류성효·신상원 멘토 대담

Sub-job의 탄생

주성진·류성효·신상원 멘토 대담
주성진·류성효·신상원 멘토 대담

Chapter 1.

신상원 멘토 (기업문화컨설턴트)

류성효 멘토 (독립문화기획자)

주성진 PM / 멘토 (문화예술기획자)

예술 활동의 무대를 확장시키다

Q. 먼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성진 : 보고서에 쓰일 법한 딱딱한 말로 표현하자면, 예술인과 기업/지역 간 협업을 활성화시켜 예술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작업하고, 또 새로운 현장에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지역에겐 경제적 부담 없이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예술인이 하고 싶은 예술 작업을 기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매칭을 해주는데, 예술인과 기업/지역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예술인의 활동비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Q.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이전에도 예술인과 기업/지역을 연결시키는 협업사업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되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주성진 : 기존의 사업들은 예술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기보다, 예술 프로젝트 또는 예술인을 고용한 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있었어요. 결과적으론 지원을 받은 기관이 예술인에게 돈을 주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보니 지원받은 기관은 예술인의 결과물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30명 모아서 교육을 시키면 강사비로 시간 당 얼마 씩 책정해서 준다든지, 혹은 예술인 작업의 성과물만 가지고 돈을 준다든지 하는 거죠. 최종적인 지원 대상이 예술인인 것은 맞지만, 예술인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아니었어요.

Sub-job의 탄생

류성효 : 저는 이 사업을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얼핏 보기엔 예술인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고기'인 것 같지만, 그것은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의 보상일 뿐이에요. 진정한 목적은 예술인이 예술계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만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데 있죠. 실제로 많은 예술인들이 타인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게 작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도 하고요. 자신의 콘텐츠를 통해 기업이나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술인 개인이 직접 기업에 제안해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중개자가 되어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켜주는 거죠.

주성진 : 사실 올해 사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바로 매칭 부분이었어요. 예술인의 기획을 중심으로 기업/지역을 모집해야 할 지 아니면, 기업/지역의 니즈를 발견해서 그에 맞는 예술인을 매칭시켜야 할 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을 위한 단체인 만큼 예술인에 중점을 두기로 했어요. 예술인의 기획을 중심으로 그에 맞는 파트너를 찾아주기로 한 거죠. 하지만 저희가 순진했던 건지, 한계가 많이 드러났어요. 재단의 특성상 예술인 채널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업/지역에 대한 채널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상원 선생님처럼 기업 쪽 발이 넓으신 분들을 멘토로 섭외하고 무리한 부탁을 드렸죠. 기업/지역들에게 우리 사업을 설명해줘서 참여를 유도해달라고요.

신상원 : 저는 기업을 하나의 유기체라고 생각해요. 이 유기체를 움직이는 무의식 같은 것이 바로 기업문화고요. 많은 기업 조직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조직 구성원끼리 상처를 주기도 하고, 모기업과의 소통을 힘들어하는 조직도 있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도 모른 채 좀비처럼 일만 하는 조직도 있죠. 저는 이런 조직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가 되는 지점을 인문학과 일종의 정신분석방법을 통해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멘토를 요청받았을 땐, '나는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찾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예술을 접목시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죠. '기업문화'라는 영역이 기업과 예술이 만날 수 있는 '매개 지대'가 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전제였습니다. 예술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과 예술의 단순한 콜라보가 아니라, 예술이 기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업이 예술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with the company'가 아니라 'into the company'랄까요. 이러한 방법론을 만들고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류성효 : 예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예술인을 관찰을 하다보면, 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요. 그런데 그 능력들이 예술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예술 외에 다른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인 복지의 목표는 예술인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봐요. 기존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예술인의 희생을 일정 부분 계속 강요했어요. 그리고 결과도 기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틀어놔버리죠. 반면, 이 사업은 예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한정짓지 않고, 사업의 주체로 설정하여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인큐베이팅 사업인 것 같아요. 예술인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예술 콘텐츠가 예술계를 넘어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Q. 관건은 '예술인과 기업/지역을 얼마나 잘 매칭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겠군요. 올해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나요?

주성진 : 예술인의 기획과 기업/지역의 니즈가 완전히 딱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부산의 골목 풍경을 일러스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이 계셨는데, 이 분은 서울에서도 같은 작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한양도성박물관'에서도 낙산 근처에 있는 마을들을 일러스트 방식으로 기록해보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서, 이 작가를 매칭시켜 주었죠. 예술인의 기획안과 기업의 니즈가 바로 일치가 돼서 쉽게 풀린 케이스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Q.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예술가의 기획과 기업/기관의 니즈를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주성진 : 먼저 좋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모레퍼시픽'은 신상원 멘토님의 소개로 파트너가 된 기업인데요, 이전부터 '아모레퍼시픽'은 예술에 대해서 열려있는 입장을 가진 곳이었어요. 신상원 멘토님께서 조직문화와 관련된 작업을 '아모레퍼시픽'과 오랫동안 해왔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사업과 기업에 파견된 예술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신뢰를 얻고 시작한 케이스죠. 보통 예술인들이 기업같은 큰 조직에 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생소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에서 먼저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고, 바로 작업 공간을 확보해주었어요. 식사와 출입에 불편함에 없도록 회사 아이디카드도 발급해주고요. 이렇게 호의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파견된 예술인분들이 아예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성과도 많이 내고요. 회사 직원들도 지나다니면서 예술인들이 작업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니까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신상원 : 기업이 예술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무조건 예술인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담당자와 멘토가 기획을 같이 했어요. 기획을 하면서 기업의 입장과 예술인의 입장을 잘 조율하면서 소통을 했죠. 아모레퍼시픽에서 활동하는 팀 중 하나의 예를 들 수 있겠네요. 판화가, 애니메이터, 뮤지션, 이렇게 3인의 협업 팀인데요, 판화 기법 애니메이션으로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기업 측에서는 화장실 이용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서 접점이 만들어진 거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획을 한 끝에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죠. 아주머니들의 캐릭터도 만들고, '변기가 생명체로 꽃을 피우는 등' 메시지를 담은 그림도 함께 그리는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임직원들이 참여하게 했어요. 예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재료가 '완판'될 정도로 성황이었어요. 이렇게 기업과 예술인의 생각이 접점을 찾은 거예요. 기업은 계속 예술인의 작업에 지원을 해주었고 예술인들도 자신들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애니메이션 창작이라는 방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류성효 : '아모레퍼시픽' 사례에서 좋은 힌트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술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콘텐츠가 예술 시장을 넘어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해야 돼요. 그 러기 위해선 예술 콘텐츠가 사회전반에 침투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유형들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술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형태로 계속 보여주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비록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라고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기업/지역에 자신의 콘텐츠를 어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주성진 : "'아모레퍼시픽'이 예술인들이랑 한 거 봐봐. 잘 돌아가잖아. 너네도 나랑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류성효 :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예술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 해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우리끼리 공유되는 것만이 아니라 대중에게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죠.

예술 활동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사업, '과정'이 중요

주성진 :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이상적인 케이스에요. 무엇보다 CEO가 예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일반적인 기업은 이 정도로 예술인들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대기업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올해는 시험사업의 성격으로 작게 진행을 했어요. 올해 사업의 결과를 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는 좀 더 확장을 시켜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준점을 '아모레퍼시픽'에 두면 안 된다고 봐요. 대부분의 기업은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진행을 할테니까요.

류성효 :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참여하는 아티스트의 숫자만큼 다양한 유형이 있거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약간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몇몇 해프닝과 같은 일을 겪으면서 형태와 규모가 바뀌게 된 사례도 있어요. 우선 계량적으로 30명 정도를 참여시키며 시작했지만 꾸준하게 참여한 인원이 많이 줄어 5명 정도가 된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충실히 기록되어 공유되는 것 또한 다른 의미에서 바라보아야 할 사업의 또 다른 가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다음번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주성진 : 말씀하신 그 지점이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이 다른 사업과 차별화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만약 다른 기관의 다문화사업이나 소외문화지역사업 같은 사업이었다면, 망한 사업으로 치부됐겠죠. 성과가 다섯 명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해 지원을 못 받게 되겠죠. 하지만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사회로 나가는 지도를 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도 중요한 가치거든요. 지도 안에 보물이 어디에 묻혀있는 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길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류성효 : 어떤 사례로 봐야할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농장과 매칭된 작가가 있는데요, 어느 날 면담을 진행해보니 작업 외에 농장 일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패키지 작업을 하려면 농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상은 농장 안에서 작가에게 본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노력하는 형태로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노동에 의한 가치로 기여를 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주성진 : 이 사례를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기업은 예술인에게 직접 돈을 주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물론 작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기업에서 지원해줄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기업 입장에서는 공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부담 없이 일단 해보자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니 이게 반드시 성과를 낼 필요는 없는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파견된 예술인은 방치되는 거죠. 하지만 파견된 예술인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있기도 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허드렛일이라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농장에 파견된 예술인은 기획자 마인드로 먼저 농장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 것일 수도 있어요. 섬 같은데서 마을 만들기 같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설문지 돌리고 이런 것 보다, 할머니들 짐도 들어드리고 삽질도 하면서 마을 분들의 마음을 얻는 게 먼저 인 것 처럼요.

류성효 : 그 분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농장 사람들이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 혼자 책상 앞에 앉아있을 순 없다는 거죠. 저는 모든 아티스트가 기획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자기 작업을 조율하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다 기획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성진 : 이게 좀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예술인 스스로 셀프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기획자 혹은 기업가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거죠. 뭐 기획자까지는 괜찮은데,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장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기업가라는 말 안에는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예술인복지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술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케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류성효 : 저는 그것 역시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성공한 작가 중 상당수가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예술인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단지 그림을 그린다고, 음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회가 그들을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성진 : 그건 예술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예술인들을 기업가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신상원 : 예술인 스스로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 자신을 효과적으로 세일즈할 수 있는 예술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겠죠.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술인이 다짜고짜 기업에 찾아가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기업과 예술인들이 협업하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기업들이 마케팅 기획을 하거나 조직문화를 바꾸려고 고민을 할 때 그들이 먼저 예술인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운영하는 미술관이 아닌 사무실 안에서 예술인들이 상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술적 역량 강화가 바로 직업역량 강화

Q. 다시 아까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게요. 지금 현재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가한 기업/지역들이 예술인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지역 입장에선 파견된 예술인과 소통하는 일 역시 하나의 업무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한 농장과 같은 곳에서는 기존의 업무에 추가되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요.

신상원 : 그렇죠. 기업이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예술인과의 협업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죠.

류성효 :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형을 하는 작가가 파견돼서 업무에서 반복되는 동작에 특화된 의자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업무의 성격마다 필요한 동작이 모두 다른데, 왜 다 똑같은 의자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된 작업이죠. 예를 들면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반복하는 동작에 특화된 의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작가의 기획안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매칭을 시켜주었죠. 지금은 기획 단계인데요,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과장님이 직접 작가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그런 의자가 만들어지면 무엇보다도 작업 효율이 좋아질 것이고, 부수적으로 직원들의 특수한 여건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외부에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예술인의 협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주성진 : 추가적으로 그 작업에 대해서 의자전문기업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견된 조형 작가도 의자에 관해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원래는 정형외과 의사나 의자공학자 같은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알아보다가, 한 의자회사에서 관심을 보여서 만남을 주선하고 있어요. 의자회사의 홍보와 연계될 수 도 있을 것 같고요.

Q. 이 사례가 흥미로운 것은 이 작업이 작가의 예술적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네요.

신상원 : 예술인의 활동무대의 확장이 크레이티브한 생각을 자극해줄 수 있는 촉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활동무대를 넓혀주는 것 자체가 예술인복지라고 생각해요.

류성효 : 보통 직업역량강화라고 말하면서 획일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술인에게 직업역량강화란 더욱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술인이 사회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보통 일반적인 직무 체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예술인들이 생각해내면 그것이 가능하게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중간 매개를 해줘서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이 사업의 정체죠.

주성진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기능적으로는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벤쳐캐피탈의 역할입니다. 예술인들의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주는 것. 두 번째로는 결혼정보회사의 역할, 적절한 상대를 찾아 매칭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역할이 바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아직 예술인을 낯설어 하는 기업에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보증을 통해 예술인에게 신뢰를 갖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 역할들이 결과적으로 예술인에게는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직업역량강화를 시켜주고,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장기적 계획이 필요

Q.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 활동과 직업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리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류성효 : 이 사업의 포맷은 매우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단순하게 공식화할 수 없는. 그래서 사업주체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의지라던가 참여자인 '예술인'과 '기업/지역'의 의지가 정말 중요해요.

신상원 : 처음에는 사업의 방향이 럭비공처럼 막 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럭비공이 일정 범위 안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과 멘토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류성효 : 그렇기 때문에 멘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처음에 멘토 제의를 받았을 땐 그냥 예술인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상담해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기업와 예술인을 잇는 매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멘토들이 처음엔 저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멘토를 제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감을 못 잡았던 것 같기도 한데. (웃음)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끄럽지만 이제야 멘토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동시에 깨달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많은 멘토의 수가 필요해요. 지금은 한 멘토가 담당해야 하는 예술인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멘토는 혼자서 약 30명의 예술인을 담당하고 계시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멘토가 많을수록 예술인과 매개 시킬 수 있는 기업/지역들이 늘어나겠죠.

신상원 : 당장 내년 사업을 대비해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올해 사업을 내년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생각해봐야 해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원칙 상 올해 지원을 받은 예술인들은 내년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기업/지역이 올해 활동한 예술인과 내년에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인데, 기업이나 지역에게 계약을 강요할 순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내년에 새로운 예술인이 올해 매칭되었던 기업/지역에 또 파견이 되면, 기존에 활동했던 예술인들은 참 허무해질 거예요.

주성진 : 저희가 기업에 바라는 건 기존의 예술인 중 몇 명 정도는 기업에서 직접계약을 하고 새로운 예술인 몇 분을 추가로 그 기업에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죠.

신상원 :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다행히도 몇몇 기업에서 예술인과 직접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기업에서도 올해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 투자하고 싶은 거죠.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을 발굴해야 되겠죠.

주성진 : 올해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술인의 기획만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술인을 중심에 두고 그에 맞는 기업을 찾다보니 매칭시킬 수 있는 기업/지역의 숫자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스스로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영상을 하는 작가를 원한다고 해서 별 고민 없이 영상 하는 작가를 붙여주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요. 영상 분야 안에도 연출, 촬영, 편집 등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그냥 영상 예술인 한 명과 협업을 하면 모두 다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거죠.

류성효 : 내년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요. 더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신중해야죠.

주성진 :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계량화된 통계 자료로 사업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인 몇 명이 취직했어?' 이렇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정말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크게는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어떻게 1년 안에 바뀌겠어요. 적어도 3~5년은 해봐야 알 수 있는 사업이에요. ^^/

일시 : 2014/11/4 오전 11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글 : 현승인 (funkaline@gmail.com)

*본 좌담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뉴스레터 '들음'에서 발췌했음을 알립니다.

고재욱 / 김준서 / 변가영, 임남규 / 이수현 / 손병걸

Chapter 2.

고재욱 / 김준서 / 변가영, 임남규 / 이수현 / 손병걸

복지(福祉) : (명사) 행복한 삶

고재욱 / 김준서 / 변가영, 임남규 / 이수현 / 손병걸

고재욱 / 김준서 / 변가영, 임남규 / 이수현 / 손병걸

Chapter 2.

최근 몇 년 사이 '복지'라는 단어가 부쩍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복지가 화두인 세상이다. 그러나 복지의 사전적 정의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 하다.

복지(福祉) : (명사) 행복한 삶

사전에서 이 구절을 발견하자 오히려 복지라는 단어가 남용되면서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사람들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역시 바로 '행복한 삶'을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의 사전적 정의는 모르더라도 복지가 가닿고자 하는 곳은 모두가 알고 있는 셈이었다.

고재욱 / 김준서 / 변가영, 임남규 / 이수현 / 손병걸

예술인

복지(福祉) : (명사) 행복한 삶

행복이란 뭘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 거기엔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즉 예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만들어진 재단이렸다. 따라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최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당연히 예술인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끝나가는 지금, 본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행로를 살펴봤다. 예술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린 것은 물론 비예술인들에게도 행복한 삶이 선물처럼 전해졌다. 행복이 또 다른 행복을 낳고, 그렇게 복지가 또 다른 복지를 낳았다.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잔잔히 퍼져 나가듯, 복지라는 돌멩이가 퍼트린 파문은 소리 소문없이 세상에 퍼져 나가고 있었다.

“Art is Everywhere”
/ 카페 오렌지연필 + 고재욱

“그 때 전시 공간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술인 고재욱 씨는 신진 작가 시절의 어려움을 말했다. 전시할 공간을 찾지 못했던 당시의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현재의 신진 작가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 예술은 어디에나 있다는 신념을 믿으며 고재욱 씨는 ‘오렌지 연필’이라는 카페로 향했다. ‘오렌지 연필’을 운영하던 이들은 공간의 허전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고민이었다고 한다. 고재욱 씨는 ‘오렌지 연필’에서 신진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신진 작가들은 작품을 보여줄 기회를 얻어 좋았고, ‘오렌지 연필’은 신진 작가들의 생기발랄한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허전한 공간을 채우고 카페의 이미지 또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좋았다. 말 그대로 예술은 어디에나 있었다. 갤러리가 아니어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었다. 덕분에 신진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행복한 삶에 조금 더 다가갔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고재욱 씨가 그들에게 전한 복지였다.

“미술을 즐기는 사람과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어울려 서로 영감을 주고 받는 공간이 많아지는 것. 그게 제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고재욱 씨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다져준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공간 예술 컨설팅 전문가로서 고재욱 씨의 도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파견지원 사업이 제시한 그들의 미래” / 핑퐁아트 + 김준서

“먹고 살기 위해 잠시만 떠나겠다던 예술인 동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핑퐁아트’의 아트 디렉터이자 공동 대표인 서민정 씨의 말이다. 과거에 그녀는 생각했다. 자생할 수 있는 예술과 직업으로서의 예술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 때 그녀의 생각에 동참하며 함께 해보자고 제안한 사람이 있었다. 현재 핑퐁아트의 공동대표인 김현민 씨였다. 그렇게 2011년, 그녀들만의 즐겁고 행복한 모의가 현실이 되었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면서 기업이나 기관, 지역 등에서 예술 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다방면으로 진행하는 핑퐁아트를 만든 것이다. 바로 이곳에 예술인 김준서 씨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연이 닿았다.

핑퐁아트는 평면 미술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터라 핑퐁아트의 두 대표는 입체 미술 작업을 하는 김준서 씨가 오면서 작업의 영역이 다양해졌다고 말한다. 핑퐁아트와 김준서 씨는 보다 다채로운 영역에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활약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전해준 복지가 더 넓은 복지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예술가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 충주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변가영, 임남규

“더 이상 혼자 하는 예술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죠.”

예술관에 대해 묻자 변가영, 임남규 씨가 입을 모아 말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술, 그들이 말하는 ‘누구나’에는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 아픈 사람들도 포함됐다. 그들은 충주시에 위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용자들에게 예술적 감각을 살려내어 새로운 행복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마음이 통하는 예술인이 모여 협업을 하니 세밀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가능했다.

변가영, 임남규 씨는 “제가 예술가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장애인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을 끌어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뿌듯함이 계속되면서 예술인으로서의 긍지가 생긴 것이다. 자신이 받은 복지를 장애인들에게 퍼트리면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셈이다. 변가영, 임남규 씨는 사회 공헌으로서의 작가 역량이 강화된 것 같다며 미소 지었다.

“병실에 깃든 희망, 그리고 예술”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 이수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수현씨는 어린 시절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 당시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미술 선생님과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시간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한다. 상상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정체 모를 해방감도 느꼈다. 그 때의 경험 덕분 이었을까. 이수현 작가는 사회 환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예술인이 되었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립 암 센터를 찾아가게 됐다. 그녀는 어렸을 적 한 달에 한 번 만났던 바로 그 미술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만났다.

이수현씨는 유난히 말이 없고 낯가림이 심했던 한 남자 아이가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자 아이에게 부질없는 위로의 말 대신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몇 개월이 흐르자 늘 말 없이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없다는 듯 병실 창문만을 쳐다보던 아이가 그녀와 그림 그리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수현씨와 남자 아이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남자 아이는 퇴원하기 전 이수현씨를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고 퇴원하는 게 싫다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수업만을 기다렸다고 말했단다. 이수현씨는 남자 아이와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쉽다고 말한다.

남자 아이에게는 이수현씨와 함께 한 시간이 어쩌면 삶의 희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나 분명한 건, 남자 아이는 병원에서 아무리 아팠을 지라도 이수현씨와 함께 한 그 시간만큼은 행복했다는 것. 이수현씨 역시 남자 아이의 행복을 지켜보며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희망을 발견했다.

“글쓰기는 누군가에게 말 걸기” / 사천재단 은혜의 집 + 손병걸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할 때 가장 강력한 거에요. 자신감이 있으면 내 역할이 있음을 알게 되죠. 거기서부터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술인 손병걸 씨는 노숙인 쉼터에서 문학 치료 글쓰기를 진행했다. 그는 중도 실명이라는 아픔을 겪은 예술인이다. 그래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아픔으로 많은 것을 놓아버린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 장애를 가진 것이 어떤 의미이며,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래서일까, 손병걸 씨에게서 새어 나오는 따스한 온기는 ‘은혜의 집’에 상주하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들은 자신이 겪었던 슬픔을 오롯이 글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실제 장애를 겪고 있는 손병걸 씨가 그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 역시 자신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풀어놓은 것이다. 대인기피증에 우울증까지 있던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장막을 조심스레 걷어내고 있었다.

손병걸 씨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끝낸 후 각종 단체와 기관에 문학 치료 프로그램의 기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신이 받은 복지가 다른 이들에게 퍼져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술은 누군가에게 생각지도 못한 복지를 선물하고, 뜻밖의 선물을 받은 누군가는 또 다른 이에게 복지를 선물한다. 복지란 본래 행복한 삶을 의미하기에 예술을 통해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셈이다. 이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낳은 행복의 고리라 할 수도 있겠다. 2015년에도 예술인 파견지원을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행복하길 기대해본다.

Chapter 3.

강민지 / 성기화 / 이다슬 / 오석근

강민지 / 성기화 / 이다슬 / 오석근

변형: 경계의 예술

강민지 / 성기화 / 이다슬 / 오석근

강민지 / 성기화 / 이다슬 / 오석근

Chapter 3.

여행 : 경계의 예술

예술인

여행을 하던 중이었다. 돈도 부족했고 마땅히 잘 곳을 찾지 못해 마을 회관으로 숨어 들었다. 비가 내리고 있어 온 몸이 젖었다. 다행히 내가 들어간 곳은 아늑했다. 몸에 묻은 물기를 대충 털어내고 내일을 위해 눈을 붙이려 했다. 그러나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은 또 어디로 떠날지,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념에 잠겼다. 그 때 한 소년이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나는 물었다.

강민지 / 성기화 / 이다슬 / 오석근

“넌 누구니?”

오랜 여독 때문이었을까, 지쳐 보이는 아이의 눈에서 작은 빛이 보이는 듯 했다.

“전 여행자에요.”

흥미로운 아이였다. 빛이 사라지고 칠흙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비바람 속에서 여행자가 나타났다. 그것도 한참 어린 꼬마 아이. 난 담요를 건네 주며 어디를 여행 했느냐고 물었다. 아이는 담요 속에 쏙 들어갔다. 물에 젖어 떨리던 몸이 서서히 잦아 들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첫 날은 제주도였어요.”

태풍이 몰아치던 낮이었어요. 마음 먹고 제주도에 갔는데 하필 비가 오지 뭐에요.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로 가득한 해수욕장이었을 곳인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아저씨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저씨는 ‘이다슬’이라고 짤막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다시 물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스런 표정이에요?”

“우리 마을의 일 년치 수입원이 이곳 협재리 해수욕장인데, 올해는 태풍으로 사람들이 안 왔어. 이 제주도에는 새로운 것이 필요해.”

아저씨는 자신을 따라 오라고 했어요. 노오란 지붕의 카페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름이 ‘모살’이래요. 제주도 말로 모래라고. 이 카페는 아저씨가 작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협재리의 역사를 모두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곳에는 마을 주민 분들이 모여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아저씨도 그 이야기에 동참했죠. 다들 걱정거리도 많았고, 마을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 아저씨가 갑자기 페인트 통을 들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따라 갔더니 다른 마을의 입구에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흉물스러워 보이는 커다란 물탱크가 있었어요. 물탱크를 보더니 이다슬 아저씨가 노랗게 색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아저씨는 미술 작가라고 대답했어요. 신기했어요. 내 눈빛을 눈치 챘는지 아저씨가 말했어요.

“고향인 제주도를 잠시 떠나있었단다. 좀 지겹기도 했고, 마치 유배지 같았다고 말하면 이해할 수 있으려나? 그런데 아일랜드에서 작가 생활을 하면서 예술가라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 그 뒤 바로 고향으로 돌아왔단다. 내 고향인 제주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

“그럼 마을 주민분들이랑 친하겠네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날 이주민으로 생각해. 그래서 난 여기 살아오셨던 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단다. 작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늘 고민해.”

아저씨는 곧바로 마을 강당으로 향했어요. 떠나야 했지만 또 궁금해서 쫓아갔어요. 거기에는 유명한 책을 쓴 작가님과 독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북 콘서트라나 뭐라나, 그런 걸 하더라구요. 신기했어요. 미술 작가님이라면서 이런 것도 하실 줄이야.

“미술 작품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곳의 문화도 중요해. 그걸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때론 내가 하던 일과는 조금 다른 것도 하게 되지. 너도 가끔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바라봐.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보인단다.”

아이의 이야기는 재미있었다. 여행을 오기 전 나도 미술 작가로 불렸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미술 작가가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처없는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였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 그것도 꼬마 아이에게서 다른 작가의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다. 어느새 가슴 한 켠이 뜨거워졌다.

“또 어디 갔었는지 말해줄래?”

아이는 눈을 지그시 감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이번에는 큰 섬이었어요. 사람들은 대부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곳 분들은 대부도가 아니라 '큰 섬'이라고 부르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저도 큰 섬이라고 불러요. 어찌 됐든 거기에는 오래된 빈 집들이 많았어요. 노란 옷을 입은 여자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자 아이의 손에는 그림이 있었어요. 큰 섬을 그린 거라고, 전시를 하러 가는 길이라고. 재미있었어요. 이 여자 아이가 전시를 하다니. 신기해서 그 아이를 따라갔죠. 원래는 해양생태마을 육성추진센터였대요.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아 쓸쓸한 곳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는 그곳을 뚝딱뚝딱 고치기 시작했대요. 아마 건축가였나봐요. 거기엔 제가 따라갔던 여자 아이의 친구들이 많았어요. 다들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걸고 있었어요. 잠시 후엔 여자 아이가 갑자기 자신이 그린 그림 앞으로 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에요.

그 때 한 이모가 다가와서 제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여행자라고 대답했더니 이모가 재밌다는 듯 크게 웃으며 '성기화'라고 이름을 밝혔어요. 이 곳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바꿔봤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건축가냐고 물어보니, 또 미술 작가라고, 그림을 그렸다고 대답하셨어요.

"지금 여기는 대부 초등학교 친구들이 큰 섬을 마음껏 그리고 그걸 전시하는 곳이란다."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의 그림을 거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 마음을 알아 채셨던 건지 작가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구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어렵게 생각해. 그런데 이걸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한다는 걸 알게 됐어. 어떻게 보면 일상과 예술은 따로 있는 게 아냐. 그래서 난 이곳에 계신 분들과 아이들 모두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예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단다. 그게 내가 바라는 소통이야."

예술가가 아닌 이들이 바라본 일상에도 예술이 있다. 나는 예술가였지만 나의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 누군가의 일상에서 예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적은 없다. 예술이라는 건 대단히 특별하면서도 그다지 특별한 무엇이 아닐 수 있는 걸까?

“작가가 작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아저씬 아저씨가 걸어온 길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내면 되는 거에요.”

내 머리 속을 읽은 것만 같았다. 복잡해졌던 머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나는 예술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는 침묵이 길어지는게 싫었는지 또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부천의 강남시장에 갔어요. 아시아인권문화연대라는 곳의 사무실에서 ‘강민지’라는 분을 만났어요. 애니메이션 작가라고 하더라구요. 전세계의 수많은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 작품을 상영했고, 국내 방송에서도 작품을 방영했었대요.

“이곳에서 강남시장 마을 축제라는 걸 하거든. 축제를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겠지. 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 한 번 볼래?”

선생님이 조그마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더니 종이들을 조금씩 빠르게 넘기더라고요. 그러자 그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에요.

“이 그림들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 신기했지. 난 그 동안 영화제에 많이 참가하고,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 교육을 많이 해왔었거든. 이런 방식의 시도는 처음이야. 내가 구상했던 작업이 실질적으로 활용된다는 걸 발견한 건 참 즐거운 일이야. 애니메이션만 만들어왔지 지역의 마을 축제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줄은 몰랐어.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지.”

작품에 열정을 쏟던 작가가 마을 축제를 알리기 위한 일에 자신의 역량을 쏟는 것이 재미 있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내 작업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문득 내 앞에서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지 궁금했다. 아이는 거듭 자신을 여행자라고만 말했다. 아이는 마지막 이야기라며 입을 열었다.

인천 중구였어요. 우현로 39번길이라고, 신포시장 아래 길을 의미한대요. 예전에는 번화가였나봐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만큼의 생기가 없대요. 실제로 보니 한바탕 붐비다가 그 바람이 지난 뒤의 고요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그곳에 음악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 분들이 들어간 곳은 비어있는 상가였어요. '라 뽐므'라는 가게였던 것 같았어요.

"넌 누구니?"

깜짝이야. 뒤에서 한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아저씨는 자신을 '오석근'이라고 밝히고 사진 작가라고 소개했어요.

"신포동의 유일한 레이브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 난 홍예문 문화연구소라는 곳을 통해서 이 파티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몇 달간 고민하고 회의를 했어. 이제 이곳의 수많은 뮤지션들과 디제이들이 와서 파티를 할 거야. '신포병신레이브'라고 한바탕 신명나게 놀아보자는 취지의 축제라고나 할까?"

파티를 기다리면서 시장을 거닐었는데 상인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기운을 불어넣어줘서 좋네.' '죽어 있는 곳에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져.' 그 파티가 시장 상인분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으신다는 분이 뮤지션들과 파티를 여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신기했어요. 본업이 사진이라면 이 일은 부업인 걸까 싶더라구요.

"동인천에는 삼치 거리라는 곳이 있어. 난 그곳에서도 축제를 만들 거야. 올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내가 주로 하던 사진 작업, 설치 작업 이상의 것들을 하면서 내가 서있는 이곳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 내 생각의 가능성을 계속 확인한 거야."

아이의 이야기가 끝났다. 조용해졌다. 대신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힘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돌아보니 아이가 없었다. 어느새 창 밖으론 아침이 도착해 있었다. 내가 꿈을 꾼 건가? 꿈 치고는 너무 생생했다. 아이가 들려준 이야기 하나 하나가 떠올랐다. 모두 개인의 전문 분야를 뛰어 넘고,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것이었다. 경계를 넘나들 때, 혹은 경계 위에 서 있을 때, 어떤 가능성이 생겨난다. 아이가 내게 남겨준 것이었다. 여행자라던 그 아이.

가방을 둘러메고 바깥으로 나왔다. 비는 그치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오랜만에 상쾌한 아침이었다. 밤새 내게 왔다 간 여행자,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

멘토가 바라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Chapter 4.

멘토가 바라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멘토의 시선

멘토가 바라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멘토가 바라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Chapter 4.

멘토의 시선

멘토

강성삼 / 김병주 / 김월식 / 류성효 / 박이창식
박준 / 서지혜 / 신상원 / 양철모 / 주성진 /
하림 / 하원준

강성삼 멘토 / ㈜올댓스토리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이 세상에 새로운 무언가를 하나 더 보태는 사업입니다. 예술인이 어딘가에 파견이 되고, 그곳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꼭 가시적인 성과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가시적인 성과여도 이 세상에 무언가가 보태져서 새로운 복지를 낳는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삶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한 해 동안 예술인들, 기업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술인의 역량은 기대 이상이었고, 기업의 예술에 대한 니즈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 둘을 만나게 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거꾸로 이제라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무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했지만, 놀랍게도 예술인들은 예술인들끼리 돕고 챙겨주며 무수한 문제들을 스스로 헤쳐나갔습니다. 멘토들은 예술인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술인들마다 편차는 있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모두 공동의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잘해서 제대로 된 일 한 번 벌여 보자, 혹은 먹고 살 길 제대로 마련해보자, 그런 목표들 말입니다.

예술의, 예술에 의한, 예술을 위한 복지와 파견.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김병주 멘토 /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기존의 프로젝트 공모 등의 사업지원이 아닌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지원의 형식을 지녔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며, 동시에 예술인의 영역을 기관, 기업, 지역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다각적인 영역 확장을 모색하는 방향성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014년은 첫 해인 만큼 사업 운영에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 일부 참여 예술가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 등 다소의 난항을 겪은 것도 사실이나, 전체적으로는 예술가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예술이 지역, 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영역들과 접목할 경우 어떤 가능성이 생성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미 올해의 운영을 통해 얻은 교훈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단에서도 차년도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 이미 참여한 예술가들의 만족도 및 향후 기대감이 높다는 점, 올해 참여하지 않았던 예술가들 사이에서 이미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본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의 가치는 명확하며 이러한 접근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도의 사업이 지속성과 함께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 운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단의 사업 전담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현재의 인원과 지원체계로는 직원들의 과부하를 피할 수 없으며 350명이 넘는 예술가들의 민원 및 효과적 사업관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예술가/멘토 그룹을 확대하여 새로이 파견사업을 지원하는 예술가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과 세심한 지원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외적으로는 재단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전반의 관심과 다양한 기업/기관들과의 네트워킹, 문화예술의 사회적 연계와 새로운 가능성 창조라는 전반적 인식제고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김월식 멘토 / 무늬만커뮤니티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그동안 광의적 차원에서 예술인에게도 보편적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복지 지원 접근을 구체적이고 실효적 측면에서 수행하게된 사례라고 판단된다. 다만 그 수행과정에서 사업 첫해가 갖고있는 한계와 오류의 가능성 또한 많이 드러난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수정, 현실적으로 가능한 접근과 비전에 대한 관심과 수행의지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우선적으로 예술가의 파견현장에 대한 정보와 현장의 사업 이해도, 예술과 사회가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호 작용에 대한 제안들이 분명하고도 설득력 있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예술가들 역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이 사업을 통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성장이라는 성과는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획득되는 성찰과 반성, 새로운 작업 동력 찾기가 될 것이다) 진정성 있는 태도들이 필요하다.

많은 파견 예술가들이 파견활동으로 지원된 활동비의 그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예술가답게 스스로 명예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한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 만큼 많은 예술가들이 사업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성찰에 대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저 단순한 복지차원의 활동비 수급으로 사업이 진행된 부분도 있어 멘토로써 매우 안타깝고 불편한 심정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6개월의 시간에 대한 한계성들을 생각해보면 예술가의 자율적 상상력과 진정성 있는 수행력이 결합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해보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그리 쉽게 판단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사업에서도 역시 예술가의 자율적이고 진정성 있는 의지와 태도를 사업의 필요충분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감각적이며 구체적인 예술가들의 동기화에 주력할 필요를 느낀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 제도가 구조화되고 사업이 지속될수록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이 때로는 예술을 일로 만드는 현상을 종종 목격했던 경험으로는 예술가가 스스로 춤추게 할 관용적 지원과 그 과정을 파트너로써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충고할 멘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류성효 멘토 / 독립기획자

아티스트가 가진 다양한 재능이 작품창작과 더불어 아티스트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실험적인 형태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이해했다. 한국의 경우 문화예술 창작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제도가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들이 느끼는 생존과 관련된 어려움은 여전하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아티스트들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아티스트들의 생활, 생존 등에 대한 고민을 어떤 방향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능력이 각 장르 작품들이 전형적으로 소비되는 좁은 범위 내에서만 이해되어졌던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그러한 능력이 아티스트들의 생활 자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다시 말해 기업이나 기관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및 역할을 아티스트들의 활동이나 능력과 연계시켜 작동시켜보는 혁신적인 실험이라는 생각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매개 작업과 기본적인 활동비를 동반한 계기를 제공하고 기업 및 기관이 아티스트들에게 지속적인 수입 및 기타 다양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러난 모델이 필요성을 절감하는 아티스트 및 기업, 기관에 잘 알려져 기본적인 인식 전환은 물론 실 시행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과 방향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사업의 진행 방법 및 구조가 아주 복잡하다기 보다 프로그램의 지향점 및 접근 방법이 다른 문예진흥사업과 달라 사업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및 기업, 기관 일부가 이해와 관련된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한국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주요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는 소중한 사업이다. 다양한 사업 진행자들과 참가 아티스트들의 경험과 실적을 토대로 더 과감한 프로그램 개선과 보완을 진행해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크다.

박이창식 멘토 / 문화살롱공

"지렁이 기어간 자리에 지렁이 자취가 있고, 뱀이 기어간 자리에 뱀의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에 의지해 마음이 나아간 자리마다 마음의 흔적이 있으니, 그 흔적이 흘러 모이면 서사(敍事)가 됩니다. 예술인들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가능성을 열고, 그 가능성에 화답을 얻고자 사람을 만나고, 기관을 만나면서 마음에 스친 자취들을 찾아 말로 언어로 옮겨 적고자 첫눈을 뜨고 말을 배우는 아이와 같이 묻고 또 물어가면서 평소 관심에 두지 않았던 주변을 살필 기회와 공공의 가치에 예술적 영감을 포개어 내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적인 판단과 실천은 매우 정직합니다. 그래서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이번 파견사업을 통해 얻었으면 합니다. 예술은 거울과도 같아서 있는 그대로를 반영합니다. 그런 거울이 없으면 만들어 세우고,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닦는 것이 바로 공공예술입니다.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거울을 세우는 것! 바로 공동체 예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술 활동은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진실보다 더 정직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노자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우는 것은 진짜 소리다. 진정한 소리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소리는 작아도 정직합니다. 가짜가 아니란 말이지요! 이는 아주 작은 소리가 엄청난 무게를 지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울림이 큰 예술 활동을 기대합니다.

박준 멘토 / 여행 작가

"파견사업으로 인해 도서관에 예술이 스며들었다."

교하도서관 사서의 말이 기억납니다.

"파견사업으로 인해 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란 인정을 받은 것 같다."

저희 조 어느 예술가의 말도 기억납니다.

파견사업이 모색한 예술가와 사회의 접점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예술가가 지역, 기관에 들어가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이 스며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기관은 낯설게만 느껴지던 예술가를 직접 만나 그의 작업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술이 일상의 공기를 즐겁게 만드는 과정을 체험합니다. 흔히 작업실에만 머물러 있기 쉬운 예술가는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종종 버겁게 느껴지던 사회와의 접점을 새로이 체험합니다. 이런 랑데부를 통해 예술가는 수동적인 봉사나 사회공헌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 기관의 후원을 받으며 자기 작업을 기쁘게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관건은, 지역의 공공성이나 기관의 이익과 부합될 프로젝트를 예술가와 지역, 기관이 어떤 과정을 통해 기획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술가가 일방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은 금년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충분히 배웠습니다. 내년 사업에서 이 점이 보완된다면, '예술이 사회에 스며들게 한다.'는 파견지원 사업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충분히 공감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지혜 멘토 / 인컬쳐컨설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가들이 사회에 새로운 이로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예술가와 파트너기업의 동반 학습과 성장을 이뤄내는 가운데에 예술가의 새로운 경제적 활동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다부지게 욕심을 낸 사업이었다. 특히 기업 안으로 예술가들을 들여보낸 사업은 분리되어 마주할 기회가 없었던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리스크를 안고 기꺼이 상호작용을 하는 기회를 열었다. 예술가는 '을'이 아닌 파트너로 서서, 창작을 해오면서 길러온 크고 작은 근육들의 새로운 쓸모와 적용을 시도해보았다. 음악적, 회화적, 문학적 구상을 고민하는 깊이만큼 기업이 돌아가는 매커니즘을, 기업 내 문화를, 기업 조직원들의 삶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예술을 통해 소통해내는 예술적 실험이었다. 예술가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기업의 효용에 부합하는 예술의 효과성은, 기대하면서 기대하지 못하는 미지의 것이었고, 그 누구도 섣불리 예단하지 못하기에 많은 시도와 실험, 그리고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다. 오랜시간에 걸쳐 분명한 위계질서와 성과체계, 그리고 안정감을 부여하는 그들만의 문화가 존재하는 기업에 파견된 예술가는 예술을 일시적 엔터테인먼트로서나 조직을 단지 조금 더 단장시키는 차원이나 구체적인 목적에 기능적으로 활용해 온 기업에게 익숙한 방식 너머의 가치를 구현해내기 위해 크고 작은 장벽들도 끊임없이 마주했다. 예술가를 초청한 기업의 수장이나 담당자가 있다 하여도 조직 내 활동을 위해 닻을 내리는 것도, 동참하는 활동을 만들어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도전이었고 때로는 무모하게 느껴졌다.

그 과정은 예상 이상으로 어려웠고 혼돈과 역경, 실패와 좌절도 함께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예술가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닌 생각보다 더 나은 사회적이며 창업가적 기질을 발견했고, 기업 내 조직원들은 생각보다 훨씬 예술가적 기질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동료와 스스로를 새롭게 대면했다. '기업 혁신을 매개하는 예술가,' '예술 기반의 조직학습' 등 이 사업이 지향하는 공중에 부유하던 개념이 예술가와 기업인들에게 녹아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업도 예술가도 그 다음 행보를 계획하기 시작한다. 더불어 예술가들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생산활동의 기회와 창작에의 영감을 얻어가니 또한 신명난다.

신상원 멘토 / 기업문화컨설턴트

신화적으로 얘기하자면 오작교를 놓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견우는, 농경이라는 생산적 활동의 의미 그대로 기업과 기관일 것이고, 직녀는, 역시 옷을 짓는 창조자의 의미 그대로 예술인들이겠죠. 이들은 헤어져 있었어요. 예술은 예술'계' 안에서만 창조 활동을 하고 있었고 기업과 기관은 예술 바깥에서 예술을 소비하고나 혹은 지원하거나 하고 있었죠. 이 둘을 만나게 해줍니다. 만나면 사랑할 수 있겠죠. 사랑의 결실로 자식들을 낳게 하는 작업이 바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저는 기업에 주목합니다. 지금까지 예술과 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사고틀은 'with the company' 이었다고 생각되어요. 가장 선진적인 협업 분야에서도 말이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오작교라고 생각 안해요. 여전히 '각자의 세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into the company'라는 사고틀을 추가하고 싶어요. 예술인들이 '기업 안으로' 들어가 기업의 여러 문제를 '예술적 사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건 문화를 만드는 인간의 사고 방식과 예술을 민드는 사고 방식이 같기 때문일겁니다. 올해의 실험에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요. 부디 꾸준한 지원과 장기적 안목으로 이 오작교가 예술대교가 되길 바랍니다.

양철모 멘토 / 공공미술삼거리

나는 예술인이지만 문화예술행정가와 사업을 기획하기도 하고, 진행된 사업을 평가 후 다음 년도 사업의 방향을 잡는데 함께 하기도 한다. 그 중 가장 힘겨웠고 숙제를 많이 남긴 사업이 바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다. 초기부터 두명의 예술가가 합류에서 탈락했고 3명이 4개월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질문은 오해를 샀고, 너무 심하다 싶은 예술인에게는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다. 쉽지않은 일들의 연속이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가장 큰 가능성을 이야기해야 겠다. 그건 파견 단체에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협업에서 찾을 수 있었다. 빅이슈에 파견된 연극, 음악, 영상 4명의 예술가가 노숙인 합창단을 이끌어 왔다. 노숙인이라는 사회적 특정계층에 자원봉사하는 예술인을 칭찬하는건 절대 아니다. 이들의 협업구조는 메끄러웠으며 각자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움직여줬다. 특히 솔가는 토토토문화예술학교 아이들과 노숙인이 만나 함께 합창을 부르는 기획의 알까기(나는 매개자가 매개의 구조를 펼치는 용어로 기획의 알까기라는 단어를 쓴다)가 이루어졌다. 예술인과 노숙이이 만나 시민(공공)과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노숙인과 청소년 그룹이 새롭게 만나는 지점을 매게했다. 이 순간을 뜨거운 한순간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순간들이 몸에 닿아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협업하는 예술가들의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술인도 경험하고 성장하며, 그 과정에 사회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문제 시인이 그랬다. 예술가의 작품보다 예술가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주성진 멘토 / 독립기획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예술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예술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드높은 이상을 지닌 사업입니다. 적어도 제가 1년 동안 함께 사업을 진행해 온 많은 예술가 분들과 멘토 및 재단 관계자 분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계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이 우리 사회 곳곳에 타고 있는 급한 불을 끄는 사업이라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모든 예술가 분들께 다시는 불이 붙지 않는 토양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이 세상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역량 있는 예술가분이 과제를 지니고 있는 기업과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을 더욱 원활 하게 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때로는 벤처 캐피탈이 되어 예술가분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때로는 결혼정보회사가 되어 좋은 하모니가 가능한 기관과 예술가를 매칭하고, 때로는 서로의 신뢰를 위해 보증을 서는 역할을 합니다.

첫 해 사업의 성과가 고스란히 담긴, 본 책자를 읽어보시면 1년 동안 사업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림 멘토 / 아뜰리에 오

지난 8개월 동안 함께 했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가 혹은 예술과 사회와의 접점을 직업이라는 범주 안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사실 직업으로써의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면 언제나 답을 내기 어려운 질문들이 만들어 진다. 사회와 예술의 필요와 충분조건 사이에서 서먹한 지점에 있는 문제들을 부드럽게 녹여내고자 하는 시도가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중 하나였다. 각자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멘토 입장에서 흥미 있게 지켜보았다. 모든 시도가 다 성공적인 결말로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예술가의 역량에 대한 검증과 현장에서의 필요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 부족으로 참여 작가들의 생각이 예술과 현장 사이를 표류하다가 기간이 종료된 적도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하며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였다. 서로 간에 애정을 갖고 잘 관찰 하는 방법 이상의 것이 없지 않을까. 소개팅 자리에 나온 이성이 서로를 살피듯 서로 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서로 덕 볼 생각만 하며 다른 쪽을 보고 있는 이상 양쪽 모두 소개팅에 성공하긴 어려울 테니 말이다. 세상과 예술이 서로 아름답게 주고받는 모습을 잠시나마 꿈꿀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하원준 멘토 / 영화 감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350명의 예술인들에게 기관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하고 그곳에서 예술적 역량을 발휘도록 하여 현장에 예술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종의 〈공유 예술 새싹 뿌리내리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이 예술가의 왕성한 예술 활동을 이끌어내는 전지전능한 만능키는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사업이 있기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분명 사업으로 인한 전진과 성과의 족적은 뚜렷하게 찍혀가고 있는 중이다.

예술가에겐 예술 활동을 통한 경제활동의 자립 의지에 비해 눈앞에 펼쳐진 척박한 환경을 이겨나가는 회생의 기회와 새로운 시각의 확립, 타 분야의 예술가와의 만남과 소통을 통한 고립감 탈출을 위한 하나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되었다.

그리고 기관과 지역은 특유의 조직 경직성과 지역 기반 예술 활동의 빈곤함을 벗어나가고, 지역과 기관 내의 예술 활동을 무상에 가깝게 제공받음으로써 가장 '가성비' 높은 예술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었던 쇼케이스 프로그램이 되었다.

언제까지 예술가는 가난하고, 보통 사람이 누리는 풍요를 외면한 채, 어두운 작업실과 거리를 전전해야만 할까? 언제까지 예술가는 예술혼이라는 녹슨 족쇄에 갇혀야만 하고, 비루한 환경을 주홍글씨처럼 여겨야 할까?

이런 점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지원을 극대화하고, 그것으로 활동이 성장했고, 확대되었다면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수많은 잠재적 가능성이 넘치는 예술가들을 위해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은 계속 매력적인 우산이 되어야 한다. 가능성 있는 예술의 새싹이 비바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단단한 우산. 그것이 바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인 것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Story

Chapter 1. 공동의 변화 – focus on companies

교하도서관 / 아모레퍼시픽 / ID병원 / 서울대공원 / 정읍시청 / 서울시설관리공단 / 평택평화센터 / 다음카카오

Chapter 2. 예술인의 부업 – focus on artists

유형진 / 함건수 / 이미화·노에리 / 정성화 / 서성훈 / 황지연 / 김재경 / 김동화·정효현 / 손현정 / 신하정 / 오정향 / 윤여진 / 정도영 / 정현진 / 정은주·정현 / 조하영 / 이지혜 / 유순희 / 함혜정

Chapter 3. 따로 또 함께 – focus on people

장윤하 / 박준혁 / 정은주 / 권세미 / 김동현 / 서상혁 / 유영소 / 이경배 / 이성미 / 장명주 / 강학수 / 김두안

Chapter 1.

공동의 변화 - focus on companies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공고를 본 후 기업, 기관, 지역 현장(이하 '기관')에서 많은 문의를 해왔습니다. 예술인들과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창조적인 프로젝트에 얼마나 목말라 했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욕과 예상만큼 만만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은 헤매기도 했고, 어떤 곳은 트러블도 있었습니다. 각 기관마다 특성에 맞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들 모두 최종적으로 가 닿고 싶은 곳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예술인들과 함께 멋진 일을 벌여보자는 것.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

여기, 그들의 최선이 자그마한 결실을 맺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하도서관 / 아모레퍼시픽 /
ID병원 / 서울대공원 / 정읍시청 /
서울시설관리공단 / 평택평화센터 /
다음카카오

너와 내가 만나는, 그곳

기관
교하도서관

예술인
김훈예 / 박현미 / 배나경 / 양현진 / 이지연

프로젝트
다수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햇살이 내려앉은 파주시의 어딘가, 교하도서관에 도착하자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라는 폴 발레리의 싯구가 노을진 하늘에 그려지는 듯 했다. 그런 곳이다. 문 앞에서 바람을 맞이하자 살아야겠구나, 잘 견뎌내야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곳.

도서관이라는 곳

가만히 생각해본다. 내가 도서관에 간다. 무엇부터 할까?

내가 빌려야 할 책을 검색해본다. 그 책이 있는 곳으로 간다. 자리를 잡고 책을 읽는다. 대출 코너로 가서 책을 빌린다. 그 다음엔 도서관을 나간다. 우리가 흔히 도서관에 가면 돌게 되는 루트다. 도서관의 사전적 정의는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따위의 자료를 모아 두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니까 저렇게 책을 보고 나가는 건 당연한 루트다.

그런데 도서관에는 도서들이 십진분류법에 따라 보관되어 있다.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등... 십진분류법에 따르면 없는 게 없다.

그래. 조금 과장하면 도서관은 세상이 담겨 있는 곳이다. 내가 도서관에 간다는 건, 하나의 세상에 들어가는 것. 내가 살아야 하는 그곳, 내가 살아내야 하는 그곳. 그러니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니렸다. 교하도서관의 한 사서가 한 말이다.

교하도서관 사서의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책 읽는 도시, 토론하는 파주'. 책 읽는 도시는 많이 봤어도 토론하는 도시는 본 적이 없다. 토론하는 도시라니, 도시 전체가 동참하기엔 너무 전문적이지 않나.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토론이 뭐 별 거 있나 싶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그게 토론인 거지.

교하도서관이 가닿고 싶은 곳이 바로 거기였다. 교하도서관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와 네가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친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랑도 하는 그런 장소.

예술이라는 것

도서관(圖書館)은 '그림 도', '글 서', '객사 관'이라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과 글이 모여 있는 장소라는 뜻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세상만사 그림과 글이 아닌 게 없다. 그림과 글만 있으면 이 세상 모두 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나 보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혼자두지 말라고, 이 세상에 말하고 싶어서.

교하 (交河) = 강과 강이 만나는 곳

교하라는 지역이 있다. 강과 강이 만난다고 해서 교하라는 이름이다. 받침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발음이 입에 감긴다. 교하는 이름처럼 정갈한 지역이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도서관을 만난다. 교하도서관. 그곳에서 우린 하나의 세상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예술을 만난다. 무엇이 되었든 '만난다'는 건 설레는 일이다.

교하도서관을 들어서면 커다란 홀을 만난다. 이 홀에는 넝쿨이 자라고 있다. 자세히 보니 넝쿨의 마디마디에는 어떤 책에 새겨진 아름다운 구절들이 적혀 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한 구절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길래 저 구절에 가슴을 내어줬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눈물짓게 만든 걸까?

홀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면 벽인지 문인지 모를 공간을 만난다. 자세히 보니 유리에 그려진 그림이다. 마치 에셔의 작품을 떠올리게 만드는 저 그림은 교하도서관의 통유리 구조를 잘 활용했다.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확장시켜줘 평면의 2차원이 입체의 3차원으로 바뀐다. 우리는 기적의 그림을 만날 수 있다.

교하도서관의 한편에선 누군가가 춤을 추고 있다. 맞다. 춤이다. 정적만이 흘러야 할 도서관에서 춤을 추고 있다. 한 여인이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면 맞은편의 사람이 따라한다. 투박한 몸짓이지만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그래, 춤이란 게 저렇게 즐거우면 되는 거지, 무엇이 더 필요할까.

또 한 편에선 뮤지컬 연습 중이다. 아이들과 함께 대사를 내뱉는다. 이 친구와 저 친구가 내뱉는 대사에 다른 친구들이 까르르 넘어간다.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진다. 저 웃음의 시간을 지나 완성될 뮤지컬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한 뮤지컬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건 엉뚱한 그림들이다. 한 사람의 실물 사이즈 그림에 그 사람의 일주일이 담겨 있다. 일주일은 곧 한 달, 한 달은 곧 1년, 1년은 곧 그 사람의 인생. 우리는 그림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본다.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너와 내가 만나는, 그곳

우리는 만나고, 만나고, 계속해서 만난다. 예술이 주는 파격이 책만 빌리는 도서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어낸 현장을 만난다. 그곳엔 교하도서관이 있다. 강과 강이 만나듯, 세상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예술이 만난다. 이 만남은 새로운 예술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

해서, 힘든 일상에 치여 자그마한 미소조차 짓지 못하던 누군가가 농담을 하게 되고, 걷는 것 외엔 몸을 움직이지 않던 누군가가 춤을 추게 되는, 사소하지만 소중한 기적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 이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다행스럽고, 그래서 교하도서관에 고맙다.

Into the company!

기관	예술인	프로젝트
아모레퍼시픽	강은진 / 공윤배 / 김미경 / 김혜나 / 변영후 / 서은정 / 신동훈 / 이은아 / 주정훈 / 황재욱 / 홍수정	다수

기업과 예술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최근 많이들 하는 시도다. 흔히 콜라보레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도. 이 콜라보레이션은 예술인의 입장에서 with the company 의 의미를 지닌다. 평소 작업실에서 자신들만의 작업을 하는 예술인이 기업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기업 아모레퍼시픽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멘토로 활약 중인 신상원 멘토의 권유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예술인 매칭 과정을 거쳐 총 11명의 예술인과 함께 하게 됐다. 일단 with the company 다. 아모레퍼시픽도 고민은 많았을 것이다. 이 많은 예술인들과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예술인과 만날 것인가.

아모레퍼시픽 담당자는 11명의 예술인들을 회사 안으로 불러들였다. 식사부터 주차, 프로젝트 공간 제공까지, 의식주 관련한 사항을 예술인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해줬다. 아모레퍼시픽의 배려로 예술인들은 작업실을 벗어나 회사로 나오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예술인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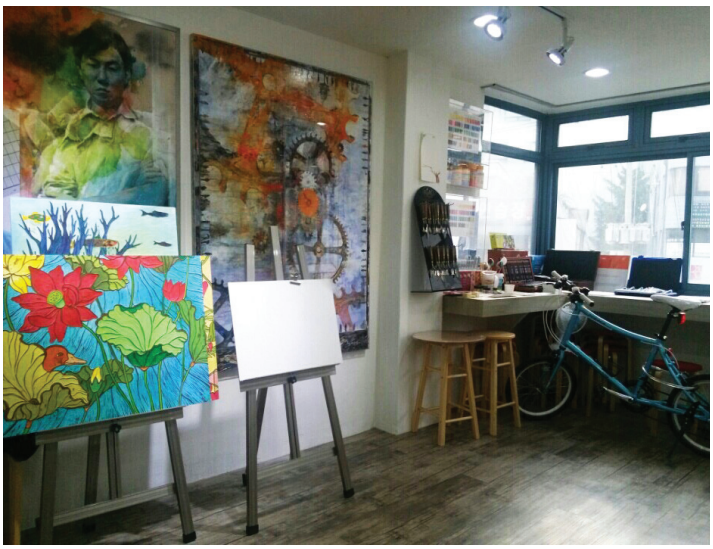
이때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졌다. 예술인이 아모레퍼시픽 사원들과 같은 선상에서 그들의 생활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 보게 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됐다. 조금 비약하자면 예술인들은 아모레퍼시픽 사원들의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업의 사원이 된 것이다. 기업 속에 들어오니 겉에서만 봤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원들이 필요한 것이나 사원들이 원하는 것들.

예술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담당자는 예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회사의 입장을 이야기해줬다. 예술인들의 의견과 회사의 입장은 온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들은 이미 아모레퍼시픽의 사원처럼 되어 버렸고, 예술인들 역시 회사의 입장을 무시할 이유는 없었다. 예술인들과 회사의 온도 차이는 지속적인 대화로 좁혀졌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를 했다. 크고 작은 마찰이 없지는 않았지만, 모든 문제는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되어갔다. 예술인들이 아모레퍼시픽의 진정한 사원이 된 순간이라 할 수도 있겠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총 6개의 프로젝트가 돌아가게 됐다. 서은정씨의 손으로 소통하기 프로젝트, 김혜나, 홍수정씨의 우수 사원 판화 프로젝트, 공윤배씨의 사가 편곡 프로젝트, 주정훈, 신동훈, 변영후씨의 직원 참여형 연극 프로젝트, 강은진, 김미경, 이은아씨의 스탬프 만들기 프로젝트, 황재욱씨의 북아트-죽은 공간 살리기 프로젝트. 모두 예술인들이 아모레퍼시픽 속으로 들어와 사람과 공간을 면밀히 지켜본 후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라 사원들이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서은정씨는 사내 어린이집에서 워킹맘들의 복지를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김혜나, 홍수정씨는 우수 사원들을 대상으로 판화 작품을 만들어 제공했다. 주정훈, 신동훈, 변영후씨는 직원들을 연극 무대에 올렸다. 모두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복지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은 사원들에게 복지를 선물해 준 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with the company 에 머물러 있는 예술과 기업의 콜라보레이션 패러다임을 into the company 로 전환한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예술과 기업이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기업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효과를 입증한 사례다. 기업은 예술이 자기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클라이언트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저 예술이 자유롭게 널뛸 수 있도록 판을 열어둔다. 기업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유기체를 움직이는 것이 기업 문화라는 무의식이라고 본다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과 예술은 무의식의 영역을 하나의 놀이판으로 다룬 셈이다. 결과적으로 기업 문화라는 무의식의 영역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기업도 변화할 수 있었다.

예술과 기업의 만남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 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아모레퍼시픽의 into the company 는 '예술 + 기업'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시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



예술인 파견지원 Story: Chapter 1.

본업 예술가의 부업 가이드

성형외과 + 예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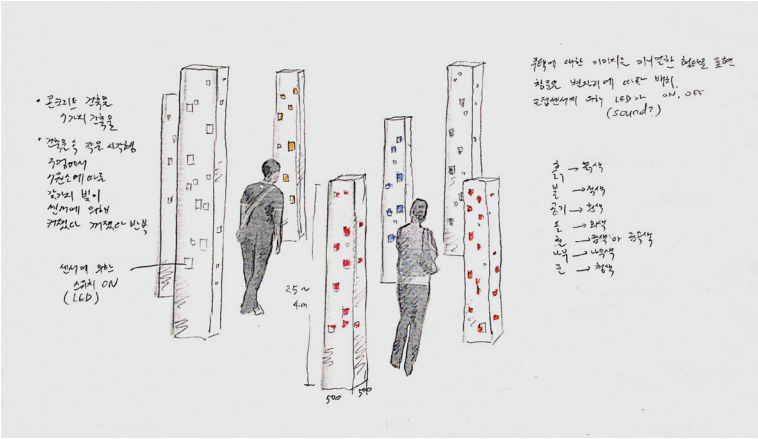
기관	예술인	프로젝트
ID병원	강은구 / 장인선 / 송지은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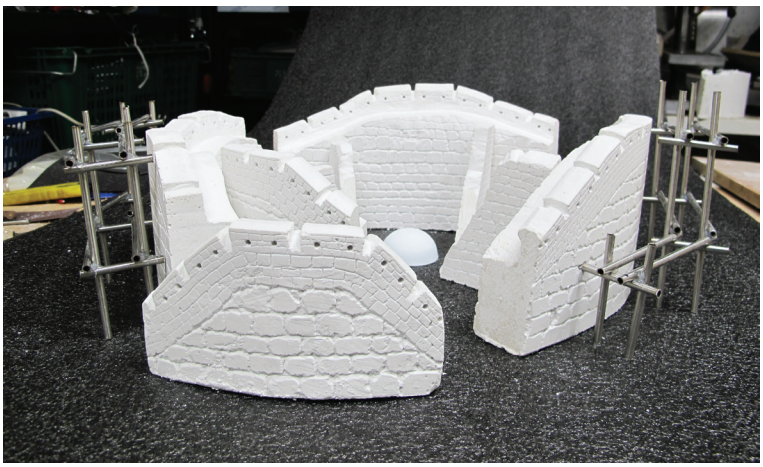
성형외과와 예술인의 콜라보레이션?

압구정동의 한복판, 세련된 건물의 ID병원이 있다. 성형외과인 터라 외관보다는 내면에 집중하는 예술인들이 이곳에 올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데 2014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ID병원이 참여했다. 그것도 3명의 예술인과 협업을 진행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성형외과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인과의 만남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함께 한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픈 마인드

ID병원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 건 신상원 멘토의 역할이 컸다. 신상원 멘토는 ID병원의 조직문화 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멘토로 참여하게 되면서 ID병원에도 사업의 참여를 제안한 것이다. 게다가 ID병원의 대표인 박상훈 원장이 워낙 오픈 마인드여서 기왕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참여하는 것이라면 작품 전시 몇 개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박상훈 원장은 허남일 과장에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프로젝트의 권한을 모두 일임하여 추진을 명했다. ID병원이 예술인들과 본격적인 조우를 하게 된 시발점이었다.





3명의 예술인들과의 만남

허남일 과장은 사업 초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ID병원 안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예술인들과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술인들이라고 하니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담당자들과는 여러 면에서 판이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술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조차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발전시켜도 되는 사업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생각을 고쳤다. 기왕 하는 거 상상을 자유롭게 펼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로 한 것이다.

ID HOSPITAL

id
ID HOSPITAL
아이디병원
www.idhospital.com

3명의 예술인과 많은 얘길 나눴다. 예술인들에게 ID병원의 소스를 최대한 건네고 예술인들은 수많은 소스를 검토하면서 기획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허남일 과장은 예술인들을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과 일을 한다면 서로 간에 공유된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어 그 프로세스에 맞춰 상대방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제안할 건 제안하면 되는데, 예술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총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최대한 예술인들을 믿고 기다리는 시기로 잡았다. 2개월 동안은 예술인들의 작업물에 대해 일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저 예술인들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예술인들은 그 믿음에 부응했다.

예술인들 중 누군가는 ID병원 신사옥의 공사장 펜스에 아트웍을 하기로 하고 누군가는 대형 설치물 작업을 하기로 하고 누군가는 ID병원 워크숍에도 참석하면서 병원 내부 공간을 바꿔 나갔다. 그러나 스케일이 커질수록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신사옥의 공사장 펜스 아트웍은 강남 구청에서의 허가를 받지 못해 결국 취소되었고, 대형 설치물 작업도 내부 방침의 변경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기획을 바꿔 ID병원 본원의 계단에 아트웍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프로젝트가 벽에 부딪히는 건 당연한 일, 그 때 그 때 ID병원측과 예술인들은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유연하게 대처해나간 것이다. 병원 내부의 공간을 큐레이팅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다. 병원에 들어오면 앞면이 안 보이는 모니터 4대에서 대학생들이 만든 UCC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데, ID병원의 가치관인 공감, 혁신, 신뢰, 탁월 4가지와 관련된 8분짜리 스케치 영상 4개로 교체해 상영하게 됐다. 또한 ID병원 내부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참여 예술인의 작품 중 ID병원과 관련된 작품 25개로 교체를 한다든지, 병원 내부의 텔레비전을 떼어내고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병원 내부 공간 큐레이팅을 통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내년에도 이어서

"짧은 기간동안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되게 즐겁게 해주고 계셔서 감사해요."

예술인 프로젝트를 총 담당했던 허남일 과장이 예술인들에게 하는 말이다. ID병원은 신사옥을 짓는 중인데 이 건물에 대한 기획도 3명의 예술인들과 함께 논의 중이다. 압구정동 본원에 시행한 계단 프로젝트는 내년에 신사옥에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예술인들과 추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인들의 직업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ID병원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게다가 ID병원은 여태껏 다방면의 제작 라인이 있었지만 예술인들과의 라인은 없었다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과의 연결 고리가 생겨 기쁘다고 말한다. ID갤러리를 만드는 것도 고려 중이며, 지난 몇 개월동안 예술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니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이 도출되어 방향성을 새로이 정립하게 되었다고도 말한다. 항상 새로운 시도를 통해 고객 중심의 병원을 만들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었는데, 예술인들과의 조우로 고객 뿐 아니라 직원들도 행복한 병원이 된 것 같다는 허남일 과장의 말에서 ID병원과 예술인의 밝은 미래를 그려본다. ^^/

서울대공원, 예술을 품다

기관	예술인	프로젝트
서울대공원	김대현 / 지혜라 / 하형주	다수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서울대공원에는 348여종 2975여마리의 동물들이 산다. 해마다 400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서울대공원을 찾는다. 어린 시절 부모의 손을 잡고 서울대공원을 방문했던 이들이 성인이 되어 연인과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다시 공원을 찾고 있다. 1984년 5월에 개원하여 어느덧 서른 해를 보낸 이 오래된 공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고유명사가 될 만큼 사람들의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대공원으로 가게 된 세 명의 예술가들은 고민에 빠졌다. 문학평론가이자 소설가인 김대현 씨, 그림책을 만드는 지혜라 씨, 사진을 찍는 하형주 씨까지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예술인들이 서울대공원이라는 거대하고 명확한 공간 앞에서 비슷한 낭패감을 느낀 것이다. 그들에게 찾아온 고민과 낭패감은 서울대공원의 뚜렷한 정체성에서 기인했다. 살아 숨쉬는 동물들과 바람을 가르는 놀이기구 앞에 글과 그림, 그리고 사진은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을 듯 보였다. 서울대공원의 외피는 그만큼 단단했다.

세 명의 예술인들이 먼저 한 일은 관찰이었다. 그들은 서울대공원의 중심으로 곧장 파고드는 대신 그 둘레를 거닐며 오래도록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발생했다. 지혜라 씨는 애초에 서울대공원의 야생화를 그리는 게 목표였다. 하형주 씨는 '꿈을 짓는 손'이라는 이름으로 대공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사진으로 찍자고 계획했다. 두 프로젝트 모두 방향 수정이 불가피했다. 그 사이 계절이 바뀌었다. 서울대공원의 동물들도 한 마디씩 더 자랐다. 그 중에는 담비도 있었다.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예술을

귀엽고 우아한 외모와 달리 날렵한 포식자인 담비는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이다. 갈색 털과 가죽의 용도가 다양해 옛날부터 남획의 대상이 되었다. 서울대공원에 있는 세 마리의 담비는 한국에 남은 유일한 담비들이다. 하형주 씨는 이 담비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그가 찍은 담비 사진을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된 서울대공원의 안영노 원장이 대뜸 동물 사진을 찍어 보라고 권유했다.

"담비의 앞모습을 본 건 처음이네요. 동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 앞에 전시하는 것도 좋겠는데요?"

하형주 씨는 안 원장의 말에 영감을 받았다. 별 다른 생각 없이 찍은 담비 사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 후 하형주 씨는 카메라를 들고 동물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동물들과 같이 호흡했다. 꾸벅꾸벅 졸던 동물이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면 하형주 씨도 바쁘게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가 담아 낸 동물들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몸을 웅크리고 자거나 바위 뒤에서 엉덩이만 내놓거나 물속에서 자맥질만 하던 호랑이, 삵, 바다표범 등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정면으로 마주한 동물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풍부했다. '꿈꾸는 동물'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동물과 관람객을 가로막고 있던 우리를 허물었다. 쇠창살이 사라지자 인간과 동물의 경계도 사라졌다. 서울대공원과 예술의 경계도 사라졌다. 하형주 작가가 내내 고민했던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 역시 사라졌다.

지혜라 씨는 자신의 작품을 서울대공원에 전시하는 방식으로 길을 찾았다. 야생화를 그리겠다는 계획이 전시로까지 확장되는 데는 서울대공원 조경과의 이운재 팀장의 역할이 컸다. 전시해 볼 생각 없느냐는 이 팀장의 질문에 지혜라 씨가 곧장 반응을 한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그려졌다. 꽃들로 가득한 테마가든에 그림을 '심어' 놓는 것.

서울대공원의 테마가든은 꽃의 천국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그에 걸맞은 축제가 열린다. 그 중에서도 가을은 테마가든이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 때이다. 국화와 장미 축제가 열리는 것도 바로 이때쯤이다. 지혜라 씨는 9월 27일의 축제에 맞춰 동료 한 명과 함께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해서 아홉 점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걱정을 했다. 드넓은 테마가든에 비해 그림 아홉 점은 왠지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다. 막상 테마가든의 곳곳에 설치를 하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그림 아홉 점만으로도 테마가든 전체의 분위기가 몰라보게 달라진 것이다.

지혜라 씨는 자신의 작품이 테마가든에 녹아 들어 간 그 순간, 서울대공원이라는 단단한 외피를 뚫고 예술이 싹을 틔운 그 최초의 순간을 아직 잊지 못한다. 특히 그림을 대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자 기쁨이었다. 아이들은 그림 앞에 서서 거기에 적힌 글을 읽고 사진을 찍었다. 그들에게는 꽃과 그림이 다르지 않았다. 꽃도 예술이고 그림도 예술이었다.

“한달 동안 준비하면서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힘들었는데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자신의 작품을 두고 누군가와 직접 교감했던 것은 지혜라 씨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녀는 이번의 프로젝트를 쭉 이어가려고 계획 중이다. 서울대공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혜라 씨의 작품이 테마가든만이 아니라 서울대공원 곳곳에 설치될 날이 머지않아 찾아 올지도 모른다.

두 명의 예술인이 각각 사진과 그림이라는 뚜렷한 결과물로 서울대공원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다면 김대현 씨는 방법을 조금 달리했다. 그는 문학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때로는 정처 없이 서울대공원 이곳 저곳을 거닐기도 했다. 문학이 닿을 수 있는 지점은 미술과 사진과는 달랐다.

“문학이라는 게 조형예술이나 설치미술처럼 공간을 가시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은 물리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서사를 보여주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김대현 씨는 ‘서울대공원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서울대공원을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가는 공간으로 해석했다. 김대현 씨의 해석에 따르면 관람객들은 단순히 동물을 보거나 놀이기구를 타러 서울대공원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의식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관람 행위 만으로 비일상이라는 경계로 들어오는 것이다. 다분히 인문학적인 접근이다. 그는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서울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비평적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을 해 나갔다. 서울대공원 곳곳을 누비며 그는 썼다. 그런 작업들을 통해 얻은 느낌과 사유를 문학이라는 무기로 풀어냈고, 현재는 출판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른 예술인들이 서울대공원의 내부에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을 때 김대현 씨는 서울대공원 그 자체의 의미를 예술의 힘을 빌어 재해석 한 것이다.

서울대공원은 얼마나 변했을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마무리 된 지금, 세 명의 예술인들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진다. 서울대공원이라는 공간, 이 거대하고 단단하며 명확한 하나의 세계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바꿨을까? 정답은 없다. 서울대공원은 여전히 서울대공원이고, 관람객들은 그저 동물을 보고 놀이기구를 타고 사진을 찍기 위해 그곳을 찾는다. 동물들 사진이 전시되고 테마가든에 그림이 설치되고 서울대공원의 의미를 재해석한 책이 출간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서울대공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대신에 그 성과를 내기 위해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노력과 그 노력 뒤에 남은 수많은 시행착오들은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다. 예술인들이 집중한 것도 바로 그 점이었다. 서울대공원을 단 한 번의 시도로 예술의 향취가 무성한 곳으로 만들기 보다는 그 거대한 공간 안에 예술의 씨앗을 심는 일,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서울대공원은 예술을 품은 것이다.

물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참여했던 예술인들에게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예술인으로서는 드물게 협업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예술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었다.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넘기 위해 발버둥 치던 그들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허무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세 명의 예술인들은 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프로젝트를 하지 못했으리라고 입을 모은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끝났을 때, 서울대공원에도 겨울이 찾아왔다. 모든 게 얼어붙었지만 예술인들이 남긴 결과물만은 아직도 따뜻하다. 서울대공원도 성장했고 예술인들도 성장했다. ^^/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는

기관
정읍시청

예술인
박대용 / 이민정

프로젝트
정읍 사생 프로그램

정읍에 도착했다. 도시라고 하기엔 낙후되어 보였고, 농촌이라고 하기엔 도시의 모습이 어설프게 서려 있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고 있는 어디쯤, 정읍이 있는 것 같았다.

정읍의 시내라고 할만한 곳, 은행 앞에 서 있자 거리를 지나가는 많은 택시들이 보였다. 대부분이 빈 택시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철 지난 브랜드의 옷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커피숍이나 식당이 있긴 했으나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볼법 한 프랜차이즈 가게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노트북 작업을 조금 해야 했었는데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없어 보였다. 머잖아 정읍시청의 직원들이 도착했다. 나와 서울에서 온 일행들을 데리고 시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시내라고는 했지만 사람들로 붐비기보다는 비어있는 건물이 많았다. 처음부터 건물을 비워두기 위해 지은 것은 아닐 것이다. 모든 건물들에는 사람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역력했다. 서울에는 사람들이 발 디딜 곳 없어 난리인데, 정읍에는 텅 비어버린 공간이 너무나 많았다. 공간에도 삶과 죽음이 있다면 정읍 시내의 대부분은 죽은 공간처럼 여겨졌다.

시청의 직원들과 식사를 하게 됐다. 직원들은 박대용, 이민정 두 예술인을 통해 김동수 가옥, 송참봉, 정읍천, 옥정호, 천단 마을, 태인동헌 등을 회화로 남기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정읍에는 우리나라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자연 혹은 유산이 많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아쉽다는 마음도 내비쳤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시청의 직원들은 더욱 솔직한 마음들을 보였다. 정읍에는 개발이 가능한 훌륭한 문화, 예술 자원들이 많은데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란 것을 통해 예술인과 함께 무언가를 해보니 돌파구가 조금은 보이는 것 같다고, 내년에는 도시 발전 계획을 문화, 예술에 기반을 둔 계획들로 채울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더욱 규모를 확장해 많은 예술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칠흙 같은 어둠이 내려 앉은 밤, 혼자 정읍의 거리를 돌아다녔다. 정읍의 밤은 빛을 찾기 힘들었다.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정읍 시청 직원들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예술이란 것이 한 도시를 되살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어떤 공간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번성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예술이어야 할까. 만약 예술이 그러한 힘이 있다면, 점점 죽어가는 나의 어머니도 되살릴 수 있는 걸까. 문득 시청 직원들의 열망과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야 나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다음 날, 정읍 시청에 갔다. 정읍의 미래에 대해 회의를 했다. 문화, 예술이 키워드였다. 시청 직원들은 문화, 예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한 마디라도 더 듣고 정읍을 번성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애를 썼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가지에 골몰히 매달리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시청 직원들의 안내로 시청 안을 둘러 봤다. 한 그림 앞에 멈춰 섰다. 다같이 그림을 구경하고 이동하려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새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정읍의 문화 유산을 박대용, 이민정 예술인이 그림으로 남긴 작품이었다. 정읍을 사람의 이름이라 할 수 있다면, 정읍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작품에 그대로 담긴 것 같았다. 나를 조금 더 봐달라는,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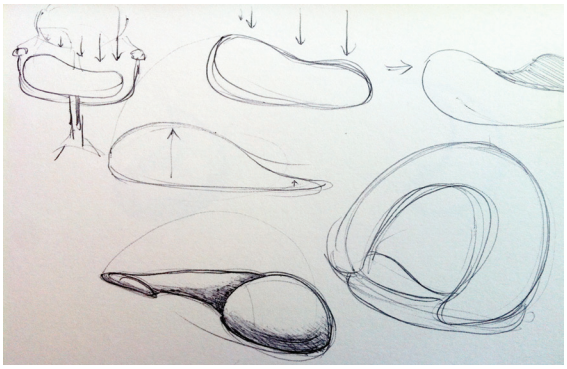
버스를 타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다. 정읍과는 확실히 달랐다. 사람들이 넘쳐났다. 이곳에 있는 사람이든, 정읍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소중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내 주위의 소중한 존재들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어디선가는 그걸 멈추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나에게도 무언가를 되살릴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게 예술이든 무엇이든 있다면 끄집어 내고 싶다. 요양원에서 바스러져가는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

치유하는 예술, 건강한 예술

기관
서울시설관리공단

예술인
곽이브 / 박소영

프로젝트
다수



미술가와 무용가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미술가인 곽이브 씨와 무용가인 박소영 씨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시설관리공단과 매칭이 되었다. 어색하기는 두 명의 예술가도, 그리고 서울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였다. 매일매일 투철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술은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반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에게 조직 사회란 망망대해의 섬처럼 모호했다. 두 사람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멘토의 조언을 통해 조금씩 해답을 찾아나갔다. 그 결과 곽이브 씨와 박소영 씨는 소외된 곳에 집중하게 되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비교적 업무 강도가 높고 공이 덜 드러나는 곳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그것은 평소 예술에 대해 '삶을 반영하지 않는 예술은 자폐적'이라고 생각했던 곽이브 씨의 예술관과도, '일상이 곧 예술'이라고 주장하는 박소영 씨의 생각과도 부합되는 선택이었다.

곽이브 씨는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원들을 위해 자세 교정용 쿠션을 만들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원들은 운전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자 늘 고정된 자세로 돈을 받아야 하는 육체 노동자이기도 하다. 특히 한쪽으로 쏠린 자세 탓에 10년 이상 일을 한 사람은 만성 요통이나 디스크 등의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곽이브 씨는 처음에 의자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쿠션으로 바꾸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적잖이 놀랐다. 예술을 일상의 근무에 적용시킨다는 발상부터 신기했는데 그 결과물이 징수원들에게 특화된 자세 교정용 쿠션이었으니 일반인들에게는 신기할 따름이었다.

박소영 씨 역시 놀라움을 선사했다. 그녀는 애초에 직장인들을 위한 플래시몹을 계획했다. 함께 춤추면서 관계의 벽을 허물려는 게 박소영 씨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변수가 많았다. 다같이 모여 연습할 시간도 없었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힘들었다. 고민 끝에 생각해 낸 것이 '찾아가는 건강 교실'이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내의 각 부서로 찾아가 스트레칭 동작을 가르쳐 주고 함께 운동도 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자주 찾았다. 늘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무용가와 관객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예술은 일상으로 녹아 들었고 사람들은 연신 신기하다는 말을 하며 동작들을 따라 했다.

이번 사업이 있기 전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예술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직적인 조직 사회였기에 그 안에 예술이라는 말랑말랑한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두 명의 예술가는 예술의 불모지나 다름 없던 곳에서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을 구현해 보였다. 미술가가 만든 쿠션, 무용가가 시작한 건강 교실은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사람들은 예술의 미적인 기능뿐 아니라 치유로서의 예술,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서의 예술에도 눈을 뜨게 되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끝이 났지만 곽이브 씨와 박소영 씨는 욕심이 생겼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활동을 조금 더 넓혀가고 싶다는 뜻이다. 두 사람은 일상과 밀착할 수 있는 예술을 찾아낸 것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역시 예술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예술을 통한 치유와 치료가 서울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어떻게 더 발전하고 계속될지 흥미롭게 지켜 볼 일이다.

밝은 달구름 흐뭇한 발걸음

기관
평택평화센터

예술인
이윤엽

프로젝트
대추리
평화-예술-생태 마을
만들기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은 서로를 잘 안다. 사소한 습관은 물론 과장하자면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아는 사이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흔한 말로 그들을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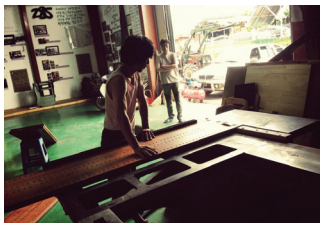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대추리에 오게 된 이윤엽 씨는 본 사업 이전에 8년 여 간의 인연이 있었다. 대추리 사람들의 아픔과 행복, 그들의 고민과 희망에 대해 같이 호흡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생소한 지역에 내려가 활동을 하는 다른 예술인들과는 조금 다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추억의 일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오게 된 대추리는, 이전의 대추리와는 사뭇 다른 의미였을 것이다.

대추리 마을은 용산기지가 이전되면서 주민들이 노와리라는 곳에 정착, 고향을 잊지 말자는 마음들이 모여 생긴 곳이다. 대추리 주민들이 한 해 동안 종이 봉투를 접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돈이 모였다. 노인회에서의 지원도 있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았다. 그리고 주민 역사관이 만들어졌다. 그것이 3년 전의 일. 이제 새 대추리를 꾸며보자는 흐름이 생겨났고, 이윤엽 씨는 그 물결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라는 파도를 타고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윤엽 씨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예술가로서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이 아름다웠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윤엽 씨는 미술과 판화, 설치 등을 하는 작가다. 대추리 마을과 호흡하기 위해 평택평화센터와 함께 그의 역량으로 마을을 꾸미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외부로 보이는 것보다 우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작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깎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만들고 예술하고



마을 안에는 역사관이 세워졌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보내온 대추리 마을 관련 작품들과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2층에는 대추리 마을과 미군부대를 가르고 주민들을 자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든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비감한 느낌마저 준다.

그리고 평화센터에는 주민들을 위해 목공실을 만들었다. 평생 손을 놀리며 살아온 노인들은 뭔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자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만든 물건이 돈이 된다는 것보다도,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행복해했다. 목공실이 열렸다는 소식에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그들의 발길에 안도했다.

이윤엽 씨는 목공실을 곧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작업실로도 사용했다. 주민들이 드나드는 목공실이 예술을 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 주민들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거칠고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담겨 있으니 예술품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작업장에서 주민들이 만들어낸 조형물이나 간판들은 대추리를 꾸미게 되었다. 그러니 이곳은 예술 속에 녹아있는 진정한 삶을 일구는 공간이다.

그 마을의 아름다움이란

대추리 마을의 평화센터는 지금도 더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 이윤엽 씨도 마치 제 마을처럼, 제 이웃처럼 항상 발걸음하며 이를 돕는다. 평화센터에서는 이런 노력 끝에 조금씩 사업이 체계가 잡히고 주민들도 힘을 내기 시작했다는 말을 전했다. 아마 이렇게 시작된 긍정적인 바람은 대추리에 '진정한 평화'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대추리 역사관의 이름은 '달구름'이다. 달구름은 흘러가면서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세월을 뜻한다. 힘차게 살며 또 살아왔던 흔적을 남기며, 대추리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마을'로 자리매김하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

외로바면 안트레 들어왕, 엿 먹엉 갑서!

기관
다음카카오

예술인
조원희

프로젝트
엿 바꿔 먹장

멀리서 볼 때야 좋았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본사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처음 다음이 제주도로 이전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2003년 정도라고 해요. 1년에 한번씩 팀 별로 돌아가며 여는 조찬 회의에서 신입사원 한 명이 3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신입사원은 인천에서 출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8시 회의에 오려다가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늦었다고 했죠. 그때 대표였던 이재웅 사장님이 생각했답니다. 만약 다음이 환경 좋은 작은 도시로 이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것이 두렵긴 했지만, 사람들은 결단을 내려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작했고 마침내 본사가 설립되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 푸른 바다와 감귤색 들판이 넘실거릴 듯한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잖아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를 것 같고요. 처음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는,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공해와 사람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벗어난다는 것도 큰 메리트였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향수병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사실 섬에서 할 일이 뭐가 그리 있겠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을 도시에 떨어뜨려놓고 제대로 된 문화생활도 즐기지 못하면서 혼자 지내다 보니 갈수록 심심하고 외로워졌죠.

갑자기 찾아온 그녀가 일으킨 독특한 파문

그렇게 외로워하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퇴근 이후에는 별다르게 할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무료함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동호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진 동아리, 목공 동아리, 윈드서핑 동아리 같은 것에 기웃거려 보았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회사 사람들로 이루어진 동아리. 음. 아무리 자유로운 분위기라 해도 직급이나 나이 같은 것이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잖습니까? 가끔은 동호회가 회사 일의 연상선이 된 것 같다며 불평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예술인 한 분이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조원희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분은 제주도에서 이런저런 미술 작품을 만들면서 살고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재주도좋아'라는 예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제주도 사람들과 사회 안에서 보다 긍정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말했지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예술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만난 것도 처음이었고, 창작을 하는 사람이 기업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우리들은 그저 신기한 사람을 보듯이 멀찍이서 멀뚱멀뚱 그녀를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원희 씨는 아무렇지 않게 회사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리에도 여기저기 들락거리며 점점 사람들과 친해졌지요. 그저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누어도, 마음이 조금씩 즐거워지곤 했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무거웠던 외로움 대신 달콤한 엿이라도 한 입?

그 즈음에 회사에는 큰 격동을 겪었습니다. 카카오와의 합병이 이루어졌고, 회사 내부는 어지럽고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사람들의 표정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조원희 씨는 갑자기 구내식당에 조그마한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엿이에요. 엿 좀 드셔보세요."

"공짜예요?"

"에이, 공짜는 아니죠. 필요 없는 물건을 주셔도 좋고, 커피라도 한 잔 내려주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셔도 돼요. 무겁고 필요 없는 것을 엿과 바꿔 드시라는 뜻이에요."

조원희 씨는 이 장터를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엿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딱딱한 일터의 분위기가 부드러운 엿처럼 녹아 내렸고, 동료들은 가볍게 단 것을 나누며 미소를 건넸습니다. 별 것 아닌 작은 것이었지만 그 한 입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군요. 우리는 한번 더 웃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다음 장터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분명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지요. 놀라웠습니다.

회사 동료들 중 또래인 사람들은 조원희 씨와 친구가 되어 그녀의 작업공간까지 놀러 가곤 했습니다. 게다가 중 한 명은 그런 조원희 씨의 발랄함에 호감을 갖더니, 끝내는 연애까지 시작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뉴스를 전하더군요! 항상 심심해하고 외로워했던 친구였기에 마음껏 축하해주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것이 참으로 작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다음 번에 또 다른 파견예술인이 오게 된다면, 이번에도 아리따운 여성이 오시면 좋겠다는 우스운 기대도 한번 품어보렵니다. ^^/

Chapter 2.

예술인의 부업 - focus on artists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당연히 예술인의 복지 향상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여타 복지 사업과는 달리 예술인이 새로운 부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부업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모인 예술인들은 이러한 사업의 정체성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몸소 익혀 나갔고, 오히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세팅한 판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술인들은 저마다의 결실을 맺었고, 내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더 나은 삶을 도모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은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유형진 / 함건수 / 이미화·노에리 /
정성화 / 서성훈 / 황지연 / 김재경 /
김동화·정효현 / 손현정 / 신하정 /
오정향 / 윤여진 / 정도영 / 정현진 /
정은주·정현 / 조하영 / 이지혜 /
유순희 / 함혜정

너와 내가 만나는, 그곳

예술인
유형진

매칭기관
고양아람누리도서관

프로젝트
유형진 시인의 순정낭독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진심은 통한다.

너무 흔한 말이라구요? 아니면 이미 익숙해서 전혀 와 닿지 않으신다구요?

그런데 한 번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당신, 진심으로 다가간 마지막 기억이 언제인가요? 혹은 상대의 진심과 마주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행복하게도 저는 매 달 누군가의 진심과 마주합니다. 더 기쁜 것은 그 자리에 저만 홀로 있지 않고 그 진심을 나누고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순정낭독.

제가 누군가의 진심을 나누는 시간의 이름입니다.

순정낭독은 말 그대로 순정하게 한 작가의 작품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 한 권에는 그 작가의 인생을 건 진심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후르륵 눈으로 읽고 넘어가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소리를 내어 한 자 한 자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그 작가의 마음에 동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낭독은 그 작가의 작품의 호흡과 문장의 가치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많이 사라진데다가 낭독이라는 것 자체가 신간 홍보 등의 목적이 있는 행사로 변질되기도 했지만, 낭독 자체는 작품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원래 개인적으로도 낭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낭독 카페라도 차려볼까 하던 중, 지인을 통해 귀가 번쩍 뜨이는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원 받아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만나게 되었고 제 프로젝트를 함께 해 줄 곳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낭독회가 '순정'하게 '낭독'만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언제든 방문 가능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이 떠오르더군요, 운 좋게 근처의 고양아람누리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호감을 주셨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순정낭독은 앞에서 말 했던 것처럼 다른 퍼포먼스가 없는 순수 낭독 행사입니다. 한 달에 두 번 낭독회를 진행하되, 첫 번째 낭독회는 독자들만 참여하여 해당 작가의 작품을 낭독합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낭독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그것을 녹음하여 '순정낭독'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팟빵 팟캐스트에 업로드 하여 낭독회가 끝난 후에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낭독회에서 첫 번째 낭독회의 독자들이 낭독한 그 달에 선정된 작가의 문학작품만을 녹음한 팟캐스트를 들은 해당 작가도 함께 참여하여 독자들과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낭독회에 참여한 독자들은 두 번째 낭독회에도 참여하여 작가의 육성으로 작가의 낭독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작품을 쓴 작가와 시인들의 육성으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은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독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작가의 작품과 작가의 세계를 더 가깝고 구체적으로 다가 갈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만나기 전, 저는 그저 집에서 시를 쓰며 혼자 사색하고 고민하는 문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소리 내어 읽는 낭독을 좋아했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과 그 시간을 나누기를 원했던 소박한 꿈을 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 저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고 보다 넓은 영역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평생 만날 일이 없었던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관계가 넓어진 것은 물론이고 글만 쓰면 된다는 생각 역시 사라졌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할 일이 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제가 가진 재능과 순정낭독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것을 들은 곳으로부터 '순정낭독' 번외 편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고, 다양한 곳으로부터 강연, 낭독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칭 된 아람누리도서관으로부터도 '순정낭독'에 대한 호감으로 내년에는 도서관 사업으로 정례화 하여 추진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도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 생각하던 소박한 꿈이 어딘가에 주기적으로 펼쳐지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곰곰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왜 저는 이때까지 제가 가진 예술적인 시각과 재능에 한계를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문인이라는 타이틀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았는데 말입니다. 혼자 방에 앉아 글 쓰는 것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지난 시간이 조금은 아깝기도 합니다.

저는 이 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문을 하나 연 느낌입니다. 문인인 제가 세상에 던질 이야기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즐겁습니다. 세상과 조금씩 더 진심으로 소통하는 이 느낌이 말입니다. ^^/

독학자
그 사람의 취사법
뱀파이어의 책상
한 뼘의 햇빛
뱀파이어의 서
뱀파이어 인 도쿄
뱀파이어 사냥
뱀파이어 전설의 진실
뱀파이어 전설의 진실
뱀파이어 전설의 진실

다시 태어나다, 예술

예술인
함건수

매칭기관
팽성예술창작센터

프로젝트
우리사랑 요리 이야기와 함께 춤을

방황

그는 배가 고팠다. 예술을 한답시고 일본에 다녀왔지만 되는 일이 없었다.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직장 생활을 하게 됐다. 하지만 배가 고픈 건 여전했다. 돈이 조금 있다해서 굶주린 배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배가 고픈 건 그의 안에 있던 무언가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연극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생활에 쫓기는 나날을 보내면서 이미 많은 것을 잊어버린 상태였다. 일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방안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나이는 50 이라는 숫자를 다 채워 가는데 이상하게 다른 건 사라져만 갔다. 나이만 들 뿐, 점점 텅 빈 인간이 되는 것 같았다.

그는 이대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방안에서도 할 수 있는 연극이란 희곡을 쓰는 일 뿐이었다. 그는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묵혀놨던 탓일까, 쉬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내 안의 예술은 이미 죽어버린 것 아닐까,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이건 또 무슨 사업인가 싶었다. 하다하다 예술인을 어딘가에 파견을 보내다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싶었다. 예술은 그런 게 아니었다. 하지만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준다니 솔깃했다. 골방 생활이 지긋지긋했던 그는 일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지원했다.

그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파견 기획서에 써냈다. 평소 가족과 아이들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별 어려움 없이 기획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의 기획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퍼포먼스 프로그램이라지만 실은 그의 퍼포먼스에만 집중된 이기적인 기획이라는 것이었다.

그에게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은 이 사업에서 '멘토'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 사업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며 예술인과 지역, 기업/기관들 사이의 브릿지(bridge) 같은 역할을 했다. 사업에 참여한 멘토는 총 14명으로 예술 각 분야의 베테랑들이 선정되었다. 이 중 그에게 조언을 한 멘토는 박이창식 멘토였다. 박이창식 멘토는 그에게 지역 주민들과 유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추가해 지역성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이뤄질 수 있는 장을 열고, 그 장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지역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기획해볼 것을 권했다.

얼마 후, 그는 멘토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다른 수백 명의 예술인들과 함께 1박2일 워크숍을 떠났다. 그는 거기서 또 한 번 혼란에 휩싸였다. 멘토의 말을 듣고 기획안을 수정해봤는데, 동료 예술인들은 수정 전의 기획안이 더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밤새 멘토와 동료들과 함께 떠들었다. 어떨 땐 토론이었고, 어떨 땐 넋두리, 어떨 땐 수다였다. 그 자리에서만큼은 나이와 신분 관계없이 자신의 기획에 대해, 예술에 대해 쉴 새 없이 주고 받았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1박2일의 끄트머리였다.

그는 워크숍을 통해 많은 것이 정리됐다. 저마다의 열정을 지닌 예술인들을 보면서 가슴 속에 잊고 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이제 그는 지역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했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어디 그리 쉽게 떠오르는 것이던가. 한참을 머리를 쥐어뜯고 있던 찰나, 그는 한국무용가 박성실 예술인을 만나게 됐다. 그녀는 그가 나아가고자 했던 기획의 정수였다. 그는 그제서야 비로소 가족이 다함께 참여해 음식을 만들고 예술 퍼포먼스도 즐기는'우랑사랑 요리 이야기와 함께 춤을'이라는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예술은 우리 가까이에

그의 프로젝트 '우랑사랑 요리 이야기와 함께 춤을'에는 10명 남짓한 가족들이 참여했다. 기대보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에 임했다. 프로젝트를 함께 한 박성실 예술인은 한국 무용의 노하우를 살려 각종 퍼포먼스를 담당했고 그는 프로그램의 진행과 연극 대본 리딩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주민 가족들은 요리를 하면서 퍼포먼스, 연극을 따라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족들은 평소 만나던 가족 구성원들을 새로이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을 얻을 수 있었다. 나아가서는 가족들끼리의, 즉 지역 주민들끼리도 새로이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을 자연히 체득하게 되어 보다 확장된 지역성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됐다.

그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든 많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방안에서 할 수 있던 것이 아무 것도 없었던, 모든 것이 텅 비어버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절대 지금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의 열정과 절박함 때문이었을까, 점점 프로젝트 참여자가 늘어났다. 사업의 후반부에 다다라선 40여명에 가까운 가족들이 참여했다. 재밌다고, 재밌다고, 그렇게 재밌다고 입소문이 퍼져 나간 덕이다. 그가 파견된 기관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커지자 조리 기구도 추가로 설치해줬다. 초반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게 된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예술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일상 속에 스며 들어 갈 때 더욱 빛을 발한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술 활동이 아닐까', 라고.

다시 태어나다, 예술

그는 말한다. 잊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다. 지난 시절 꿈꿔왔던 무언가가 있었다. 그 무언가를 담아 애타게 예술을 향해 편지를 썼었다. 돌아오지 않는 러브레터처럼 예술에 대한 사랑이 무모하리만치 가득 담겨 있었다. 그걸 잊고 있었다. 이제는 기억난다. 지금의 나를 만든 그 시절의 나는 무엇을 꿈꿨었는지. 그 편지엔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예술이 곧 사람이다. 내 안의 예술은 그렇게 다시 태어났다. ^^/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전해 보세요

마지막 날, 이거 입을란다

예술인
이미화 · 노에리

매칭기관
서울시설관리공단

프로젝트
청계 5가 지하상가 '나의 마무리 옷'

이제는 색깔조차 가물가물 기억나지 않는
그때, 국민학교 소풍 전 날, 꽃 같은 내 엄니가 지어줬던
사뿐한 한복.
그래. 내는 그 한복 같은 옷 지어
마지막에 입고 갈란다.

80평생, 하늘 한 번 올려다 볼 시간 없이
시간을 잡아놓듯 수를 놓았고
팔자를 탓하며 뜨개질을 했다.
그렇게 세월 다 보내니 여기, 청계5가 지하상가더라.
같이 늙어가는 인생끼리 옹기종기 모여
느리게 흐르는 시,분,초 사이사이
색색의 실을 끼워 넣는 것이 다였던 내 마지막 삶 언저리에
불쑥, 두 녀석이 끼어들더라.
할매, 할매 이 세상 소풍 다 마치는 날 입고 갈,
고운 옷 짓는 거 우리랑 해보지 않을라냐고.
한 녀석을 연필을 들고 내게 입고 싶은 옷을 그리라 하고
한 녀석은 연신 말을 걸어대며
나를 카메라로 찍고 또 찍었다.
늙어 늘어진 얼굴 찍어 뭐하냐 손사래 치는 와중에
아주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더라.
그랴.
사는 거 뭐 있나.
누구는 천천히 누구는 빠르게
죽음 향해 가는 게 인생인데.
그 마지막 길 내 입을 옷 한 번 곱디 곱게 지어보자.
고단했던 내 지난 세월
중간 중간 박혀있던 보석 같은 기억을
그 것들 엮어내면 고운 옷 한 벌은 지어지겠지.

한 땀 지을 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아깝게 죽어간 어린 것들 명복도 함께 빌어주고.
또 한 땀 지을 때.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을
밉고 미운 그 사람 용서한다 한 번 중얼거려보고
그렇게 바늘 놀리다 보면
어느새 내 입고 갈 옷 풍성하게 만들어지겠지.

아야.
내 옷 다 짓고 나면
뜨끈한 밥이나 한 번 같이 먹자.
인연이 그런 거 아니겠나
밥 한 번 같이 먹고
같은 시간 안에서 웃고
그러다 먼저 간 사람 앞에서
나중 갈 사람이 펑펑 울음 한 바가지 쏟아 내 주는 거.
그게,
사는 거고
그게
잘 죽는 거 아니겠나. ^^/

이미화, 노애리 작가의 프로젝트는 “나의 마무리 옷” 이라는 내가 입을 수의를 직접 제작해 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청계5가 지하 상가의 뜨개방 할머니인 유수옥 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 대상의 수의 제작 프로젝트라기 보다는 이후 “웰다잉” 을 준비하는 범국민적 프로젝트로의 도약을 꿈꾸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원 사업과는 달리 작가 본인이 기획, 진행하면서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이 잘 전달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에 큰 매력이 있다고 전한 두 작가는 이후 관련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숍도 함께 진행하면서 시니어전문기관과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이 후 다양한 성별과 나이,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릴레이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군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날개를 달다

예술인
정성화

매칭기관
트리아드

프로젝트
기내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

트리아드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트리아드에서 기내 매체 브로슈어 기획, 진행을 했던 정성화입니다.

꽤 더운 날 만나서 일을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겨울이네요. 유달리 짧았던 가을이지만 제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사하고 좋은 기억의 계절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트리아드에서의 기억 때문에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꽤 오랫동안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이 그림책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였지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시장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출판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그림책 시장 역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언제까지나 어린이 그림만을 그리는 것을 고수하다가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멍하게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다른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은 한정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막막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겁이 났습니다. 그 동안 몇 번 외부 기업과 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상처 받았던 것이 예술 감각에 대해 지시를 받는 것이었거든요. 굳이 예술가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지 찾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부탁 받을 때면 그림 잘 그리는 심부름 꾼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트리아드는 그렇지 않더군요. 작가가 능동적으로 프로젝트 기획에서부터 참여, 충분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주셔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작가들끼리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협업이라는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함께 했던 일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사실 항공사 브로슈어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트리아드와 함께 작업한 아시아나 항공사의 브로슈어는 무척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단순한 예술 영역을 넘어서 한 기업의 가치 전달과 이미지 개선, 브랜드 확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 경력에도 동화책, 어린이 책 삽화가 아닌 기업 이미지 개선 작가라는 부분을 더하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앞으로의 제 작품영역이 넓어진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고요.

참, 그리고 미처 감사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 기회를 빌어 감사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참여 했던 아시아나 프로젝트에서 시나리오 수정 때문에 프로젝트 종료 일정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종료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는데요.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정말 잘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 불편하실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함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프로젝트를 잘 끝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마무리에 대한 기회를 주신 것 외에도 제가 작업한 만큼의 추가 비용을 더 정산해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동안 예술 작업에 대한 대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던 터라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그 대답에 무척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존중과 제 일에 대한 정당한 노력을 인정받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게도 또 다른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하나씩 타진해나가다 보면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얻었습니다. 어린이 책 그림이 아니면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을 거라는 불안감대신 기업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작가라는 기대를 얻게 해 준 지난 시간에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좋은 프로젝트로 좀 더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

외롭지 않게, 소통하는 내 몸의 언어

예술인 서성훈

매칭기관 석수유통

프로젝트 블랙마켓 퍼포먼스

누군가는 글로 말한다.

또 누군가는 노래로 말한다.

나는 몸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내 언어는 간절했고 애절했지만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만의 몸짓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때로는 무대에 섰고 때로는 길 한가운데 섰다. 그러다가 석수 시장을 만났다.

시장은 본래 고요하지 않은 곳이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채로운 모습으로 서로의 언어를 나누는 곳이어야 했다. 작은 세계지만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가장 큰 공간이어야 했다. 하지만 대형 마켓과 인터넷 쇼핑의 활성화로 시장은 본연의 활기를 잃고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들숨 날숨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그 곳에서 나는 간절한 몸짓 언어로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조금 외로웠다. 언제나처럼 일방적으로 말을 거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 걱정이 밀려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내가 건네는 대화에 함께 해 줄 곳을 찾았다. 2013년, 디딤돌 창작 사업 건으로 알게 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었다. 내가 세상을 향해 건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건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였다.

내가 구사하는 소통의 방식으로 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했다.

그러려면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 인연은 없으나 스치는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누리고 즐기는 소통의 장이 필요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만난 스톤앤워터는 내게 그 장을 마련해주었다. 단순히 한 번 공연을 올리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연간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코엑스에서의 일자리 청춘산업 예술가 및 돈에 대한 의미전달 퍼포먼스, 석수시장 아트 프로젝트, 안양 박달시장 문화 나눔 프로젝트, 안양 1,2번가 매그놀리아 오픈 프로젝트 등 다양한 공연 참여를 통해 기업의 인프라와 협동할 수 있었다. 그 와중에 내 능력도 발전했음은 물론이다.

가장 행복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년에 있을 석수시장의 각종 프로젝트 활동을 같이 하기로 한 것은 내게 있어 큰 전환점이고 변화이다. 늘 단편적인 소통을 해 왔다면 이제는 좀 더 장기적인 소통을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가 혼자만의 세계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라면 지원사업 이후의 나는 안으로 단단해지고 밖으로 넓어지는 세계를 만난 사람이 되었다.

스스로의 깊이는 더 깊어졌고,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는 더 다양해졌다.

이제 내 재능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될 것 같다. ^^/

고개를 드니, 세상이 보였다

예술인
황지연

매칭기관
수원 화성문화재단

프로젝트
수원 미술 문화 프로젝트

황지연 작가는 다재다능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작가이다. 섬유미술가이면서 외국어에도 능통해 국제 행사 통역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 작가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하며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런 그녀가 수원미술 문화 프로젝트의 기획자로 변신, 수원화성문화재단과 오색찬란한 일을 벌이고 있다. 팔색조 그녀의 변신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천 위에 물들이는 세계

그녀는 섬유미술가이다. 천연 염색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예술가이다. 천에 각종 물을 들이고 고운 빛깔 천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자기에 집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보자기가 물건을 싸는 용도의 실용품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니 아니었다. 보자기는 색감의 조화와 예술적인 감각을 응축시켜 놓은 멋진 예술품이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보자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 해외작가들과 자연스레 소통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작품 세계를 알게 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자리에 모아서 한 판, 크게 멋진 축제의 장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우연이 아닌 만남이 필연을 불러오다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나 곰곰 고민할 때 문득, 경기도 양양에서 전시를 할 때 다른 작가에게 들었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떠올랐다. 웹사이트를 검색했고, 거기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황 작가는 머릿속에 번뜩, 이거다!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했다. 분명 예술을 활용, 보다 괜찮은 지역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하는 곳이 있을 테니 그런 곳과 스스로를 매칭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매칭을 시작했다. 쉽지는 않았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은 후에야 인연을 만나는 것처럼 그녀 역시 딱 맞는 기관을 만나기 까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수원화성문화재단과의 멋진 만남

그렇게 만난 곳이 바로 수원화성문화재단이었다. 수원화성문화재단에서는 수원화성을 알리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중이었다. 그리고 황지연작가는 이 프로젝트에 단순히 작가로서가 아닌 기획자의 위치로 참여하게 되었다. 작가 입장에서 주최 측에 아쉬웠던 부분을 백분 개선하고 녹여내서 보다 완벽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함이었다.

평소 그녀가 관심을 가지고 교류하고 있었던 다양한 외국 작가들을 초청, 서로 교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폴란드 작가의 경우는 자신의 작가세계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까지 마련했다. 수원의 전시 대안 공간을 방문, 지역커뮤니티와 연관한 미술활동을 외국에 알리기도 하고 외국 작가가 수원에 거주하는 작가의 스튜디오를 방문할 때 통역도 도맡아 했다. 말 그대로 예술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 낸 것이다.

작가를 넘어 기획자로

그녀 덕분에 수원 미술 문화 프로젝트는 다양함을 더하고 풍성함을 덧댄 행사로 치뤄졌다. 국제보자기포럼, AICA미술평론가 협회 학술대회, 해외작가들과의 미술교류 (폴란드 작가) 해외작가 전시참여 기획 등 다양한 행사가 기간 중에 개최되었다. 평소 같으면 작가로 참여한 것이 전부였겠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수원화성문화재단을 만난 후 그녀의 영역은 작가에서 기획자로, 참여형 진행자로 훨씬 더 넓어졌다. 황작가는 “작가로서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다른 작가를 섭외하고 전체 행사의 큰 그림을 그리며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제 개인적 역량 강화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비전 제시 부분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게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매칭 서비스뿐 아니라 매칭시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좀 더 잘 보장받을 수 있게 계약과 요구사항 정리 등에 대한 자문까지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더해주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또 다른 영역 개척과 더불어 가능성에 대한 답도 얻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녀의 미래에 보다 다양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 펼쳐지길 바란다. ^^/

기억을 기록하다

예술인
김재경

매칭기관
대구향토역사관

프로젝트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기록 창작활동

누군가가 그랬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말이었다.

그 말이, 달성공원을 마주한 순간 다시 불쑥, 튀어나왔다.

어릴 때 놀러 갔던 달성공원은 크고 멋진 곳이었다. 서울에 가야만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다양한 동물을 보며 환호성을 올렸던 기억, 단풍이 들던 어느 가을 날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렸던 기억이 모두 달성공원 안에 있었다.

사적 62호. 삼한시대에서 조선시대를 거쳐 더하고 더해진 석축이 세월의 깊이를 안고 있는 역사 깊은 성. 공원에서 동물원으로 바뀌면서 수 많은 사람의 발길이 지나갔던 그 곳.

문득, 이 시간이 흐르게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은 그저 흘러가버리면 그만인 것이라, 잡아둘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웠다.

언젠가는 저 성벽도 무너질 것이고, 씩씩한 코끼리도 사라질 테고, 우직하게 서 있던 나무도 시들어 갈 텐데 이렇게 잊혀지게 두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나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버거운 것이었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다. 누군가가 나의 안타까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여주기를 기다렸다. 한 달여의 기다림 끝에 내 손을 잡아준 것은 대구향토역사관이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었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과 공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에피소드로 글을 쓰며 차곡차곡 기록을 쌓아갔다. 기록을 하는 동안 내게, 동물들은 철창 안에 갇힌 생명이 아니라 다정하게 교감하는 친구가 되었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내 기억 속에 자리잡을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그렇게 내 기록은 달성공원에 대한 기억을 새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언젠가, 지금 논의되고 있을 달성공원의 이전이 실현되고 나면 내 기록은 좀 더 많은 이들의 기억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좋은 기회였다.

그저 시간의 한 순간을 프레임 안에 집어 넣는 것이 전부였던 내 예술 활동에 긴 생명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준 시간이었다. 기록이 기억을, 다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고, 이로 인해 다른 영역으로 내 가능성을 뻗어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예술이 그저 아름다운 것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 역시 기록되어 내 기억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기억으로 나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영역을 넘나드는 멋진 예술가가 될 것이라 믿는다. ^^/

리듬 속에 출렁이는 이화동

예술인
김동화·정효현

매칭기관
쇳대박물관

프로젝트
이화동 야외 음악 공연과 마을 노래 만들기

좋은 음악은 그 어떤 심리 치료제보다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악으로 하나 된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음악” 을 통해 전통과 젊음이 어우러진 이화동에서 멋진 마을 음악회를 연 음악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우선 두 분 소개를 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정효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종합 예술 단체 ‘아베스타 아트’(Avesta Art)의 기획자로 활동중이며, 다른 멤버들과 함께 문학,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창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A. 저는 김동화라고 합니다. 이화동 벽화마을의 바로 옆 동네인 충신동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매일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꽃 계단이나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들 하지만, 막상 이 높은 동네는 올라오고 나면 사진 찍기 말고는 별다르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음악을 일단 선보이자는 생각이 들었고 동료들과 힘께 ‘이화 꽃 밴드’라는 이름의 거리 공연 밴드를 작년 겨울에 결성, 다양한 음악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Q.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건가요?

A. 처음에 기획했던 프로젝트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음반 만들기’ 였습니다. 하지만 매칭 기관과의 접촉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한 예술 프로그램이 이미 많이 실행되고 있어 기관 내 거의 포화상태였던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서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는데 기관 현장이 예상과 달랐던 것이지요.

결국 프로젝트를 바꾸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피상적인 프로젝트보다는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작업으로 생각했던 '이화동 마을 음악회' 공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화동 마을 음악회' 공연은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아베스타 아트' 라는 예술단체의 여러 음악인들과 함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연 프로젝트였거든요. 벽화로 유명해진 이화동이지만 그 외에는 별로 즐길 콘텐츠가 없다는 데 착안해서 한 달에 2-4회 가량 정기적으로 마을 음악회를 진행하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이화동에 살고있는 예술인들로 구성된 '코스믹 살롱', '호모 스피리투스', '이등변 삼각형' 등과 함께 이화동 언덕의 중심인 이화마루와 낙산 성곽공연에서 지속적인 공연을 했습니다.

이화동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특수한 이점 때문에 문화 예술 '씬'을 뿌리 내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저희는 이번 파견지원 사업 기간 동안의 작업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예술이 교류하는 현장으로 이화동을 발전시키려 합니다. 만약 이화동 특유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문화 예술 '씬'이 형성된다면 한국 사회에 문화 발전과 다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것, 혹은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A. 처음으로 정기적인 공연을 진행해보면서, 개인적인 창작 작업과는 또 다른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엔 음원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작업하다보니 직접 청중들을 대면할 기회가 적었는데, 얼굴을 보며 청중들을 만나 노래를 해보니 음악을 하는 본질적인 의미와 자세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예술 활동이 개인적인 부분에 집중되었다면 지금은 다른 분야, 혹은 사회와의 접점을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도 들게 되었구요.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야를 넓히고 활동 영역을 확장한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술인들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잘 먹고 잘 사는 예술

예술인 손현정

매칭기관 푸드포체인지

프로젝트 식생활 교육 정보의 시각화

내가 예술을 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겠냐” 라는 것이었다. 먹고 산다는 것. 그건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었지만 예술인에게는 쟁취해야 하는 필수요소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먹고 사는 예술,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로 먹고 사는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술가가 예술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념과 가치관을 함께 나눌 소통의 대상도 분명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찾다 만난 곳이 예술인 복지재단이었고 그렇게 만난 프로젝트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었다.

평소에도 “진짜 먹고 사는 것” 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슬로푸드에 대한 관심 역시 가지고 있었다. 2013년부터 사회적 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의 슬로푸드 카페 ‘슬로비’와 ‘브런질클럽’이라는 예술 활동 워크숍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활용함과 동시에 슬로푸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 정보,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었다. 마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기관 중 바른 먹거리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푸드포체인지’가 있어 기관 매칭 전부터 이 기업을 타겟으로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다. 이 때 내가 기획했던 프로젝트는 ‘Art for change’로 푸드포체인지와 협력하여 올바른 식문화의 즐거움, 전통음식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스토리가 담긴 식문화 시각 콘텐츠를 연구 · 개발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에 푸드포체인지에서 진행하는 바른 먹거리 교육과 캠페인은 통합적 교육과 캠페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보다 다채로운 창의적 예술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교육 분야에서 그림책을, 강연 분야에서는 포스터, 레시피북과 같은 시각홍보물을 제작하고 이와 더불어 직접 건강한 한국 식문화를 체험, 취재한 내용을 시각 콘텐츠로 발전시켜 푸드포체인지의 블로그에 연재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얻은 것은 많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프로젝트화 시킬 수 있는 방법과 진행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로 먹고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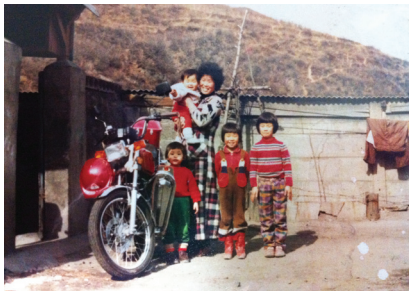
앞으로 내 본업인 예술뿐 아니라 예술을 활용한 다른 분야의 일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먹고 사는 것 역시 충분히 충족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더해본다. ^^/

낙탄부의 일기

예술인 신하정

매칭기관 석탄박물관

프로젝트 낙탄부 여성 녹취



낙탄부를 아시나요?

낙탄부.

낙탄부는 남편을 따라 산골 장성, 고한, 태백으로 내려간 우리의 어머니들이 생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직업. 석탄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일종의 잡부이다. 그 동안 광부나 석탄부에 대한 조명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그들 위에서 생업을 위해, 혹은 가장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했던 가족인 낙탄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이 있다. 홀홀 단신 외로운 사람도 부모는 있었으니 말이다. 그 가족 중 누군가는 분명 다른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기 마련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족은 어머니가 그 역할을 담당하곤 한다.

어머니는 그런 존재이다.

분명 꽃다운 시절이 있었을 테지만 아내라는 위치, 엄마라는 멍에가 한 여자를 자유에서 점점 멀게 만든다. 그리고 희생하고 참으며 견디는 역할만을 자꾸 안긴다. 기꺼이 감내하고 눈물을 삼키며 수고하는 그들을 밟고 가족들은 성장하고 살아간다.

낙탄부는 그런 어머니들이었다. 매일 검은 갱도 안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고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하며 자식을 건사하고 석탄을 골라내던 어머니들.

그 어머니를 통해 보는 광부의 삶은 아마 또 다를 것이다.

작가, 신하정은 그렇게 낙탄부의 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낙탄부의 일기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그저 혼자만의 프로젝트였다.

남자의, 광부의 도시라는 태백에서 함께 살아온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그 시선으로 광산업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직접적인 낙탄부, 선탄부의 일을 하신 분의 인터뷰를 싣고 가족의 생활과 자식의 이야기, 거기에 아내 입장에서 본 광부의 삶을 통한 광산업 이야기까지 두루 담으려 했다. 그리고 이를 동기로 삼아 태백의 소시민, 그것도 여성, 엄마라는 입장에서 바라본 풍경을 기록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였다. 비록 개인사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역사라는 것은 개인들의 기록이 모이고 모여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포괄적인 전체를 담담하게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충분한 정보와 감성을 담아낼 수 있다면 이는 훌륭한 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신하정 작가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한 사업을 만나면서부터 현실이 되었다. 바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었다.

낙탄부의 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신하정 작가는 “기관과의 매칭이 흥미로운 작업에 박차를 가해주는 역할을 했다.” 라고 말하며 낙탄부의 일기를 소개해주었다. 원래 혼자 진행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였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석탄박물관을 만나면서 프로젝트가 구체화 되었다고 했다. 기관 역시 단순 전시를 생각했었다가 작가를 만나면서 좀 더 개인적인 시각에서 차분하게 들여다 본 일상사, 그 일상을 통해 광부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데에 적극 동의해주었다.

신하정 작가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개인의 소소한 일상을 담는 작은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형식의 전시가 된다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과 함께 좀 더 많은 협업을 이끌어 낼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낙탄부의 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

우리 동네에 놀러오세요

예술인 오정향

매칭기관 대구문화재단

프로젝트 우리 동네 로드맵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는 무수한 이야기가 숨어있다. 그 이야기는 과거의 기억일 때도 있고 현재의 흥미로움일 수도 있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다.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수집, 공간과 기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한 작가를 만나보려 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대구문화재단과 함께 “우리 동네 로드맵” 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오정향 작가이다.

Q.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무척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A. 미디어 설치 작업을 주로 하면서 혼자서 작품을 만들어 왔지만, 대중과 소통하거나 다른 영역과 협업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공고를 본 후 제가 가지고 있는 작업적 소스(source)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초 진행하려 했던 기획은 ‘우리 동네 로드맵’ 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네비게이션, 지도와 같이 지형지물과 랜드마크 중심이 아닌 우리 생활 안에서 만나는 아주 사소한 공간과 기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은 랜드마크를 찾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창의 기억”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대구문화재단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가창의 기억"은 가창창작스튜디오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입주작가 5명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가창의 기억은 말 그대로 가창에서 살았던 기억, 가창에서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해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인터뷰, 사진촬영, 영상촬영 등을 통해서 가창의 기억에 대하여 모든 것을 수집합니다. 생소했던 공간에 적응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까지 가창지역의 많은 것들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의미를 작가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쌓여서 가창창작스튜디오와 그 일대에 대한 기억으로 쌓이면 가창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가창이 낯선 사람에게는 이 지역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할 수 있겠죠.

Q. 일종의 기억을 통한 다큐멘터리이고, 기록을 통한 안내서 개념이네요. 혹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자신의 생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작업의 영역이나 개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것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또한 제가 몰랐던 영역에서 다른 예술인들의 프로젝트를 보면서 새로운 것을 간접 경험 할 수도 있었고, 앞으로는 다른 일도 함께 해 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바라는 점이라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이다보니 서울과 경기 지역에 비해 타 지역의 참여 기관, 예술인 수가 현저히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지역의 많은 기관들이 시민과 예술가, 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목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 기관이나 기업의 어쩔 수 없는 관행 등으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의 시민들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Q.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덕분에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A. 저야말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

회귀

예술인
윤여진

매칭기관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스

프로젝트
Revolution by play

무대 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니, 무대 위에서 매 번 새로운 인물을 입고 그 인물의 삶을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열정 하나로 삶의 모든 움직임이 결정되었던 20대, 그래서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외국말로 무대에 서는 것은 내 나라에서 우리 말로 무대에 서는 것 보다 몇 배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그 무대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대 서커스라는 장르가 나를 사로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커스와는 달리 현대 서커스는 몸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말 다양한 스토리를 표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어쩌면 대사로 전달하는 것의 비중이 더 높았을 연극 무대에 서왔던 지라 몸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서커스는 두 배, 세 배로 매력적인 분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 수술을 다섯 번이나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시간이 흐르고 선 자리,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연극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에 빠져들었던 이유는 무대의 확장, 더 나아가 스토리의 확장, 스토리에 담긴 인간 이야기에 대한 집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어가 회귀하듯 다시 연극으로 돌아오고, 저 역시 오랜 해외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연극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학위도, 인맥도 없는 한국 공연예술계 안을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었습니다. 온갖 구직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중, 선배를 통해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곳을 통해 유브레인이라는 기업과 함께 연극 공연을 준비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런 저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유로움이 기반인 예술과 원칙이 기반인 기업이 어떻게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할까 역시 고민의 한 지점이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연극인의 모습을 입히는 것 역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연기력과 기술적인 부분들이 분명 몸으로 습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일종의 배우 훈련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이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 커리큘럼이 완성되고 나면 좀 더 체계적인 연극 연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브레인과는 현재 'Almost Maine'이라는 미국 희곡을 가지고 발표식 연극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단순히 연극 공연을 준비한다기 보다는 단체적인 놀이를 통해 기초적인 신체 감각을 키우고, 나와 타인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종의 그룹적 인성의 업그레이드 과정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입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분명 개개인의 이해력 증진뿐 아니라 집단적인 창의력 역시 키워질 수 있습니다. 긍정과 배려라는 문화도 자연스레 생기게 됩니다.

연극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와의 조화, 확장성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분야의 매력을 저만 알고 있기는 아까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제가 무척 고마운 기회였습니다.

연극 한 가지만 본업으로 삼고 살아왔던 제게 기업 문화를 위해 연극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포트폴리오가 넓어진 것은 물론이고 연극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을 발견했다는 희망도 함께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

껍질 깨기

예술인 정도영

매칭기관 초지중학교

프로젝트 연극상담치료

정도영 선생님께.

나는 선생님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연극도 싫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있다는 걸 모르는 세상이 바로 내가 꿈꾸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나는, 뚱뚱합니다.

나는, 냄새도 납니다.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밥 먹는 것도 힘듭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씻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노는 것도 꿈을, 꾸는 것도 다 귀찮습니다. 그냥 얼른 커서 내 맘대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괴롭힙니다. 나는 그냥 참았습니다. 참으면, 그 순간만 지나가면 괜찮습니다. 혼자인 것도 외로운 것도 싫다는 감정도 부끄러운 마음도 그냥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선생님은 내게 그 순간을 참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자꾸 내 목소리를 내라고 시켰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내가 어째서 '싫어!' 라는 말과 함께 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지, 왜 신문지를 구겨서 던지는 연기를 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됐습니다. 나는 누군가와 엮이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걸 시키는 선생님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처음으로 눈 딱 감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인형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날, 마음 속에 막혀 있던 작은 마개 하나가 툭, 소리와 함께 열린 거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앞을 보며 걸어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마당을 서성였고, 해가 질 때 즈음 펑펑 주저 앉아서 울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화를 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싫다고 말하고 싶었고, 괴롭히는 녀석들을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었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여자아이들과 얘기하고 싶고 공부도 잘 해서 선생님들의 칭찬도 받고 싶었습니다. 제 안의 진짜 저는 정말 멋진 놈이 되고 싶어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죠. 예술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을 믿을 때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구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지금 저는 빵셔틀도 안하고 괴롭히는 아이들에게는 맞서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대들고 같이 싸우면 모두에게 더 미움 받고 괴롭힘 당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당당하게 말하고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했더니 그런 따돌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제는 평소에 말도 잘 하지 않았던 제 옆자리 친구가 과자를 하나 주며 먹어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친구와 십 분 넘게 대화를 했습니다. 걸그룹 얘기요. 마치 오래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저는 에이핑크가 좋은데 걔는 걸스데이가 더 좋다고 그러네요.)

아마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늦게 나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한 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저희를 만나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신 상담치유연극을 꼭 다시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초지중학교에서 선생님이 귀여운 뚱스라고 불러주셨던 아이 올림. ^^/

내 네모난 기억

예술인
정현진

매칭기관
성북문화재단

프로젝트
한양도성문화제

이 여름의 기억은
뜨겁고
뜨거운 것.

낡은 성곽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골목이 속삭여주는 비밀 얘기에 숨 죽이고
때로는 빈 벽에 기대어
더 꽉 찬 시간을 벅차게 안으며

이 여름을 뜨겁게.

손 끝에서 흘러나온 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웠던 내 마음

네모난 종이 위에 그려진 건
기록된 흔적이 아닌
새겨진 추억.

그렇게 서울 곳곳을 누비며
오롯이 찍힌 발자국 위로
겹쳐지는 당신은

곱디 고운
미래에서 오셨나요.

어딘지 낯 익은
내 그림과 어딘가 닮은 듯 한.
그래서.
정겹게 손 내밀고 싶은.

정현진 작가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성북문화재단과 함께 한양도성문화제에 참여, 관련 내용을 담은 엽서를 제작하였으며 후속 프로그램인 <성곽마을 일러스트레이션 전>을 열어 다양한 작품으로 낙산성곽을 찾는 수많은 이들과 호흡했다. 정현진 씨의 작업 결과물들은 문화제 종료 후 사용 건에 관한 추가 계약이 진행 중이다.

부녀열전

예술인
정은주 · 정현

매칭기관
대구공정여행
문화마케팅진흥원

프로젝트
다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재미있고 다양한 협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 특이하게도 부녀 예술인이 본 사업에 지원, 각자의 영역에서 멋지게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한 번 만나보았다. 바로 정현 씨와 정은주 씨 부녀이다.

아버지인 정현 씨는 사진작가 이면서 글 작가로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왔다. 〈대구여행〉과 〈경주여행〉을 집필한 저자로서 대구와 경주를 찾는 분들이 여행을 통해 문화적 인식을 높이고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딸 정은주 씨는 아버지의 예술적 감성을 물려받은 그림학도이다. 사람들의 내면에는 규격화된 도시생활의 팍팍함을 뛰어넘어 인간답게 살아보려는 귀거래(歸去來) 의식이 짙게 깃들어 있다는 믿음 아래 지난 십 년간 꾸준히 '귀거래도' 를 그려왔다. 현대인의 숨겨진 친자연(親自然) 의식, 물질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꽃과 나무, 물과 바람, 산과 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 형상화해 온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다.

첫 시작은 정은주 씨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원하기로 결심한 후, 문인 겸 사진작가이신 아버지께 참여를 권유했다고 한다. 처음엔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 아니냐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현 씨였지만 최종적으로 부녀가 파견예술인으로 선정, 정은주 씨는 서울에서, 정현 씨는 고향인 대구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파견 사업 이전에도 지역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표해왔던 정현 씨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문화 알리기를 시도했다. 그 동안 대구 시민들조차 대구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심지어 "대구에는 볼 것이 없다"며 일상적으로 자기비하를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현 씨는 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대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일반에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구의 문화재〉 사진전을 한 번 열었고, 대구의 한 여행사를 통해 대구 시민 또는 외지인들의 대구 탐방에 해설가로 적극 결합하고 있는 중이다. 또 다양한 여행안내자료를 만들어 여행사에 제공함으로써 향후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딸 정은주 씨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일정한 경륜을 가진 경력자들의 바람직한 사회활동의 전형을 보는 듯” 했다 라며 뿌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연령과 경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 되는 예술가들을 정책적으로 잘 활용하면 우리 사회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지식인들이 일반인들의 수준을 과대평가하여 너무 어려운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만 좀 보완하면 정말 멋진 예술인과 지역 단체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파견 사업에 대한 소개도 잊지 않았다.

정은주 씨는 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처음에는 한 지역의 문화사업단에서 지역민들과 학생들의 창작을 돕는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활동 공간이 바뀌어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미술이 아닌 다른 예술분야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았다고 털어 놓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1인작업이 아니라 타 분야 예술인과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자신의 창작 세계에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 다른 분야와의 조합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팁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른 예술가들에게 “파견사업 경험이 자신의 향후 창작 활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이는 파견사업에 참여하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 나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고, 나아가 나의 창작 활동 전개에 도움을 얻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렇게 해야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예술인 창작 및 복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법제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정현, 정은주 두 부녀는 마지막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하고 싶은 말을 전해달라는 질문에 입을 모아 이렇게 얘기했다.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의 사업으로 번창하기를 바란다고.

이 두 사람의 예술 세계에 보다 큰 기회가 더해지길 바래본다. ^^/

손 잡아줘서 고마워요

예술인
조하영

매칭기관
푸르메재단

프로젝트
온라인 모금 캠페인
콘텐츠 제작

솔직히 말하건대, 처음에는 돈을 벌자는 마음이 더 컸다.

대한민국에서 예술가로, 그것도 만화를 그리는 사람으로 충분히 돈을 벌며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 역시 몇 개의 작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었다.

과연 이게 행복일까 깊이 고민하던 중에 문득, 내 사촌 언니가 떠올랐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말과 함께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희망의 아이콘으로 살아가는 내 사촌언니. 온 몸에 화상을 입고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떠오르며 문득, 혹시 내가 언니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장은 뚜렷한 아이디어가 없어 막연함만 가지고 있던 중에 우연히 지하철 역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광고를 보았다. 그리고 얼마 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행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지원사업의 공고를 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다.

예술이 그냥 예술로서 존재하는 것 외에 기업이나 단체와 연관되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왜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작품을 그리는 작품 활동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을까!
내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충분히 서브잡으로 내 재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꽝꽝꽝. 세 번의 충격 끝에 나를 가두고 있던 두꺼운 철문 하나가 활짝 열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 길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냈고 여러 멘토님들의 도움으로 사업제안서 역시 여러 번이여 수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선 언니가 홍보 대사로 있는 푸르매재단을 알게 되었다. 오랜 시간 고민해 오던 다양한 지점의 생각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낸 느낌이었다. 재능으로 돈도 벌고, 경력도 쌓으면서 언니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한 단체가 하려는 일에 내가 일익을 담당하게 되다니! 생각만해도 짜릿한 일이었다.

열성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임하면서 수 차례 미팅을 한 후 푸르매재단의 가장 큰 목표인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캠페인인 "기적의 손잡기" 홍보 웹툰을 제작, 연재하기로 했다. 지선 언니를 주인공으로 하여 보다 소탈하고 편안한 모습을 일상툰으로 담아냈고 이를 통해 밝고 희망적인 캠페인의 의미를 전달했다.

웹툰은 푸르매재단을 통해서도 선보였고 네이버의 도전 만화에도 연재를 했다. 이를 통해 기부자가 늘어나서 기부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에필로그를 제작할 예정도 가지고 있다. 웹툰을 통해 기부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은 나를 정말로 기쁘게 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이런 저런 고민만 하며 혼자 깊이 나만의 예술세계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출판물을 위주로 활동해 왔기에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던 웹툰이라는 영역을 덕분에 알게 되었고 여러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 나도 훨씬 더 넓어졌다.

금전적 안정보다 나는 내 영역이 넓어지고 본래의 일 외에 가외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기쁘다. ^^/

그녀의 세계는 동네로부터 뻗어나가는 중

예술인 이지혜

매칭기관 일상예술창작센터

프로젝트 최초의 밤 The first night

바야흐로 사회의 구성이 나라에서 도시로, 다시 지역으로 좁아지는 시대이다.

한 나라가 강, 바다, 산을 다루며 큰 줄기를 만든다면 도시는 길과 건물을 계획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지역 안에서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소통하며 산다. 지역 시장이 그 포문을 열었다면 지역 예술은 좋은 토양에서 피어난 꽃과 같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이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지금, 도시 풍경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 왔던 이지혜 작가를 한 번 만나보았다.

Q. 도시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작품에 투영하고 계시는데요, 본인의 예술철학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원래 문화예술 교육이나 작가 그룹 활동, 지역기반 공공미술 프로젝트, 청소년 창의 캠프안 개발 등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시민과의 소통에 관심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중 기억나는 것은 2013년 하반기에 기획. 진행했던 '손말 워크숍'(예술인 복지재단 후원, 아트 스페이스 풀)인데요 여기서 연극, 만화, 동화, 음악, 미술교육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섯 명의 강사진들을 초대하여 예비 작가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통적으로 작가자신과 주변의 서사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스토리텔링 방법을 창작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강사로 오셨는데, 워크숍을 통해 이들의 창작배경과 개인의 서사가 만날 때의 다양한 발화 방식을 소개하고, 참여자 개개인의 스토리텔링 방법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손말 워크숍'의 사례와 같이 예술의 다양한 제작기술들은 어떤 지역의 시민들의 상상력과 만나 풍부한 일상을 만들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연남커뮤니티센터'와 같이 공공의 목적의 가진 공간은 있으나 프로그램이 부재한 곳들에 그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한다면 지역민과 예술인 모두에게 자연스럽고 즐거운 소통과 협업의 장이 될 수 있겠지요.

Q.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어떤 프로젝트를 어디와 진행하셨나요?

A. 일상예술창작센터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초의 밤'이라는 프로젝트였어요. 같은 지역에 사는 주변인들의 밤에 대한 기억들을 수집하고 회화작업으로 연결하여 올해 12월, 연남동 에서 전시, 출판의 형태로 소개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커뮤니티 프로젝트들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일상예술창작센터의 기존 사업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계획이어서 기존 계획을 축소하고, 매칭 기관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Q. 대표적으로 진행하신 프로젝트 하나만 말씀 해주세요.

A. 일상예술창작센터가 주최한 두 번의 마을시장 내에 '자석갤러리'를 오픈하여 전시를 기획, 진행했습니다. 센터 내 마을창작공방인 '새끼'에서 진행하는 〈연남동 어린이 벽화반〉의 강사로 참여하기도 했구요. 지금은 연남동에 경희선 공원 조성공사가 한창인데, 그 공원을 공공의 공간,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 중입니다.

Q. 혹 바라시는 점이나 좋았던 점, 혹은 이런 점은 좀 별로였다 하는 부분을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부분이 혼자만의 아트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과 어울려 새로운 창조물을 낸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곱고 예쁜 것을 만들어 내는 것만이 예술 활동은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분명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숲, 거닐다 듣다 쓰다

예술인 유순희

매칭기관 의왕시민모임

프로젝트 최초의 밤 The first night

밤의 숲은 낮의 숲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다.

발 밑에서 사각거리는 흙도 어쩐지 더 부드러울 것만 같고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곤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만큼 집 가까운데 산이 많은 곳도 흔하지 않다. 바로 집 앞에 산이 보이지 않더라도 한 시간 정도만 움직이면 어느 정도 등산이라는 것을 할 만한 장소가 있지 않은가.

산은 몰라도 매력적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수 많은 이야깃거리들을 알고 나면 백 배, 천 배의 매력을 발산한다. 먼 산을 부러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내게 가장 가까운 산. 그 산의 구석구석만 알고 느껴도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진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알기 전에는 그저 산은 보는 것이었고 가끔 힘겹게 오르는 덩치 크고 높은 땅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동화 쓰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을 뿐 동화의 소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 본 적은 없었다. 창작의 영역이란 그저 나 혼자 깊이 고민하고 심사숙고 해서 내보내야 하는 것이라는 선입관에 나도 모르게 싸여 있었던 까닭이다.

그러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의왕시민모임을 알게 되었다. 의왕으로 이사온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방인 같았던 나는 이 모임과의 만남을 통해 의왕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화의 소재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산출물로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의왕 시민과 함께 한 생태 동화 글쓰기 프로젝트는 의왕시 곳곳의 산을 탐방하며 생태 자료를 취지, 이를 글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의왕 시민들과 숲 해설 전문가 전미숙씨와 동행하여 청계산, 백운산, 바라산 등지를 다니며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숲과 대화하려 마음 먹기 전에는 숲은 그저 나무가 많은 땅이고 높이 올라야 하는 목표점만 가지고 있는 무엇이었다. 그런데 내가 숲을 알기 위해 마음을 열고 다가갔더니 숲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었다.

이제는 안다.

숲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숲이 품은 작은 풀꽃 하나에도 얼마나 위대한 우주의 신비가 숨쉬고 있는지.

밤의 숲이 얼마나 아늑하고 위로가 되는지.

고요한 숲이 주는 말 없는 힘과 생명력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리고, 마음 속 깊이 자리잡은 외로움과 괴로움의 뿌리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뽑아 버리게 해주는지 말이다.

이렇게 함께 다니며 얻은 자료는 귀한 생태동화의 소재가 되었고 내년, 푸른 숲의 자회사인 라임에서 출간을 앞두고 있다. 함께 느끼고 함께 누린 소중한 감성들이 차곡차곡 담겨질 멋진 책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예술은 외롭다.

홀로 숲 속에 뚝 떨어졌을 때의 첫 느낌처럼말이다.

하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만난 여러 사람, 단체와 함께 한 예술은 외롭지 않았다.

정상에 올라 시원한 마음으로 저 멀리까지 보면서 느끼는 시야의 확장, 그리고 숲 곳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풍경을 발견하는 기쁨처럼 함께 한 예술 활동은 새로웠고 즐거웠으며 미래를 꿈 꿀 수 있게 해주었다.

함께의 힘을 알게 되어 가장 행복하고, 내 고장을 위해 내가 사는 곳에서 나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더욱 기쁘다. ^^/

용수골 작은 음악회

예술인
함혜정

매칭기관
서곡생태마을

프로젝트
제6회
용수골 작은 음악회

저는 함혜정입니다. 1993년 노뜰 창단 공연으로 데뷔 이후 20여년간 꾸준히 지금까지 연극을 생업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통 정극은 물론 퓨전 창극, 실험적 이미지극, 마당극, 음악극, 퍼포먼스, 거리극, 마임극, 가족뮤지컬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참여해 왔고 소극장 대극장 열린 공간을 가리지 않고 관객과 소통해왔습니다. 근래에는 우리나라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되는 여러 작품들에 참여하며 보다 관객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우리 전통 예술의 현대적 수용에 관심을 갖고 신선한 감각과 상상력이 넘치는 무대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타악과 풍물, 탈춤, 그리고 연극의 원형인 굿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공부를 통해 무대 위에서 빛나는 연희자가 되려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도 그러한 작품들에 배우로서 참여하고 고민합니다.

연극 작업은 다양한 계층의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예술입니다. 어린 갓난 아이부터 백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향유계층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술이란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와 무관하게 모두가 기본적으로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다문화인들과 함께 그림자연극 교육 수업을 진행하며 문화적 자부심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친밀감 형성 그리고 문화예술정책 수급자가 아닌 참여자 공급자로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어르신들과의 연극 작업, 학교 연극 동아리를 통해 결손 가정 아이들과의 의미 있는 연극 작업을 해왔습니다. 또 장애아동들과 연극놀이를 통해 예술의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지역 축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역축제들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행정 실적 보여주기 위주의 축제들이 많았기에 우리 전통의 공동체 문화나 품앗이 문화가 사라지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소중한 마을의 정서들이 훼손되는 듯 했습니다. 마을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을 발굴하고 독자적 아이템을 개발하여 작지만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 지속적 축제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만난 강원도 원주 지역의 서곡생태마을은 저에게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꿈의 조각 하나를 만난 것 같은 기회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축제가 보여주기에 가까운 지금 정말 사람냄새 나는 푸근한 축제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용수골 작은 음악회"는 제게 더 깊이 있는 프로젝트로 다가왔습니다.

서곡생태마을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주해 온 후 주민이 교육공동체를 구축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선주민들과의 화합과 조화를 위해 해마다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마을의 이슈가 있어 선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현저히 줄어 존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좋은 취지를 갖고 잘 유지해 오던 축제가 위기에 몰린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전체적인 공연 프로그램을 함께 논의하고, 스케줄을 잡고, 분과별 진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분주하게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4년 10월 18일 서곡 초등학교에서 "제 6회 용수골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4시 길놀이를 시작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대여섯 살 유치부 아이들의 앙증맞은 민요 공연으로 시작하여 서곡초등학교 어린이들, 부모들, 인근 학교 청소년들의 새로운 참여와 마을 군부대의 공연, 지역민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공연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술인파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무드살롱 팀의 축하 공연도 멋지게 선보였구요.

모든 행사가 끝난 후 행사 주체 기관에서도 저로 인해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 역시 원래 있었던 연극 분야가 아닌 축제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나면서 제 영역이 무척 넓어졌다는 게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크게 얻은 점입니다. 앞으로 연극 외에 축제 기획 쪽으로도 분야를 넓혀 볼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나의 예술가로서의 비전에도 도움이 되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창작을 하면서 꺾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변을 돌아보고 재능을 함께 나눌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Chapter 3.

따로 또 함께 - focus on people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개별 예술인과 기관이 매칭되어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비예술인들도 다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예술인들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수혜자이기도 했고 참여자이기도 했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이들 모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나름의 수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의 일상에 틈입해올 수 있는지, 예술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몸소 겪었습니다. 어떤 이는 평소 하지 못하던 행동을 하게 됐고, 어떤 이는 마음 속 트라우마가 해소되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술을 통해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여기, 그 변화의 씨앗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고 잎을 내어 더 넓은 복지로 퍼져나가길 희망합니다.

장윤하 / 박준혁 / 정은주 / 권세미 /
김동현 / 서상혁 / 유영소 / 이경배 /
이성미 / 장명주 / 강학수 / 김두안

괴산, 시골에서 영화 만들기

예술인
장윤하

매칭기관
괴산언론협동조합

프로젝트
느티나무 통신 영상사업단

영화관 하나 없는 시골, 괴산

〈명량〉이라는 영화에 1,7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고 한다. 그뿐이랴, 지금이라도 극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흔한 영화 한 편 보기 힘든 곳이 있다. 영화관 하나 없는 시골, 괴산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선 먼 길을 가야만 한다. 따라서 괴산 사람들이 모여 영화를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일까, 바로 이곳 괴산에서 당돌하게 영화 만들기에 도전한 사람이 있다. 예술인 장윤하 씨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장윤하 씨가 괴산에 내려 와 지낸 지는 올해로 4년째다. '문광특집'이라는 이름을 짓고 여자 6명이 알콩달콩 모여 살았다. 그러나 친구들은 하나 둘 괴산을 떠났고 마지막엔 장윤하 씨만 괴산에 남게 되었다. 장윤하 씨도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하나 고민하던 무렵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 듣게 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사업으로 예술인을 기업, 기관, 지자체 등에 파견해주고 15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다. 장윤하 씨는 망설임 없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괴산에 남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딱 하나, '그녀가 괴산에 파견되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다.

시골에서 '함께' 영화 만들기

"서울로 좋은 영화를 보러 갈 수 없다면 그 판을 지역에서 만들어야죠."

장윤하 씨의 말이다. 그녀는 서울로 좋은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면 지역에서 스스로 그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괴산언론협동조합인 느티나무통신에 파견되었다. 때마침 느티나무통신에서는 유기 농업을 하는 솔뫼 농장 2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슈가 있었다. 그녀는 좋은 기회다 싶어 곧바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장윤하 씨만이 아니었다. 괴산언론협동조합의 조합원들 역시 스스로 영상을 만들어 보기를 꿈꾸고 있었다. 평소 자체 영상 제작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나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전혀 감이 안잡혀 접근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안 장윤하 씨는 혼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보다 조합원들과 함께 영화 만들기를 선택했다. 그렇게 농부, 슈퍼마켓 주인 딸, 철물점 주인 등 장윤하 씨의 인솔 아래 솔뫼 농장 2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꾸려졌다.

장윤하 씨는 조합원들과 프리프로덕션 단계부터 시나리오 집필, 촬영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분담했다. 단체 워크숍도 열어 영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해나갔다. 조합원들은 장윤하 씨의 리드에 잘 따라와줬고, 후반 작업 중 목소리가 좋은 조합원은 나레이션으로도 참여해 철저히 괴산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만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10월 둘째 주에 열리는 솔뫼 농장 20주년 기념 잔치에서 상영되어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냈다. 특히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동을 느꼈다. 농사를 짓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잉여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가 상영될 때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게 예술이구나, 싶은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장윤하 씨에게 고맙다고, 고맙다고 손을 잡았다.

사업 후 변화

"시골에 있으면서 나는 모두의 걱정거리였다."

시골 생활을 해본 적이 없던 장윤하 씨는 시종일관 괴산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샀었다. 다들 도시에서 온 처자가 어떻게 시골 생활을 이어갈지 걱정스레 지켜본 것이다. 게다가 장윤하 씨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 예술인 장윤하 씨의 작업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장윤하 씨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졌다. 장윤하 씨가 만들어낸 영화제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무슨 일을 하는 처자인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이다. 그제서야 주민들은 장윤하 씨에 대한 걱정을 접었다.

이는 비단 장윤하 씨만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계속해서 익숙치 않은 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예술인들은 본인의 작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일 뿐이다. 다들 돈 벌어 먹고 사는 이 세상에 딱히 자본의 가치를 발생시키지도 않는 작업을 계속하니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주는 과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장윤하 씨는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계적 형태를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이 생겼다"고 말한다. 파견이라는 형태로 지역에 안착을 하니, 무엇을 해야할 지가 보이면서 지역에서의 생계에 대한 활로가 찾아진 셈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호기심 가득한 여행"이었다고 표현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업이었지만 일단 괴산에 머물 수 있다는 조건에 마음이 동하여 지원을 했는데, 정체를 알 수 없었기에 더욱 즐거운 여행이었노라고 말한다. 인건비가 지원되니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그녀가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규모를 확장한 영화제를 열겠다는 그녀의 다짐에서 예술인 파견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본다. ^^/

아이들의 낙원

예술인
박준혁

매칭기관
달꽃창작소

프로젝트
달꽃창작소 연극 수업

후미진 골목 사이사이, 아이들이 머물러 있다. 홀로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몇몇 아이들이 모여 있기도 하다. 아이들은 말이 별로 없다. 무얼 할지 몰라 서성인다. 저 아이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될까. 저 아이들은 무얼 하고 싶을까.

잠시 후, 머물렀던 아이들 앞에 그가 나타난다. 아이들은 그를 따라 이동한다. 그는 연극 배우로 유명한 예술인 박준혁 씨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어딘가를 찾아간다.

달꽃창작소. 그와 아이들이 도착한 장소는 달꽃창작소다.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뛰어 놀고 있다. 흡사 아이들이 어른 같고, 어른들이 아이 같아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도 아이들과 함께 달꽃창작소 안으로 들어가더니 영화 대사를 한 마디씩 이어가며 놀이를 한다. 그는 놀이를 주도하고 있어 외관상 선생님처럼 보이기는 한데, 솔직히 선생님 같지는 않다. 아이들 중 한 명처럼 보인다.

그와 함께 영화 대사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대사를 내뱉으며 연기도 하고 인상을 쓰기도 하고 까르르 웃기도 한다. 나이도 다양해 보인다. 어떤 아이는 건장한 고등학생처럼 보이고, 어떤 아이는 체구도 작고 앳된 초등학생 같다.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섞여 있다. 그러나 즐거운 건 모두가 마찬가지다. 골목에 머물러 있을 때와는 딴판이다.

몇 개월 전, 봄바람이 불 때 즈음 그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달꽃창작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연극을 교육에 접목시켜 아이들을 가르친 경력 덕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달꽃창작소에 매칭된 것이다. 그는 교육 경험이 많았기에 달꽃창작소에서의 교육도 똑같으리라 생각했다. 아이들에게는 예술에 내재되어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희망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오산이었다. 그는 달꽃창작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며 아이들에게 이미 희망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그저 아이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희망과 순수를 표출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순수가 없다고, 그러니 아이들이 희망과 순수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달꽃창작소에서는 교육이라는 전제 아래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라는 벽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교육이 아니었다.

이후에 그는 달꽃창작소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교육이라는 틀을 없애나가기 시작했다. 나름의 커리큘럼은 준비해갔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었다. 아이들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나니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말했다. 잠이 오면 함께 잠을 잤고, 노래하고 싶을 땐 함께 노래를 했고,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땐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가 잘하는 분야든 못하는 분야든 그건 큰 상관이 없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역시 아이들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희망과 순수를 표출해주고, 눈으로 보고 싶었다.

그의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근원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 그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달꽃창작소에 오게 됐을 때 아이들은 연극 배우인 그를 보면서 “배우가 꿈이에요”, “연기 배우고 싶어요” 라고 장난처럼 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졌다. 직접 그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됐다. 나중엔 먼저 같이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럼 그는 한 번 해보라고 하면 될 뿐이었다. 그렇게 아이들과 그는 연극을 가지고 함께 놀게 됐다.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문화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다. 피상적인 예술 교육이 아니라 예술과 함께 뒹굴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끝난 지금도 달꽃창작소에는 아이들이 가득하다. 게다가 달꽃창작소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비영리 기관이 되었다. 그 후 구청에서도 찾아와 달꽃창작소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하려 하니 달꽃창작소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덕분에 한 발짝 더 나아간 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와 함께한 지난 6개월이 더없이 소중하다. 교육이라는 벽을 깰 수 있었으니.

그 역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달꽃창작소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한다. 아이들은 예술인으로서의 그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해준 귀한 존재들이다. 달꽃창작소라는 이름에 들어 있듯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들판의 꽃처럼 아름다운 아이들과 더 뛰어 놀려고 한다. 마치 낙원과도 같은 그곳에서. ^^/

마포나루에서 거위 날다

예술인	매칭기관	프로젝트
정은주	마포FM	싱싱마포

평균 연령 65세, 마포 살이 평균 10년, 우울증과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런 단어들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소위 멘붕에 빠져버렸다. 나는 단지 마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것 뿐인데 마포FM이라는 곳에 와버렸다. 마포FM에서는 마포 장애인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버킷 리스트 프로젝트'를 주2회 라디오 방송으로 내보내려 했는데, 내가 그 방송을 맡게 된 것이다. 프로젝트의 이름하여, '싱싱마포'.

고민을 했다. 마포에서 근대부터 지금까지 삶을 이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으려 했다. '마포나루 살이'라는 프로젝트였다. 어르신들의 '버킷 리스트 프로젝트'를 방송해야 하는 '싱싱마포'는 조금 난데없었다. 그러나 나는 여름 날 기타 치면서 삶을 이어가던 베짱이 계열 연필 족속 아니던가. 나의 프로젝트와 '싱싱마포'의 접점을 생각해봤다. 나의 프로젝트에도 난점은 있었고, '싱싱마포'에도 강점은 있었다. 이 둘의 교집합에서 나는 제대로 베짱이 역할을 해보기로 했다. 제대로 한 번 놀아보자고.

라디오 작가, DJ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지만 타고난 베짱이 근성으로 일단 스타트했다. 우선 '싱싱마포' 출연진들의 별명을 지었다. 어르신들 중 가장 연장자인 분은 '왕언니', 막내는 그냥 '막내', 성이 이씨여서 '이여사', 여기저기 마냥 쏘다닌다고 해서 '발바리', 호랑이를 좋아한다고 '백호', 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신 마포FM 본부장님은 '마당'이었다. 마당있는 집에서 살고 싶으시단다. 별명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던 나는 졸지에 어르신들에게 '수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난 수리부엉이를 좋아했다.

그런 다음엔 한 시간 분량인 원고의 틀을 정하고, 밝은 노래 4곡으로 바탕색을 칠하고, 어르신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으로 오프닝을 시작했다. 가수가 되고 싶은 분은 가수 이야기를, 여행을 다녀보고 싶으신 분은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의 모양을 잡아 나갔다. 삶의 이야기와 과거를 즐겁게 풀어 놓을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해 모양에 색을 입혔다. '싱싱마포'는 기대 이상으로 팔딱 거렸다.

그렇게 라디오 방송을 3회까지 진행하고 나니 4회쯤부터는 진행 순서에 따라 생방송을 진행하는 듯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판을 즐기셨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다락방에 모여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펼쳐졌다. 그 때 생각했다. 이런 게 바로 '라디오 스타' 아니던가.

어르신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나는 방송에 청취자들의 호응도도 점점 높아졌다. 가수가 되고 싶던 분은 노래 선생님께 노래를 배우고, 여행을 하고 싶던 분들은 마포유랑을 떠났다. 그 이야기들도 점점 쌓여갔다. '싱싱마포'는 어르신들의 지난 생애와 더불어 날 것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락방에서 무지개처럼 펼쳐졌다. 어떨 때는 웃음으로, 어떨 때는 눈물로 다락방의 공기가 메워졌다. 문학 작가였던 나는 고작 몇 개월 라디오 작가를 해봤을 뿐이지만, 이 맛에 라디오 작가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라디오라는 매체가 아직 살아남은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마포나루 살이'로 마포의 면면을 살피고 마포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으려 했던 나의 목적도 자연스레 이뤄졌다. 마포에 살던 분들과 이토록 가까워지고, 마포유랑단의 이야기를 매주 들으니 마포는 어느새 내 곁에 와있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어떤 곳이든 가야 할 곳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가게 되어 있고, 무엇이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빨리 끝마치겠다고 용 써봤자 힘든 건 나 자신이다. 그저 지금 내 앞에 닥친 운명의 수레바퀴에 몸을 맡기고 시간의 파도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곳에 당도해 있을 것이다. 마포FM에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올 연말, '싱싱마포'는 '싱싱축제'로 마무리 하려 한다. 누군가는 가수가 되고, 누군가는 유랑단이 되어 지난 몇 개월의 항해를 발표한다. 나름의 버킷 리스트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시간들이 어르신들에게 자그마한 기쁨이라도 된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감히, 버거운 인생이어도 살아간다는 것의 기쁨을 느꼈으니, 당신들도 부디 행복하시길. ^^/

아무렇게나 그린, 낙서

예술인 권세미

매칭기관 모두들

프로젝트 길 위의 낙서

안녕하세요, 권세미 선생님. 전 '길 위의 낙서'에 참여한 A입니다.

제가 봐도 저는 소극적인 아이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주위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하나쯤 빠져도 누구도 눈치 못 채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하기보다는 가만히 있거나 누군가 시키는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어느날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신 선생님께서는 무언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바라보고 구석구석 예쁜 곳을 그리기', '실패하자! 를 모토로 찢고 오려 붙이기', '마음을 흔드는 단어를 골라서 그리기', '생각대로 그리지 말고 보이는대로 그리기' 등등…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그리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그리기였습니다.

난감했지만 선생님께서 요구하시는대로 해봤습니다. 저는 시키는대로 하는 아이니까요. 무척 어려웠습니다. 의도한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제가 그린 그림은 엉망이었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딱 정해진 무언가를 그리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엉망인 제 그림이 제대로 그린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시험을 친 후 오답인 줄 알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오답이 아닌 셈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그리든 그건 나만의 그림이고 그게 좋은 그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프로그램 이름이 길 위의 '낙서' 겠냐는 말씀도 하셨죠.

이후에 저는 의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낙서 수준도 되지 못할 정도로 더욱 엉망이 되어 갔지만 그럴수록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제 그림을 선생님께 가져가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스스로 그렇게 되었더라구요. 선생님께서도 제가 가져간 그림을 항상 눈여겨 봐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곳으로 오신 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란 걸 통해서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길 위의 낙서'라는 건 예전부터 꼭 하고 싶으셨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하실 수 있었다구요. 만약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혹은 선생님은 계셨어도 그 사업이 없었다면 저는 '길 위의 낙서'를 만나지 못했겠죠. 그럼 저는 엉망인 그림을 그릴 수도, 그림을 들고 선생님께 찾아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선생님을 찾아간 것이 별 것 아닌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겐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께 고마움과 동시에 그 사업에도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도 저 하나쯤 빠져도 이 세상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걸 봐주는 사람이 있고, 적어도 그 사람에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저를 통해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오후입니다.

고맙습니다. ^^/

무엇이든 maker!

예술인 김동현

매칭기관 송파구청

프로젝트 송파 Make Artist

메이커(maker) 문화를 아시는지?

아직 한국에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메이커 문화(maker culture)! D.I.Y. 문화의 기술 기반 확장을 대표하는 현대 문화로 단순 '크래프트', 'D.I.Y.'의 의미를 뛰어넘어 예술과 테크놀로지 영역이 믹스되어 있다. 메이커 문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선도되고 있으며 1인 제조업이 가능한 공장 개념의 '테크숍'은 메이커 문화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테크숍 개념은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으며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바로 이 메이커 문화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적극 도입한 사람이 있으니, 예술인 김동현 씨다.

오토포이 박사의 연구실?

'오토포이 박사의 연구실'은 김동현 씨의 필명이다. 오토포이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리키는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라는 생물학적 학명에서 따온 명칭으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우주를 하나의 틀로 연결하고 진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김동현 씨가 이러한 필명을 짓게 된 것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다.

김동현 씨는 서양화를 전공해 예전에 전시를 많이 했었다. 그러나 전시가 끝나고 나면 언제나 허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고, 자신이 왜 허무한지 이유를 찾다가 예술가라는 존재가 응당 책임져야 할 문화적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그러다 사람들이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예술가의 문화적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2009년 오토마타 박물관과 같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오토마타라는 것을 처음 접하고, 메이커 문화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김동현 씨는 이후 '오토포이 박사의 연구실'이라는 타이틀로 작품 활동을 하게 되었다.

송파 메이크 아티스트!

김동현 씨는 평소 기업의 후원으로 움직이는 작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예술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기업에 파견해주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 당장에 지원을 했다. 그리고 송파구청에 파견되어 '송파 메이크 아티스트' 그룹을 만들게 되었다.

송파 메이크 아티스트 그룹은 아이, 학생, 어른 등 다양하게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김동현 씨가 간단하게 오토마타-움직이는 키트를 강의하고 각자 직접 본인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헤매는 과정도 있었지만, 몇 개월이 지난 후 저마다 본인의 개성이 녹아 들어간 작품이 완성됐다. 연말에는 이들의 작품을 송파구청에서 전시를 하며, 과천과학관에도 프로젝트 등록을 해서 전시를 할 예정이다.

메이크 아티스트 그룹 멤버들은 이 과정을 통해 본인들이 예술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더군다나 아직 국내에선 흔치 않은 분야인 오토마타를 제작하면서 최근 트렌디한 문화라 할 수 있는 메이커 문화를 접한 것 같아 왠지 모를 성취감이 더 느껴진다고 한다. 이정도면 김동현 씨가 생각한 문화적 역할, 즉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술인의 역할은 충분히 해냈다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더 많은 메이커 아티스트를 위해

김동현 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문화적 역할을 실현하기에 메이커 문화가 딱 적합하다고 말한다. 때문에 메이커 문화를 가장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테크숍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테크숍은 생각만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테크숍과 메이커 문화를 함께 즐기는 첫 번째 단추로 삼을 수 있었다. "테크숍이라는 개념이 많이 생겼다. 이번 프로그램도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하는 김동현 씨는 자신만의 테크숍을 구축해 사람들과 함께 예술을 즐기고 싶다.

이미 미국에서는 테크샵이 메이커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송파 메이크 아티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동현 씨의 모습에서 '오토포이 박사의 연구실'은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테크숍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방인은 다시 떠난다

예술인 서상혁

매칭기관 유수암 버스차부

프로젝트 프로릭 아트 페스티벌 2014

'파견'이라는 단어를 듣고 어딘가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나먼 어딘가 낯선 환경으로 찾아가 예술이라는 접점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야겠다는 생각. 인생이 어떤 끊임없는 여행의 선상 위에 놓인다면, 우리는 그 위에서 1인칭 관찰자와 주인공의 시점을 끊임없이 오간다면, '파견'이라는 항로 위에서는 두 가지 시점을 모두 취할 수 있겠다는 생각. 1인칭 관찰자로서는 낯선 공간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1인칭 주인공으로서는 그 이해의 토대 위에서 그들의 공간에서 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겠다는 생각.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라는 사업명을 듣고 가장 먼저 들었던 느낌이다.

그래서 나의 거주지와 가장 멀고 낯선 곳으로 파견을 가고 싶었다. 그곳이 어딜까, 고민해보니 답은 하나. 제주도였다. 제주도라면 내가 1인칭 관찰자로서 그들의 공간을 살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으며, 파견을 가 있는 동안 서서히 1인칭 주인공이 되어 그들과 허물없는 대화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방인. 그러나 제주도에 파견을 간 나는 철저히 이방인일 뿐이었다. 그들이 가꾼 나무와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아무나 건드릴 수는 없는 곳이었다. 제주도는 쉽게 뭍 사람의 숨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양이 아름다운 만큼 그곳에 내가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아픔은 컸다.

나는 차라리 이방인으로서 그곳에 다가가기로 했다. 내가 그곳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다 그곳에서 하고 있던 무언가에 나의 노력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그들과 동화되려는 노력을 거뒀을 때 오히려 그들은 나를 편하게 대했다. 그만큼 그들은 타인에 대한 벽이 컸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들의 가시 돋힌 벽은.

행인지 불행인지, 제주도에서 축제를 준비하게 됐다. 축제란 그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핵심이었으니,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그러나 이방인이란 때로 현지인들이 감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상을 포착하기도 했으니, 나의 축제 기획은 제주도의 거센 바람만큼이나 어디로 향할지 알 수가 없었다.

많은 이야기를 했다. 유수암 버스차부에서 축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고, 나 역시 그랬다. 어쨌든 예술인과 제주도 주민이 참여하는 이 축제가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 끝이 어딘지 불분명한 이야기를 오래도록 했다. 어느 때보다 섬세한 시선을 가지고, 제주도의 거친 돌들을 어루만지듯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 갔다.

축제가 향하는 곳은 그 속에 서 있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달라졌다. 예술인의 위치에서 바라본다면 축제는 일이 아닌 놀이로서 존재해야 했고, 지역 주민의 위치에서 바라본다면 일상의 공간에서 일탈하는 순간 느낄 수 있는 교감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기획하는 이에게는 축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즐거움이 되어야 했다. 이처럼 같은 대상을 두고서도 우리는 다른 위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제주도라는 공간 위에 있어도 지역 주민과 나는 서로 다른 위치일 수밖에 없듯.

'frolic'

결과적으로 축제는 일이 아닌 놀이로서의 예술을 통해 좀 더 편안하고 의미있게 사람들이 교감하고, 이를 통해 즐거움이 파생되어야 했다. 'frolic'은 영국 영어로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었다. 우리의 축제명은 'Frolic Art Festival'로 정해졌다.

10월10일, 축제가 시작됐다.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더니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예술인의 아트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가 하면,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경하며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마임, 음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소를 짓기도 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던 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맞닥뜨린 새로운 일상이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만의 일상에서 일탈해 무언가를 공유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함께 느낀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럼 다시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감각으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 삶이란 건 그렇게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게 이방인인 내가 그들에게 내밀 수 있는 손길이었다.

그리고 이방인은 다시 떠난다. 그들의 축제는 이제 그들이 새로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방인은 그 시작의 어느 한 순간을 굳건히 해주는 촉매니까. ^^/

두 시간의 여행

예술인
유영소

매칭기관
송파 마을예술창작소

프로젝트
어른이 먼저 읽는
어린이 문학
청소년 문학

어린 시절, 어린이 문학서를 읽으며 두근댔던 기억이 있다. 한동안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 설레는 마음에 밥을 먹는 동안에도 잊혀지질 않았다. 친구들끼리 주인공의 흉내를 내기도 했다. 꼭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현실 속에서도 감정을 이입해 코스프레 아닌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시절이다.

이렇듯 그 시절의 어린 내 마음에 쌓인 자양분들은 나를 지금의 어른으로 만들어 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 나는 길을 잃은 것만 같다. 내 속에 쌓여가는 건 무기력과 외로움, 쓸쓸함, 공허함, 회의감 뿐, 내가 동경할 주인공은 없다.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 준 그 시절의 주인공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어른이 먼저 읽는 어린이 문학 청소년 문학'

호기심이 갔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 일단 들어가봤다. 성인들이 앉아 있었지만 모두 어린이문학을 읽고 있었다. 누군가는 미소를 짓기도 했고, 누군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기도 했다. 그들의 표정에서 삶에 대한 진중함이 엿보였다. 몇몇 이들에게선 회한이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어딘가 따스했다. 이들을 감싸는 묘한 따스함이 스며 들어와 나도 모르게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다.

본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유영소 선생님은 수강생들이 어린이 문학 속에 스스로 길을 내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자신을 수강생들과 함께 산책하는 조금 영민한 친구라고 소개했다. 동심을 어색하다 생각하는 친구에게 가장 순수한 인간 본성이라는 첫 번째 마음을 떠올리게 하고 옆에서 함께 걸으며 우스개도 하는 그런 친구.

우리는 모두 '어린이'라는 시절을 거쳐왔다. 각자의 가장 깊은 속내가 숨어 있는 그 시절,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가 담겨 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결국 우린 저마다의 가장 순수한 알맹이를 보게 된다. 나 역시 유영소 선생님의 프로그램을 통해 그런 체험을 했다.

언젠가 말괄량이 삐삐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단편집을 함께 읽은 적이 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읽어나가고 있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다. 선생님은 나를 쳐다봤지만, 한 번 흘러내린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다.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주루룩 쏟아졌다. 지나간 내 삶이 밀려오는 것 같았다. 그동안 나는 이렇게 떠밀려 살고 있었구나.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놓친 채.

그 후 일주일이 참 많이도 힘들었다.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수강생들도 나의 눈물과 힘듦을 알겠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매주 두 시간 씩 참여했던 이 프로그램은 매주 내 안의 어린이를 만나는 두 시간의 여행과도 같았다. 그 시절의 나를 돌아보며 조금은 칭찬을 해주고 다독였다. 나를 이렇게 어른으로 잘 자라게 해줘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

예술 안 생활, 생활 속 예술

예술인 이경배

매칭기관 프락시스

프로젝트 응용연극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예술이란 무엇일까 하고 묻는다면 아마 천만 가지의 답이 나올 것이다. 예술의 정의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술을 입에 올리면서도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는 답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다년간 연극을 해온 예술인 이경배 씨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답했다. 소통을 해야 예술이며, 예술을 위한 예술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 예술이 녹아 있어야 한다고. 알듯 모를듯한 표정을 짓는 필자에게 이경배 씨가 말했다.

“몇 년 전에 인도에 가서 굉장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인도 아이들은 일어나자마자 그 나라의 고유한 리듬을 타며 춤을 추더군요. 그건 그들에겐 생활이지만, 곧 예술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함께 녹아 융합되어 있는 거지요.”

응용연극

예술인 이경배 씨가 연구해온 분야는 ‘응용연극’이다. 연극과 뮤지컬 등의 공연 예술을 기반으로 미국이나 연극 등에서 활발하게 탐구가 진행되어온 응용연극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시민이 함께 참여해 자신의 문제나 환경을 파악하고 그 자체를 나누며 예술로 승화하는 것을 말한다.

어렵다. 처음 이경배 씨가 이 개념을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느낀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경배 씨와 매칭하게 된 기관 프락시스는 조금 달랐다. 진정한 교육연극을 만들어보고자 했던 프락시스는 그의 생각에 진심으로 동의했다. 프락시스는 노인, 청소년, 노숙인,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일반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슈를 연극으로 만들어내는 곳으로, 그들이 추구해온 가치가 바로 예술과 사회의 연결이었기 때문이다.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꿈을 이루고"

이경배 씨는 프락시스와 함께 응용연극을 만들기 시작했다. 둘 다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것을 힘을 모아 했기에 시너지 효과가 났다. 이경배 씨는 머리 속에만 있던 이미지를 풀어냈고, 프락시스는 지역 주민들을 끌어 모아 이를 실제로 연극으로 엮어냈다.

시민들은 처음 연극에 참여한다는 것을 낯설어했다. 이런 곳에서 하는 것도 연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수도 없이 물었다. 하지만 이경배 씨에게서 돌아오는 답은 "정답은 없어요. 적극적으로 토해내시면 됩니다."였다. 청소년 수련원에서, 초등학교에서, 문화사랑방에서 공연의 준비는 계속되었다. 아니, 공연의 준비 자체가 곧 예술이 되었다 몇 달에 걸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을 표출하는 법을 배웠다.

다시서기 지원센터에서 함께 노숙인들의 연극을 만들면서도 룰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룰이었다. 노숙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걸려있는 것을 던졌다. 무대 위는 당연히 난장판이 되었다. 하지만 배우들의 삶의 무게와 인생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어떤 연극보다도 진실된 극이 되었다. 관객들도 손을 들고 자유롭게 떠들며 직설적으로 감정을 나누었다. 노숙생활을 경험하며 더욱 깊이 느끼게 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담고자 만들었던 이 연극 '우리 집에 왜 왔니'는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 관객들은 노숙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리게 되었으며, 노숙인들은 예술을 통해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경배 씨는 바로 이것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응용연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현실을 잊고 다시 한 번 살아나게 만드는, 그야말로 그가 생각한 이상적인 예술의 형태였다. 지금까지 개념으로만 그려왔던 그림이 무대 위에서 재현된 순간 마치 꿈을 이루는 기분이었다고 이경배 씨는 말했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프락시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예술가가 된 지역 시민들도 자신들의 꿈을 이루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저 꿈으로만 남아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경배 씨는 프락시스와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며, 더 많은 예술가들이 지원을 받고 사회로 나와서 세계가 곧 예술이 되는 새로운 꿈을 꾼다고 전했다.

쓸모 없는 예술의 쓸모에 대한 발견

예술인
이성미

매칭기관
신림초등학교

프로젝트
집으로 찾아가는 이야기
+ 오디오북 제작

아이들아, 그동안 나는 시를 써왔단다. 이 세상엔 노래해야 할 것들과 위로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 시를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지. 시를 쓴다는 건 어찌 보면 내겐 살아 가기 위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시를 쓰기 위한 눈을 키워만 가던 어느 날, 언젠가부터 너희들에게 눈길이 머물기 시작했단다. 너희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글에 관심이 가게 됐지. 소위 어린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일 게다. 문학이라는 단어도 너희들에겐 필요 없을지 모르겠다. 그저 어떤 이야기다. 너희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이야기.

나는 너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단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간 것이 나의 이유였다만, 실은 너희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와 희망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순수와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걸까, 정확한 이유는 나조차도 알 수 없지만 일단 보고 싶었다. 그래야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았거든. 이 세상 모든 이야기는 어떤 사건이란다.

가까이서 지켜 본 너희들은 그야말로 아이였다. 그래서였을까, 내심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나는 열과 성을 다해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었지. 그리고 너희들도 이야기를 읽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청아해서 나의 탁한 목소리와는 너무 대조되더구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재미있었는지 표정이 점점 밝아졌던 걸 기억하니. 읽어 내려가면서 너희들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스스로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목소리의 결이라고 할 수 있겠지. 성대의 울림과 입을 벌리는 정도 등등에 따라 목소리는 달라지니까. 너희들은 어느샌가 신중을 기해 목소리를 내고 있더구나. 물론 그런 저런 것들 신경쓰지 않고 무작정 신나서 목소리를 내는 아이도 있었다. 누구든, 너희들은 그야말로 아이였다.

나는 절대 너희들을 교육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간 것이 아니라 단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었던 것 뿐이니까. 이 경험이 너희들에게 아주 자그마한 기억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했다. 예술이라는 건 아주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 어찌보면 쓸모없는 것이거든. 그렇지만 쓸모없는 예술의 쓸모란 분명히 존재한단다. 너희들이 그걸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길 바랬다. 이런 내 정성을 아는지 어땠는지, 너희들은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 예술이란 것에 대해 분명히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다. 그게 참 고맙다.

그리고 또 하나 기분 좋았던 건, 너희들의 부모님이 나로 인해 너희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님의 아이에 대한 사랑이야 두말 할 것도 없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예술이란 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셨더구나. 예술이란 건 언제나 뚜렷한 무엇이 아니라 알쏭달쏭한 무언가를 전해주나보다.

너희들과의 경험으로 나 역시 이제 이 지역의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이 지역으로 내려온 지 6년쯤 되었지만 그동안은 어떤 벽이 느껴졌었거든. 너희들과 이야기 하기보다 나만의 시 쓰기에 몰두했으니 말이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마.

너희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는 오디오북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질 것 같다.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지고 있단다. 결이 다양해 모자이크처럼 알록달록한, 그러나 하나의 작품이 될 것 같다. 보다 멋진 오디오북을 위해 동료 미디어 아티스트의 도움을 받고 있단다. 완성이 되면 가장 먼저 너희들에게 달려갈게. ^^/

문학과 사람과 별과 시

예술인 장명주

매칭기관 공도도서관

프로젝트 북적북적, 행복한 공도도서관 만들기

문학의 힘?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공도 도서관,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만난다지만 이 사람은 조금 특별한 만남을 가진다. 〈도서관에서 앨리스 찾기〉, 〈원고지 위의 저공비행〉이라는 타이틀 아래 문학의 힘을 믿고 사람을 모은 것이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문학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었냐고. 이들은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일 까?

예술인 장명주

위 두 타이틀은 지난 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공도 도서관에 오게 된 예술인 장명주 씨가 개설한 강의명이다. 장명주 씨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중요한 요소였던 직업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가진 직업적 역량, 즉 문학 창작 수업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도서관에 매칭되기를 희망했다. 문학의 힘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도서관의 활성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에 있어서 문학만큼 강한 매개체도 드물다”는 것이 그녀의 문학에 대한 신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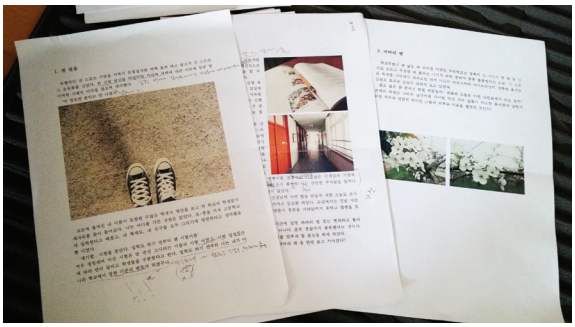
장명주 씨가 개설한 〈도서관에서 앨리스 찾기〉는 시 창작 기초,〈원고지 위의 저공비행〉은 글쓰기 기초 및 자서전 스토리텔링을 가르치는 강의명이다. 원래는 한 개의 강의만 진행하려 했으나 공도 도서관 측의 요구로 두 개의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솔직히 두 개의 강의는 부담스러웠으나, 도서관측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학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기를 원했기에 장명주 씨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했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생활 속에서 즐거운 글쓰기를 하자”

장명주 씨가 두 개의 강좌에서 내세운 공통 테제다. 무엇보다 두려움을 없애는 과정이 중요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만 극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명주 씨의 생각이었다.

장명주 씨의 예상대로 수강생들은 자신의 글을 쓰고자 모였지만 많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였다. 자기 검열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를 깨부수기 위해서 1, 2차시 강의에서는 즉흥적인 글쓰기와 서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너는 어떻게 나에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은유를 통해 소개하도록 했다. 또한 자신을 종이 위에서 판다면 어느 시절의 어떤 모습을 팔고 싶은지 써보도록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는 시도도 했다.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함으로써 자신의 상처로부터 객관적 시선을 가지는 연습, 인생곡선을 그린 후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시간 등을 가지며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이러한 시간은 평소 억눌려 있던 자기 자신을 깨부수는 계기가 되어줬다.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시간이었다. 참고로 수강생들은 20대 중반부터 60대 후반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장명주 씨가 1차시 강의에서 요구한 "다름에 대한 나름의 표현방식에 대해 다름에 대한 나름의 이해방식"이 있음을 알고 서로 존중해주어서 얻을 수 있는 성과였다. 수강생들은 장명주 씨의 수업을 통해 자신들이 한 번도 다가가보지 못한 세계에 다가갈 수 있었다.

장명주 씨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공도 도서관에 와서 사람이 남게 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생계에 쫓겨 뒤늦게 문학의 열정을 불태우며 글쓰기에 돌입한 몇몇 사람은 글쓰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글쓰기를 한다면 훌륭한 작가가 되리라 믿고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끝나더라도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라는 장명주 씨다. 또한 그들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자극을 받아 새롭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창작을 꿈꾸게 되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장명주 씨만의 사업은 끝이 나지 않는 듯 하다.



그렇게 우리 모두 잘난 아버지였다

예술인 강학수

매칭기관 극단소풍

프로젝트 소풍 파견 단원 및 지역 내 동아리 활성화

우리가 처음 자리에 모여 앉았을 때는 어둑해진 저녁이었다. 각자 일을 끝내고 온 터라 서로에게서는 다른 냄새가 났다. 누구에게서는 철 냄새가 났고, 누구에게서는 먼지냄새가 났다. 나 역시 분필 냄새를 묻히고 낯설고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있었을 것이다. 익숙한, 아저씨들의 냄새였다.

그 나이에 연극이라니 무슨 주책이야, 책망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긴 사회 생활에 찌들고 아이들과 집안을 이끌어가기에 바빠 영화 한 편도 보기 힘든 판이었다.

그래도 한번쯤은, '연극 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소원 정도는 나에게도 있었다. 긴 머리를 하고 별을 보고 시를 읽었을 무렵, 지금처럼 수능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학을 하는 청정한 꿈을 꾸었을 때였지만 말이다. 하지만 지금 이 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얼른 이 곳을 벗어나고만 싶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와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강학수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배우를 하고 국악을 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곳에 오게 되었다는 말을 하더니 갑자기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금 이 순간 이 곳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강학수 선생님은 호탕하게 웃었다.

"지금 이 곳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내 옆에 함께 서 있는 분들 역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새삼스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길에서 흔하게 만나고 지나쳤을 법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저씨들이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특별해 보였다. 각자 자기들의 소개를 했다. 나처럼 학교에서 선생을 하는 사람이 2명 더 있었고 정비사와 건축가, 직업군인 등 전부 배우와는 거리가 먼, 처음으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강학수 선생님은 흥미롭다는 얼굴을 했다.

"가장 슬펐을 때는 언제였어요? 제일 큰 실패를 겪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나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나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재작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모은 돈을 부동산 사기로 날렸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른 이들도 자신의 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대부분 또래였던 우리는 직업도 살아온 궤적도 모두 달랐으나 아픈 지점은 신기하리만큼 비슷했다. 자리를 옮기고 술을 한잔씩 하면서도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그것은 각자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마침내 우리도 선생님도 뚝뚝 눈물을 흘렸다.

"해봅시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무대 위에 서면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해주는 겁니다. 너 참 잘났다고. 이렇게 힘든데도 참 잘 살아왔다고."

이렇게 우리 극단의 이름은 '아버지 극단'이 되었다. 퇴근 후 모여 이야기를 짜고 연기 연습을 하는 날이 몇 번 거듭되고 나니 우리끼리 점점 친해졌고 말을 놓는 사람들도 생겼다. 강학수 선생님과도 많이 가까워졌다. 우리야 이렇게 연극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데 선생님의 예술 활동에는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평생을 풍물을 하고 연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작품 하나가 끝나면 그냥 그대로 인간관계가 끝나고, 예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내 안의 열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어떻게든 다르게 만들고 싶었던 건데…… 그런데 이 아버지 극단을 통해서 저도 힐링되고 다시 살아난 기분이 들어요. 새롭게 살아가는 이유를 찾게 되고, 예술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까요?"

마침내 무대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그토록 말을 많이 하던 직업을 가진 나였음에도 무대 위에 올라가면 입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나는 무대 뒤에서 슬쩍, 앉아 있는 내 가족들을 훔쳐보았다. 강학수 선생님이 웃으며 내 어깨를 끌어당겼다.

"막걸리라도 한 잔씩 하고 올라갈까요? 이거 긴장돼서 원."

"자, 이제 우리 모습을 보여줍시다. 아버지들의 모습을요. 우리가 우리 이야기에 울었던 그때처럼 저 사람들을 취하게 해주자구요."

마침내 우리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대로 나갔다.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되뇌었던 대사를 외웠다. 그날 우리가 관객들에게,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였다.

내가 살아온 삶은 잘못되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연륜이 쌓이는 것뿐. 우리는 어느새 모두 아버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

바다가 품어낸 시(詩)

예술인 김두안

매칭기관 내용연구소

프로젝트 시인 우체국

고기잡이 배가 출항을 준비한다. 어부들의 손놀림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숙함과 누구의 접근도 허락치 않는 단단함이 함께 서려 있다. 뭔가 돕고 싶어도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코끝을 에는 바람을 맞으며 멀리서 지켜보고 있자니 어떤 숭고함마저 느껴진다. 저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가만히 보고 있자면 신을 모시기 위한 의식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저들의 출항을 지켜보는 이가 한 명 더 있다. 그는 어부들과 친구인 듯, 타인인 듯 서 있었다. 다만 그 표정엔 한 가지 마음이 인장처럼 새겨져 있다. 어부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그는 시인이었다. '시인 우체국'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왔다고 한다. 몇 달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를 경계하던 눈빛들을 떠올린다. 어부들은 본인들을 스스로 예술, 문화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시인 우체국의 등장은 생소하고 의심스러웠다.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바다에 나가는 그들에게 시 같은 건 사치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서서히 어부들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 한 발짝씩 더 다가갔다. 그리고 건넨 시 한 편. 어부들에게 그의 시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무언가였다. 예술이니 뭐니 그런 거창한 말도 필요 없었다. 어부들은 하루하루가 목숨을 건 일상이었기 때문에 일상에 밀착된 무엇이 아니면 신경 쓸 여력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건넨 시 한편은 온전히 어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한 사람의 일상에 바치는 시,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일궈 낸 세계에 바치는 시였다.

어부들은 점점 그의 시를 기다리게 되었다. 어부들은 자신들의 노동이 누군가에 의해 따뜻한 위로를 받을 어떤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시가 얼마나 큰 축복과 기쁨과 위로와 환희가 될 수 있는지, 그들은 이제 스스로 알게 되었다.

그 역시 어부들의 노동을 스케치하고 시를 통해 위로하면서, 그들의 굴곡진 삶의 흔적들을 알게 될 때면 이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소리 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는지 새삼 느꼈다. 그는 자신의 관심으로 누군가가 더 큰 웃음을 짓게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 자신에게도 더 큰 행복으로 다가왔으니.

그가 지켜 본 어부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였다. 그는 그저 어부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다독여줬을 뿐, 실은 어부들은 삶 속에 이미 시가 녹아 들어 있었다. 거친 파도와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바다가 기어코 품어낸 시 한 편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어부들의 삶 그 자체일 것이다. 그들의 시가 사라지지 않길. ^^/

inside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Part 1. 사업 발자취

Part 2. 사업 프로젝트 리스트

Part 3. 사업 구성원

Part 1.

1월 28일

사업 공고, 참여기관 모집 공고

예술인 전원 참석 / 상암 월드컵경기장

2월 5일

컨설팅기관 입찰 공고

㈜올댓스토리 컨설팅 기관 확정

2월 10일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총 303명 지원

3월 6일

참여예술인 추가모집 공고

총 315명 지원

3월 10일 ~ 11일

예술인 면접심사 (1차)

3월 28일 ~ 29일

예술인 면접심사 (추가)

4월 4일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예술인 331명 사업 참여 확정

4월 22일

약정 체결식

예술인 전원 참석 / 상암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 / 예술인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지원 약정서 체결

5월 13일 ~ 14일

전체 워크숍

예술인 전원 참석 / 양평 한화리조트 / 예술인별 프로젝트 기획 수립을 위한 교육 및 참석자간 상호교류

5월 15일

기획안 멘토링 및 가매칭 시작

250개 기관 - 331명 예술인 매칭 시도

사업 발자취

6월 2일

월간 멘토 간담회

예술인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파악

6월 30일

기획안 멘토링 및 가매칭 완료

250개 기관 - 331명 예술인 매칭 완료

7월 1일

파견조정 및 협약, 파견활동 개시

176개 기관 - 331명 예술인 매칭 완료 /
총 280개 프로젝트 시작

7월 15일

월간 멘토 간담회

예술인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파악

8월 12일

월간 멘토 간담회

예술인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파악

9월 15일

월간 멘토 간담회

예술인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파악

10월 14일

월간 멘토 간담회

예술인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파악

11월 11일

월간 멘토 간담회

예술인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파악

11월 30일

파견 활동 완료

총 280개 프로젝트 완료

12월 16일

월간 멘토 간담회

예술인 현황 공유 및 사업 마무리

Part 2.

프로젝트명 / 파견기관명 / 예술인이름

1. 청년, 너는 누구? / (사)삼각산재미난마을 / 심은선
2. 벽화그리기와 돌담쌓기 / (사)수양산참삶골사람들 / 조동례
3. 5.18 동화 창작 / 5.18재단 / 안오일
4. 제주 다음 파견 / DAUM / 조원희
5. 휴게 공간 침투 / DAUM / 고창선
6. Inside-out / ID성형외과 / 송지은
7. 늣 아이디 / ID성형외과 / 장인선
8. 아이디비전 / ID성형외과 / 강은구
9. 클레멘트코스-시나리오멘토링 / J.LIZARD / 김상민
10. LG전자 에너지절약 1,2,3 캠페인 / LG전자 / 정광숙
11. 베트남 댁들의 췐핌 / 가평다문화가족센터 / 박승걸
12. 나도 영화감독 /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 / 서승인
13. 내 이름은 여성-나의 이야기 / 강화여성의전화 / 홍명진
14. 판소리랑 놀아보자 / 개봉동 글마루 도서관 / 정혜원,박명언
15. 그림책으로 미술하기 / 개포도서관/ 조현영
16. 지역살리기 프로젝트 / 경기문화재단 / 김익현,방병상,석정만,신은경
17. 대부도의 지역성 리서치를 통한 미술품 제작 / 경기창작센터 / 이창훈
18. 작곡 수업 / 경남진서중학교 / 이장욱
19. 유형진 시인의 순정낭독 / 고양아람누리도서관 / 유형진
20. 공간룰루랄라를 이용한 자표자기프로젝트 / 공간룰루랄라 / 김덕원
21. 단 한 명의 작가, 단 하나의 작업 / 공간 힘 / 최은순
22. 개미마을 리서치 프로젝트 / 공공미술삼거리 / 최종현
23. 개미마을 버드나무가게 / 공공미술삼거리 / 김성기
24. 공공미술삼거리 / 공공미술삼거리 / 강지윤
25. 뉴스레터 / 공공미술삼거리 / 김경호,송광찬,진보경
26. 데덴찌 프로젝트 / 공공미술삼거리 / 안정란
27. 마을 예술 프로젝트 / 공공미술삼거리 / 강은정
28. 장애극복 음악공연 / 공공미술삼거리 / 은성호
29. 탑골만화방 / 공공미술삼거리 / 권용주
30. 탑골만화방 한마을 이야기 / 공공미술삼거리 / 김치영
31. Drawing+ing / 광덕양어장 / 정명근
32. 이지 래핑(easy rapping) / 광양청소년문화의집 / 박이녕
33. 느티나무 통신 영상사업단 / 괴산언론협동조합 느티나무통신 / 장윤하
34. 스마트폰 대신 책을 들자 / 교육희망네트워크 (도봉지부) / 윤원일
35. 걱정쟁이 응원 북멘토 / 교하도서관 / 김성진,김성화

1 ~ 35

71. 내용증명 '당신의 삶을 증명하라' / 대안공간 이포 / 나현정
72. 크리에이티브 글쓰기 워크숍 / 더북소사이어티 / 장혜령
73. 음반제작 / 덕암고등학교 / 윤민영
74. 광장 축제 / 드림시티노숙자 교회 / 안현숙
75. 디자인 컨설팅 / 디자인그룹 in / 박준식
76. 리아트리-학교 앞 미로화실 / 리아트리 미술 & 미술심리연구소 / 김용란
77. 마석이주극장 시나리오 제작, 마석동네페스티벌 / 마석이주극장 / 조지은
78.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마을연예기획사 놀자 / 장의성
79. 싱싱마포 / 마포 FM / 정은주
80. 함께 만드는 가족 신문 /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 박미혜
81. 프로젝트 평상 / 마포문화재단 / 장성진
82. 길 위의 낙서 프로젝트 / 모두들 / 권세미
83. 우리 이제 집으로 / 모두들,아시아인권문화 연대 / 조혜은
84. 경계의 저편 /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 홍철기
85. 제주 해녀 /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 박정근
86. 제주돌초프로젝트 /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 고승욱
87. 영천시장 중강기 활성화 모색 / 문화로공감 / 전지인
88. 낙산가장무도회 / 문화마케팅진흥원 / 박상흠,박성도,송창원,정연지
89. 문화마케팅 지원 및 리서칭 / 문화마케팅진흥원 / 정형석
90. 시니어 상회 / 문화상회 다담 / 이아람
91. 지역 무속인 리서치 / 문화상회 다담 / 곽동열
92. 인터랙티브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 기획 / 미디토리 / 배은희
93. 극장, 밖에서 보다 / 바림 오픈 스페이스 / 정세영
94. 시장에 가요 /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 김일옥
95. 문화예술교육 / 법무부 출입국 / 김태균
96. 힐링프로젝트 / 법무사 백두만 / 오정은
97. 언어예술문학 체험하기 / 보성녹차문화예술단,정신보건사회복귀시설사랑샘 / 양관수
98. 글짓기 강의 / 본량동주민센터 / 박혜천
99. 장수(영정)사진 촬영 / 부산 중구노인복지재단 / 이준욱
100. 청소년 쉼터 프로젝트 / 부천 청소년 일시 쉼터 / 김여래
101. 나, 여기 있어요 / 부천문화재단 / 정연
102. 동은 에세이 / 부천문화재단 / 이난영
103. 부천 극작가들의 합평 네트워크 / 부천문화재단 / 김혜진
104. 양평동 리포트 / 부천문화재단 / 이상택
105. 얼굴들 / 부천문화재단 / 오태헌,하수민

71 ~ 105

사업 프로젝트 리스트

프로젝트명 / 파견기관명 / 예술인이름

36~70

36. 공간개선 프로젝트 / 교하도서관 / 양현진
37. 공간구성 및 연구 / 교하도서관 / 이지연
38. 음악동화 / 교하도서관 / 배나경
39. 주민 포트폴리오 워크숍 / 교하도서관 / 김훈예
40. 춤바람일터, 유연한 도서관 / 교하도서관 / 박현미
41. 시 테라피 / 구로 청소년네트워크 함께 / 조하연
42. 아이들의 중창단 / 구로 청소년네트워크 함께 / 김신아
43. 함께에서의 추억 / 구로 청소년네트워크 함께 / 서재경
44. 이야기 할머니 비디오 제작 / 국학진흥원 / 김수지
45. 파출소가 돌아왔다 시즌2 / 군포문화재단 / 유승연
46. 여자, 글쓰기로 날다 / 그리다 협동조합 / 안미선
47. 소풍 파견 단원 및 지역 내 동아리 활성화 프로젝트 / 극단 소풍 / 강학수
48. Funnyture / 금성가구 / 박경수
49. Give and Take / 금천예술공장 / 위영일
50. 주민이 만드는 연극교실 / 길음1동 주민센터 / 김난희
51. 책 읽지마, 잼있게 보여줄게 / 길음1동 주민센터 / 이상희
52. 김포쌀을 주제로 하는 시민참여미술 전시회 / 김포평생학습센터 / 공기평
53. 나도 영화감독 / 꿈꾸는 다락 / 박경환,허상례
54. 남산골 한옥마을 공연 프로그램 다큐멘테이션 / 남산골 한옥마을 / 성동훈
55. 남산한옥마을 / 남산골 한옥마을 / 남승연
56. 전통5일장 아트간판 / 남양주 진전읍 전통오일장 / 김정아
57. SNS 홍보영상만들기 / 내용연구소 / 박재평
58. 매듭인테리어 / 내용연구소 / 박형민
59. 부동산 프로젝트 / 내용연구소 / 엄아롱
60. 시인우체국 / 내용연구소 / 김두안
61. 찾아가는 예술힐링 / 내용연구소 / 이현숙
62. 이웃집 갤러리 / 단원과 수평 / 성기화
63. 철산 4동 연대기 / 넝쿨어린이도서관 / 김문경
64. 달꽃창작소 연극 수업 / 달꽃창작소 / 박준혁
65. 예술인 혈기도 모임 / 달리크리에티브 / 임진세
66. 찾아가는 예술서비스 / 담양 블루베리 영농조합 / 정이석
67. 스토리텔링을 통한 테마길 명명사업 / 담양문화원 / 김미승
68. 대구공정여행 / 대구공정여행 / 정만진
69. 우리동네 로드맵 / 대구문화재단 / 오정향
70.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따른 기록 창작활동 / 대구향토역사관 / 김재경

106~140

106. 지금 이 순간 / 부천문화재단 / 권인영
107. 피터의 호수 / 부천문화재단 / 박은희
108. 글하고 놀자 / 북면지역 아동센터 / 조재도
109. 인쇄물 워크숍 / 북팩토리 / 여혜진
110. 홍보,컨텐츠제작,컨설팅 /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소 / 이정훈
111. 홍보 및 인지도 업그레이딩 /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소 / 최종구
112. 비온후 출판사 / 비온후 / 박자현
113. 빅이슈 웹툰 / 빅이슈코리아 / 이용택
114. 빅이슈 합창단 / 빅이슈코리아 / 강지숙,김준희,이동규,이윤신
115. 디지털 시티에 시적 상상력을! / 삼성전자 / 김동우
116. 새 이야기 프로젝트 / 새만화책 / 이정수
117. 안녕 광안리 / 생활기획공간 통 / 이정임
118. 제6회 봉수골 작은 음악회 / 서곡생태마을 / 함혜정
119. 마포 문화 프로그램 / 서교예술실험센터 / 박동조
120. 문화 대동여지도 / 서교예술실험센터 / 김제현
121. 유투브 마니아 / 서교예술실험센터 / 돈선필,김동희
122. 함께 해요 마포 / 서교예술실험센터 / 김범준
123. Find Place / 서울대공원 / 송지윤
124. LTP-사진 속 동물원 / 서울대공원 / 이선민
125. 관광 가이드북 / 서울대공원 / 윤태규
126. 꿈을 짓는 손 / 서울대공원 / 하형주
127. 대공원 사람들 / 서울대공원 / 오현희
128. 대공원을 끼고 사는 사람들 / 서울대공원 / 김차영
129. 동물 프로젝션 / 서울대공원 / 강민수
130. 들판에색을 정원에날개를 / 서울대공원 / 임의영
131. 바다동물친구 소개서 / 서울대공원 / 홍유미
132. 생태지도제작 / 서울대공원 / 윤진실
133. 서커스 / 서울대공원 / 이연재
134. 설화로 만나는 대공원 / 서울대공원 / 유비호
135. 아케이드 프로젝트 / 서울대공원 / 김대현
136. 야생화 그림책 / 서울대공원 / 지혜라
137. 요요현상-요요서울대공원 / 서울대공원 / 문현웅,이대열
138. 포토꼴라쥬 / 서울대공원 / 박세연
139. 예술가의 창의성 탐색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무준 외 4명
140. 리뷰 웹툰 제작 / 서울산업진흥원 / 방승조

141. 청소년 미래여름학교 / 서울산업진흥원 / 조현지
142. 말벗 프로젝트 / 서울시 마을 북카페 결애 / 이성자
143. dodo리다 / 서울시설관리공단 / 김동호
144. 맞춤 가구 / 서울시설관리공단 / 곽이브
145. 반가웠습니다 / 서울시설관리공단 / 강현아
146. 벽화작업 / 서울시설관리공단 / 김미남
147. 애도의 춤 / 서울시설관리공단 / 박나훈
148. 예술 셀프 포토존 / 서울시설관리공단 / 이지훈
149. 오늘은 우리 모두가 김과장 / 서울시설관리공단 / 박소영
150. 찬란한 나의 오늘, 숲 속 도서관 / 서울시설관리공단 / 김미경
151. 내 아이를 주인공으로 창작 동화 쓰기 창작 교실 / 언니네 작은 도서관 / 이병승
152. 트라우마 글쓰기 / 서천재단 은혜의 집 / 손병걸
153. 발칙한 상상력에 날개를 달자 / 서초구립반포도서관 / 김주욱
154. 카리스의 명랑 극장 / 서초구립반포도서관 / 이미은
155. 가게를 위한 예술의 기여 / 석수유통 / 이정희
156. 블랙마켓 퍼포먼스 / 석수유통 / 서성훈
157. 낙탄부 여성 녹취 / 석탄박물관 / 신하정
158. 기업 및 기관의 협조를 통한 시나리오 콘텐츠 개발 / 선맥통상 / 신동일
159. 생태미술 및 세밀화 / 성남시청 녹지과 / 한경희
160. 연극으로 만난 우리동네 이야기 / 성미산문화예술협동조합 / 남필우
161. 내 생애 이 순간 / 성북 나눔의 집 / 류미례
162. 한양도성문화제 / 성북문화재단 / 정현진
163. 소마미술관 기획전시 / 소마미술관 / 정해연
164. 송파 메이크아티스타 발굴 / 송파구청 / 김동현
165. 송파마을예술창작소 / 송파구청 / 유영소
166. 이화동 야외 음악공연 / 쇳대 박물관 / 김동화
167. 이화동 야외 음악공연과 마을 노래만들기 / 쇳대 박물관 / 정효현
168. 수원미술문화 프로젝트 / 수원 화성문화재단 / 황지연
169. 꿈꾸는 도화지 / 수유종합사회복지관 / 이혜민
170. 문화예술교육 / 시민자치문화센터 / 표명희
171. 미시사 기록 / 시민자치문화센터 / 정택용
172. 밀양 아리랑 재기록 사업 / 시민자치문화센터 / 홍진훤
173. 사회적 파견 '동네방네' / 시민자치문화센터 / 연영석
174. 예술인 복지 프로젝트 / 시민자치문화센터 / 양철모
175. 화전민 프로젝트 / 시민자치문화센터 / 박필성

211. Revolution by play / 유브레인 커뮤니케이션스 / 윤여진
212. 유성 갤러리 / 유성산업 / 강석태
213. 유수암 버스차부 축제 / 유수암차고지 / 서상혁
214. 의왕시 생태동화쓰기 및 의왕시민모임과 함께하는 글쓰기 / 의왕시민모임 / 유순희
215.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만화 / 이피큽 협동조합 / 조윤혜
216. 일상예술창작센터 영상 아카이빙 / 일상예술창작센터 / 김해원
217. 최초의 밤 The first night / 일상예술창작센터 / 이지혜
218. 카-세트 테잎 씨어터 / 자큰북스 / 윤혜진
219. 전곡 선사 박물관 11월 전시회 / 전곡선사박물관 / 이대일
220. 수채화 / 전남오승우미술관 / 박수경
221. 한뼘 자서전 쓰기 / 전북 마동 도서관 / 장마리
222. 예술로 바라보는 마을 이야기 / 전북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 박대용
223. 정읍 사생 프로그램 / 전북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 이민정
224. 섬 시 창작 / 제주문화재단 / 정진혁
225. 제주 기반 영상작업 / 제주문화재단 / 김성민
226. 제주 기반 춤 창작 / 제주문화재단 / 양길호
227. 제주 민요 악보화 / 제주문화재단 / 전송이
228. 제주 사운드 아트 / 제주문화재단 / 김승환
229. 제주 신화 기반 사진 / 제주문화재단 / 조병철
230. 제주 해녀 사진 촬영 / 제주문화재단 / 김흥구
231. 파견예술가 영상촬영 / 제주문화재단 / 김범호
232. 모살 / 제주시 협재리 사무소 / 이다슬
233. 문해 교육을 아시나요 / 제천 솔뫼학교 / 임영태
234. 시와 벗 / 죽전시 문학회 / 이선균
235. 그림책, 지역을 날다 / 중랑마중물 / 조원형
236. OLD GOLD / 지동현대슈퍼마켓 / 오영은
237. 벽화 연구를 위한 리서치 / 지동현대슈퍼마켓 / 박영균
238. 숨의 소리, 숨은 이야기 / 지동현대슈퍼마켓 / 성수희
239. 걱정쟁이를 응원하는 북멘트 프로젝트 / 천안 두정도서관 / 이은정
240. 어르신 글쓰기 / 청원노인복지관 / 한택수
241. 나눔 / 초롱이네 도서관 / 김수영, 임미나
242. 연극상담치료 / 초지중학교 / 정도영
243. 제3회 춤,하나 댄스컴퍼니 정기발표회 / 춤하나댄스컴퍼니 / 권효진
244. 신당동 보물찾기 / 충무아트홀 / 박정흐,이주희
245. 꿈과 행복 드림 /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변가영,임남규

176. 집으로 찾아가는 이야기 + 모자이크 오디오북 제작 / 신림초등학교 / 이성미
177. Portray magic '마술적 풍경을 그리다' / 쑥골도서관 / 경지연
178. 서울대공원 관련 음악 콘텐츠 제작 / 아뜰리에 오 / 김용성 외 7명
179 기업음악 트랜스포밍 / 아모레퍼시픽 / 공윤배
180. 나무 그림자가 들려주는 당신의 이야기 / 아모레퍼시픽 / 김혜나,이은아,강은진,김미경
181. 어린이집 미술교육 프로젝트 / 아모레퍼시픽 / 서은정
182. 오디오 드라마 제작 프로젝트 / 아모레퍼시픽 / 주정훈
18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창작 연극 공연 / 아모레퍼시픽 / 변영후,신동훈
184. 죽은 공간 살리기 / 아모레퍼시픽 / 홍수정,황재옥
185. 에너지자립 이동식주거유닛기획 / 아시아 에너지 지속가능 개발 연구소 / 이샘
186. 우리동네 상호문화 활동 / 아시아인권문화 연대 / 강민지
187. 탑골만화방 / 아시아인권문화연대,서울시여성보호센터 / 김현아
188. 창작, 희로애락의 이름으로 / 아이공 / 임창재
189. 기업브랜드 확장과 예술의 결합 / 아이코닉스 / 김봉준,심수정,이준영
190.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 / 아트포러스 예술협동조합 추진위원회 / 김성희
191. 함께 즐겨요 / 아트포러스 예술협동조합 추진위원회 / 장근희
192. 비로소 저는 이제 눈 뜬 장님입니다 / 안국약품 / 소상민
193. 가우극 퇴계연가 / 안동국악단 / 김서진
194. 북적 북적, 행복한 공도도서관 만들기 / 안성시립 공도도서관 / 장명주
195. 영상 자서전 / 안양문화재단 / 장덕래
196.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 안양문화재단 / 이웅
197. 밥이 되는 인문학, 문학과 자연이 만나다 / 양주도서관 / 나병춘
198.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 양천문화원 / 김재순
199.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여러가지 연구소 / 신지연
200. 느낌의 공동체:랜드마크를 찾아서 / 오뉴월 / 유화수
201. 카페 공간 컨설팅 / 오렌지 연필 / 고재욱
202. 다문화엄마, 다문화아이들이 그리는 나의 이야기 / 오산 이주노동자센터 / 이윤정
203. 예술치료 / 오산초등학교 / 한상아
204. 어린이 공연프로젝트 / 와글와글도서관 / 김혜원
205. 뮤지컬 읽기 / 요산문학관 / 이미옥
206. 서울 속 세계여행 / 우드앤북 / 박수예,이혜헌,장영훈,전경남
207. 연극의상제작 / 우리극연구소 / 박소영
208. 재밌는 정보 / 월간 비건 / 이경미
209. 예술을 통한 홍보 / 위드푸드 / 이화
210. 노래가 있는 나의 옛날 이야기 / 유브레인 커뮤니케이션스 / 유영길

246. 동물복지 그림책 / 카라동물보호시민단체 / 박나래
247. 카라(동물시민단체) 티저영상 제작 / 카라동물보호시민단체 / 조은지
248. 신진 예술인 지원 프로젝트 / 카페 더파레트 / 진희웅
249. 예술로 아름다운 기업문화 만들기 / 토리도 / 박정봉
250. 기내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 트리아드 / 정성화
251. 호평동에서 호평받는 시 / 판곡고등학교 / 최영숙
252. 8월 음악제 / 팽성예술인창작센터 / 안호성
253. 안정리 사람들 / 팽성예술인창작센터 / 차경희,최미경
254. 안정리 오픈마이크 / 팽성예술인창작센터 / 유희재,이경래
255.우랑사랑 요리이야기와 함께 춤을 / 팽성예술인창작센터 / 박성실
256. 우랑사랑 요리이야기와 함께 춤을 / 팽성예술인창작센터 / 함건수
257. 팽성아트캠프 오디션 / 팽성예술인창작센터 / 이인규
258. 대추리 평화,예술,생태마을 만들기 / 평택평화센터 / 이윤엽
259. 식생활 교육 정보의 시각화 / 푸드포체인지 / 손현정
260. 음식콘텐츠의 시각화 / 푸드포체인지 / 이현지
261. 온라인 모금 캠페인 콘텐츠 제작 / 푸르메 재단 / 조하영
262. Applied Theatre / 프락시스 / 이경배
263. Applied Theatre / 프락시스 / 허소연
264. 강동구 성내동 공공미술_강풀만화거리+성내시장 / 핑퐁아트 / 김준서
265. 예술인과 함께 하는 미술놀이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 이수현
266. 여성인권영화제 / 한국여성의전화 / 정민경
267. 자전적 글쓰기에서 소설 창작까지 / 한뫼도서관 / 안덕훈
268. 작가와 함께 하는 치유의 글쓰기 '나에게로의 초대' / 한빛사회복지관 / 이현주
269. 대한민국의 모든 축제 / 한산모시축제 / 한도훈
270. 함께 사는 세상 다큐멘터리 / 함께사는 세상 / 박지선
271. 함세아 리서칭 프로젝트 / 함세아문화예술인협동조합 / 김종필
272. 두근두근 내(네) 마음을 보여줘 (독서치료) / 행복한 홈스쿨 / 고은아
273. 어른에게 들려주는 이솝우화 이야기 / 행복한 홈스쿨 / 안민열
274. 우현 프로젝트 경계에서 관계로 / 홍예문 문화연구소 / 정동준,김수환
275. 우현 프로젝트 경계에서 관계로 / 홍예문 문화연구소 / 오석근,이경화
276. 극단 홍차 배우들을 위한 신체 움직임 프로그램 / 홍차극단 / 우희영
277. 아낌없이 주는 나무 /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 라병연
278. 테마파크 조성사업 / 힐링 테마파크 / 강경호
279. 테마파크 조성사업 / 힐링 테마파크 / 김미선
280. 화순 힐링아트 테마파크 조성산업 / 힐링 테마파크 / 문인호, 최해수

Part 3.

2014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멘토

강성삼 / ㈜올댓스토리
김병주 / 서울교육대학교
김상윤 / 내용연구소
김월식 / 무늬만커뮤니티
류성효 / 독립기획자
박이창식 / 문화살롱공
박준 / 여행 작가
서지혜 / 인컬쳐컨설팅
신상원 / 기업문화컨설턴트
양철모 / 공공미술삼거리
주성진 / 독립기획자
최준영 / 시민자치문화센터
하림 / 아뜰리에오
하원준 / 영화 감독

사업 구성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정이 / 복지사업팀 팀장
	이기언 / 복지사업팀
	최유리 / 복지사업팀
	김효진 / 복지사업팀
PM	주성진 / 독립기획자
㈜올댓스토리	김희재 / 대표
	강성삼 / 스토리기획개발실 실장
	전건우 / 스토리개발팀 팀장
	안종준 / 스토리개발팀 작가
	김근형 / 스토리개발팀 PD
	문주희 / 스토리기획팀 PD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 사례집
<본업 예술가의 부업 가이드>

기획·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팀장 : 김정이
총괄 : 이기언
운영 : 최유리, 김효진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 : 주성진

실행 : 올댓스토리
대표 : 김희재
총괄 : 강성삼
운영 : 안종준
작가 : 김근형, 고영리, 안종준, 전건우, 홍혜영
조사 : 김근형, 문주희
디자인 : 손구용

인쇄: 삼육 인쇄소

발행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 박계배
발행일 : 2014.12.23.

이 자료집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4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T. 02-3668-0200 F.02-3668-0299
http://www.kawf.kr